



여성이 살리는 세상
2017년 제4호

004 **펴내는 글** | 여성주의로 세상을 보고자 하는 이유
김기동

007 **특집** | 여성혐오 시대, 그 현실들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 와 한국 교회의 성폭력
최순양
재난과 기후변화 대책 속에서 여성들은 안전한가
김동식
여성혐오 시대, 여성정치 어디까지 왔나:
비례대표 초선 국회의원 3인 인터뷰
김은경

049 **총론** | 한국사회 여성혐오와 여성주의, 이론적 고찰
여성혐오와 혐오의 모방: 여성혐오에 맞서는 여성주의의 전략
김은주
여성혐오, 그 후: 비체 페미니즘의 새로운 물결
이현재

071 **기획** | YWCA 운동은 왜 여성주의 운동인가
YWCA 운동의 역사와 여성주의: Y운동은 왜 여성주의 운동인가
최형미
여성이 앞장서 온 탈핵운동: YWCA 탈핵운동의 여성주의적 함의
이윤숙

099 **좌담** | 여성혐오 시대, 기독교여성들의 길찾기
기독교여성들은 여성혐오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강호숙 김기동 김은혜 김형국 유연희

115 **현장이야기** | YWCA 여성운동 현장을 가다
말하는 여성들의 아름다움, 그 목소리의 힘:
청주YWCA 여성운동 현장
이혜정

131 **편집후기**
김은경 신 선 이은영 최형미

여성*서기 | 기독교여성들은 여성혐오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Cotents **2017**
4호

여성이 살리는 세상 『여·세』
2017년 제4호

발행일 2017년 2월 3일
발행처 한국YWCA연합회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 73
전화 02-774-9702~4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발행인 이명혜
편집인 유성희
편집위원장 김기동
편집위원 김은경 신 선 이은영 최형미
편집 박은실 이윤숙 신미희 최지영 정서연
편집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 02-6080-9858
인쇄 (주)신사고하이테크
ISSN 2289-0254
정가 12,000원

여성주의로 세상을 보고자 하는 이유

김기동

『여·세』 편집위원장

004
005



시절이 참 어수선합니다. 마치 동맥경화에 걸린 것처럼 우리 사회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문제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의 시대,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선언된 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내다본 미래를 향한 꿈이 무색하기까지 합니다. 산다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말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나 혼자 잘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불안한 이 시대, 이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여·세』의 주제는 ‘여성혐오의 시대, 기독교여성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2016년 5월,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을 통해 봇물처럼 터져 나온 ‘여성혐오’에 대한 논란들은 비단 작금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역사에 깊이 내재되어 있던 차별과 억압, 그를 통한 인간성의 부재라는 민낯을 드러내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예수의 해방적 메시지에 희망을 품지만, 여전히 현실을 참고 인내해야 하는 기독교여성들이 이 부조리와 분노를 어떻게 극복하고 살 수 있을지, 함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번 호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여성주의’입니다. 여성주의를 바탕으로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성찰하고, 또한 평범한 여성들의 작은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깨달은 바는 다름이 아닙니다. 남성과 구별되지만 차별적 언어인 ‘여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인간’으로 함께 더불어 살고 싶다는 것이지요.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며 한국사회가 더 이상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위계의식에 신음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날까지, 이 소망으로 ‘아닌 것’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는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여성혐오 시대,
그 현시드
나리

특집 1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와
한국 교회의 성폭력

최순양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초빙교수

1. 들어가며 - '여성'범죄를 어떻게 자리매김하는가

2016년 5월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상가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무참히 살해되었다. 범인은 화장실에서 기다리다가 6명의 남자를 보내고 난 후에 피해자 여성을 살해한 것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있어왔던 여성혐오의 극단적 표출이다. 가해자가 정신병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여성일반에게 가지고 있었던 감정이 바탕이 되어 벌어진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법무부에서는 이 사건을 여성혐오 사건으로 규명하려고 하지 않았다. 따라서 강남역 사건이 주는 의미가 특별하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을 타 것으로 한 범죄의 정점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 단체들이 이를 '여성혐오'로 규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와 비슷한 나이와 상황에 있는 많은 여성들 그리고 슬픔과 분노를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강남역 10번 출구 외벽에 다양한 색깔의 '포스트 잇'으로 슬픔과 분노의 메시지를 남겼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여들어 추모와 저항의 물길을 형성하였다. 경향신문 사회부가 5월 22일 밤 '포스트 잇'이 철거되기 직

전 사진으로 찍고, 타자를 쳐서 기록으로 남긴 1004장의 메시지들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추모의 메시지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¹ “우리가 방관해 온 여성혐오 때문에 여성이 살해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성혐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당신의 죽음이 결코 또 다른 ‘한 여자’의 죽음이 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싸우겠습니다.” 등등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여성들이 왜 어떤 이유로 분노하고 슬퍼하고 있는지, 왜 세상을 바꾸자고 결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강남역 사건을 둘러싸고 형성되고 있는 한국인의 여성에 대한 인식, 성폭력, 그리고 그 성폭력을 지속시키고 있는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올해 일어난 성폭력 관련사건 중에 많은 부분이었던 목회자에 의한 성폭행의 문제를 점검해 볼 것이다. 한국 사회의 성폭력 문제 속에 어떻게 보면 '문제 속의 문제'로 자리 잡힌 교회안의 성폭력 문제를 다루어 보고 이를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 문제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2. 누구의 시각에서 범죄를 해석하는가

범죄 사회학적으로 볼 때 여성이 성폭력이나 강간 그리고 살인 등 폭력의 피해자일 경우 많은 부분 그것은 권력관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가해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에게 폭력을 가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 피해자인 여성의 자리를 종속시키려고 한다. 강남역 사건의 경우에도 평소 가해자가 여성들에게 무시를 당해왔다는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 남성인 자신보다 훨씬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할 여성이 그렇지 않다고 느꼈을 때 나오는 정신적 폭력성이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성이 피해자였던 사건은 전세계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상당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었다고 명백히 인식하는 역사는 그리 길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1970년대만 해도 여성피해자는 별로 드러나지 않았다. 즉 현실적으로 여성이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

1. 경향신문 사회부 사건팀, 『강남역 10번 출구, 1004개의 포스트잇-어떤 애도와 싸움의 기록』 도서출판 나무연필, 2016.

다고 해도 그것을 사회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 맞는 여성’(battered women)이나 ‘성희롱’(sexual harassment) 같은 용어는 1974년, 1975년에 등장했고 ‘데이트 강간’(date rape)이란 용어는 1980년대에 쓰이기 시작했다.² 남성이 여성을 편집증적으로 쫓아다니는 ‘스토킹’(stalking)도 1990년대에 와서야 범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한다.³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범죄들을 얼마나 진지하게 인지하고 있는가와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별개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여성들이 술에 취하거나 밤늦게 귀가하는 경우, 혹은 야한 옷을 입은 경우가 해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여성을 비난하고 원인 제공자로 몰아가곤 한다.

강남역 사건의 경우도 남성이 아닌 ‘여성’이 살해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당국은 이 사건을 ‘묻지마’ 살인사건, 혹은 가해자가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려고 했다. 이러한 사실에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 많은 통계자료들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엄연히 드러나는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의 증가이다.

2015년까지만 해도 여성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법무부는 분명한 자료를 제시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6년 5월의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여성혐오’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증오 범죄’(Hate crime),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성혐오로 인한 살인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여성들만 골라서 주차장에서 살해한 김일곤 씨의 사건만큼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격이 뚜렷함에도 강남역 사건은 증오범죄가 아닌 ‘묻지마’ 사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만약 강남역에서 추모의 물결이 일지 않았다면 경찰이나 ‘법무부’에서 이 사건을 ‘여성혐오’로 인한 사건이라고 규명을 했을까? 여성들이 많은 문제제기와 저항의 몸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들은 더 많은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고 경찰과 국가에 대한 신뢰감이 더 저하되었다. 법무부가 이 사건을 ‘여성’을 타깃으로 한 사건이 아니라고 규정함으로써 제2의,

2. 조앤 벨크넵 『여성 범죄론: 젠더, 범죄와 형사사법』, 윤옥경 옮김, 박학사, 271p.

3. Wallace, Harvey “A Prosecutor’s Guide to Stalking” Prosecutor (Feb, 29, Vol. 26) 25p.

제3의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3. 남성과 여성의 관계보다 더 심층화된 목회자 남성과 평신도 여성

1) 교회내 성폭행 사례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고 비하하거나 대상화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할 때,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성성폭력의 사례들은 그 층위가 좀 더 복잡해진다.

S교회를 담임했던 J목사의 케이스를 분석해 보면, 왜 일반인이 성폭행을 저질렀을 때와 달리 모든 행실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 목회자에 대한 처벌이 더 지연되고 감추어지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J목사는 소위 ‘스타목사’였다. 유명한 저서도 많았고, 청년들을 전도하고 이끄는 데도 탁월한 재능을 가진 목사였다. J목사의 성범죄 사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자매를 당회장실로 불러 옷을 모두 벗고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이 처녀임을 강조하자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함(1회)
- ㉡ 주례를 부탁하러 온 성도에게 문을 잠그라고 하고 안아보라고 요구하며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며 “가슴이 처졌네”라는 성희롱 발언을 함
- ㉢ 교회에서 여성 신도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감(상)이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서 추행함

J목사의 사건은 그러나, 본인이 성추행과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은 물론, 버젓이 목회자직을 계속하면서 새로운 교회에서 목회자로 살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J목사 진실을 공개합니다’라는 인터넷 카페까지 결성해서 목사의 사직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그에 응당한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문’만 발표하였다. 목사와 장로, 그리고 변호사로 구성된 ‘4인위원회’가 2010년 9월 <뉴스앤조이>에 기사를 내면서 ‘3개월 설교정지, 6개월 수찬 정지’라고 하는 솜방망이 징계만을 내렸다. 같은 해 10월 교회개혁연대측에서 총3

부 14개항으로 구성된 질의서를 보냈음에도 S교회 측은 공개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퇴임 후 1년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S교회는 J목사에게 “주택구입 명목으로 10억 원, 만17년 봉직한 퇴직금 명목으로 1억1000만 원, 향후 몇 년간 목회활동 중단에 따른 생활비 명목으로 1억3000만 원, 치유 명목으로 1억 원 등 총 13억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전세 보증금을 상계하고 10억 6500만 원을 지급했다.⁴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60대의 목회자가 20대 여성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경남 창원 P교회 담임목사인 이 사람은 20대 여성 두 명을 모텔과 집, 교회 등에서 성추행해 왔고, 피해자는 이 사실을 감추려했지만 우연히 한 여성이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자신도 피해 받은 적이 있다는 말을 공유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대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두 여성이 모두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었고 목사는 상습적으로 “딸 같아서, 아버지니까 돌봐주는 것이다”라는 명목으로 이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것이다.⁵

교회 내 성폭행의 문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현재는 성폭행을 가장 많이 범하는 직업군이 성직자라고 하는 말까지 나온다. 한국 사회 내 여성에 대한 인식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목사에 의한 여신도 성폭행이라는 심각한 범죄를 정당화하는 교회는 더 중첩된 문제를 가지고 있다.

2) 교회에서의 여성의 이중 종속 - 목회자의 남성권위와 ‘스타의식’

S교회는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이 사건이 드러나기 전부터 J목사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피해자들을 몰아세운다거나(신천지에 영향을 받아 녹음기를 가지고 목사실에 들어갔다는 등) J목사에 대해 치료든 처벌이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안식년을 갖는다고 교인들을 속이고 J목사가 다시 교회 일을 하도록 도왔다. 게다가 이 일을 세상에 알리려고 한 교인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고소를 했다. 부산의 어느 목회자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성폭행 범죄를 사회에 알리

겠다고 하니 갖은 협박과 저주를 퍼부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고 한다. 교회 내에는 이처럼 성범죄자인 목회자를 비판하기보다는 감추고 두둔하는 신앙적, 신학적 기반들이 더 공고하다.

남성목회자들은 자신이 목회자라고 하는 권위를 근거로 하여 여성들을 이중으로 대상화시키고 있다(여성이라는 이유와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평신도라는 두 가지 변수를 이용하고 있다). 교회 여성들이 주로 당하는 성폭력은 목회자들로부터 행해지는데, 이 경우 교회의 신조나 믿음체계, 그리고 여성들의 신앙 교육 등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교회에는 사회에서 규정하는 성역할과 성적 차이보다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이분법적 종속적 관계로 규정하면서 그 안에서 남성들은 여성들의 ‘머리’이며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 게다가 그러한 남성들의 지도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전제가 깊숙이 깔려 있다. 게다가 남성은 지도력으로 여성은 그 지도력에 순종하고 종속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부합된다고 하는 잠재적 동기가 존재한다.⁶

이러한 역할 규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로 이해하기 때문에 남성의 지배는 정당화되고, 남성에게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저항으로 간주될 때가 많다. (여성) 평신도들이 목회자(대부분의 목회자는 남성이므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심리적 상태는 거의 유아기적 수준이다. 목회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의문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반남자가 아니라 남성 ‘목회자’이기 때문에 폭행을 당하더라도 저항할 수 없이 무력해졌다는 경험담을 토로하는 피해자들이 있었다. 더군다나 목회자가 성경구절을 인용한다거나 신앙적 조언을 하면서 성폭행을 강요할 경우 남성 목회자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한다(그냥 남자가 아니라 ‘목사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떤 목회자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선택한 것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세 명의 여신도를 자신의 아파트로 불러 성행위를 하고 안마를 요구했다(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도 바쳐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4. 온라인카페 ‘전병욱 목사 진실을 공개합니다’ 편집팀, 『숨바꼭질 : 스타목사 전병욱 목사의 불편한 진실』, 2014, 대장간, 94~98p.

5. <오마이뉴스>, 2016. 8. 29.

6. 윌리케 아이힐러, 『깨어진 침묵 : 성폭력에 대한 여성신학적 응답』, 김상임 옮김, 여성신학사, 2001, 144p.

도 피해자인 여신도는 그 상황이 성과 연관되어 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성폭행을 당했고, 자신의 신학적 체계 안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기에 목회자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⁷

앞서 이야기한 J목사의 경우도 성경구절을 인용한 것은 아니지만, 목사라고 하는 지위를 남용하여 결혼을 앞둔 여성에게 부부생활을 원활히 하도록 도와준다면서 성폭행을 감행하였다. 어느 목회자는 동정녀 마리아처럼 손만 잡았는데 임신이 되었다고 범행사실을 숨기기도 했다.

레디거(Rediger)라는 학자는 교회 내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를 연구했는데, 목회자들은 ‘스타의식’을 쉽게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분석한다. 목회자는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자신에게 묘한 매력을 느낀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우며, 신비스러운 능력을 가지며, 옹고 그름을 가려내고, 상벌을 주고 충고하는 등 뭔가 중요하고 큰일을 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착각한다. 목회자가 자신을 이렇게 스타의식을 가지고 과대평가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자신에게는 도덕적 규칙이나 원칙을 적용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⁸ 다른 사람에게 지시를 하고 충고를 할 수는 있을지라도 자신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스타 의식 속에서 마치 평신도에게 수혜를 베푸는 것처럼 자신의 성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으며, 그를 흠모하는 교인의 판단력까지 마비시키게 된다.

라이즈업 대표직을 했던 목사의 이야기나 성폭행 양상을 살펴보면, 여성들에게 성폭행을 가하면서도 그 폭력을 ‘목사’이자 권력을 가진 이로서 약자인 여성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로 포장을 하거나 협박을 하면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혹은 그러한 목사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신앙이 좋은 것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면서 감행하였다.

이렇듯이 교회 내에서는 남성 대 여성의 이분법적 구조에 덧붙여서 목사와 평신도라고 하는 권력의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구조가 있다. 사회에서의 여성보다 교회 내의 여성들은 이중으로 약자의 위치에 놓여있는 셈이다.

7. 정희성, 『여성과 목회상담』,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118p.

8. 정희성, 『여성과 목회상담』,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123p.

3) 교회 내 존재하는 이중 억압적 여성상

교회에서 바람직한 여성신도의 모습으로 제시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여성상은 여신도들이 목회자로부터 성적 폭력을 당했을 때도 그것을 부당하다고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저항할 수 없게 만든다.

이상적인 여성상의 모습은 봉사하고 남성에게 순종하는 여성들의 모습이다. 따라서 목회자가 무엇을 요구하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저항하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 또 다른 여성상은 자신의 고난을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는 여성상이다. 성폭행을 당하고서도 자신이 감내하고 목회자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겠다, 목회자를 고소하지 않겠다고 하는 대응을 하게 되는 것도 여성은 고난을 감수해야 하며, 그것이 여성의 신앙적 미덕이라고 교육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제가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이유는 … 그래도 우리교회 목사님이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받고 쓰임 받는 목사님이니까 치유되시길 기도해드릴 뿐 제가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⁹ 라고 한 피해자 증언을 봐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문제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여성은 유혹적이고, 남성보다 본능적이며 악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여성상이다. 창조설화에서부터 하와는 뱀에게 유혹을 당해서 아담까지 타락시키게 만든 원인으로 투영되어서 비추어졌다. 사마리아 여인이나 막달라 마리아도 성서에서는 유혹적이고 부정적이고 죄가 많은 여성으로 해석되어 왔다.¹⁰ 실제로, J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신도를(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된 음성파일을 공개하였다) 일부러 그 목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녹음기까지 준비한 신천지 교인이라고까지 공격하는 일이 있었다. 이러한 여성상과 성적 정체성은 설교와 같은 교육적 계기들을 통해서 여성들에게 전달되고 주입될 뿐 아니라, 성폭행을 저지르는 순간에도 목회자들을 ‘가해자’로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9. 온라인카페 ‘전병욱 목사 진실을 공개합니다’ 편집팀, 『숨바꼭질: 스타목사 전병욱 목사의 불편한 진실』, 대장간, 2014, 56p.

10. 올리케 아이힐러, 『깨어진 침묵: 성폭력에 대한 여성신학적 응답』, 김상임 옮김, 여성신학사, 2001, 146p.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서는 많은 경우 여성의 종속과 순종을 강요하기 위해 읽혀 왔다. 성서적 인간이해가 남성의 경험이나 관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성서의 주요 이야기들을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은 남성들이고, 여성들이 등장한다고 해도 남성의 관점에서 읽혀진 여성이야기가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구약성서의 여성들은 ‘여성은 남성보다 못하다.’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이다’ 혹은 ‘여성은 자손을 낳기 위한 성적 도구이다’ 등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한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 바로 왕의 아내로 삼게 하는 이야기(창 12장), 롯이 소돔 시민들로부터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뢰배에게 자기 딸을 겁탈하도록 내어 놓은 이야기(창 19장), 레위인의 첩이야기(남편으로부터 방치되어 베냐민 사람들에게 겁탈당하고 문밖에서 비참하게 죽는다, 사 19장), 혹은 입다가 전쟁에서 돌아와 처음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고서 그 서원대로 딸의 목숨을 앗아가게 되는 이야기 등등 여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조차 존중되지 않은 이야기가 성서에 등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서는 현실에 맞게 여성을 억압하고 침묵시키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또 재사용된다. 많은 경우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성서를 읽으면서 더 좌절하거나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¹¹

여성의 성폭력 경험에서 문제시되는 신학적 메시지 중에는 기독교 전통 속에서 오랫동안 내면화되어 온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들 수가 있다. 기독교 교육 속에 익숙해있던 여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나 남편, 혹은 남성 목회자와 더 쉽게 동일시하는 경향이 많다.¹² 따라서 성폭력 상황에서도 여성은 하나님이 남편이나 남성 목회자의 편에 서서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하신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남성 이미지는 피해자 여성들에게 묘한 죄의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성폭력 피해를 받은 일도 자신이 신앙이 부족하거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으로 이해한다.¹³ 하나님이 남성이라는 것과 남성 목회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다고 하는 생각은 목회자의 성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11. 김규식, 『여성 성폭력과 기독교 자원의 순기능을 위한 연구』 64p.

12. 정희성, 『여성과 목회상담』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119p.

13. 김규식, 『여성 성폭력과 기독교 자원의 순기능을 위한 연구』 68p.

이번에 기소된 목회자의 경우에서도, 피해자인 20대 여성은 “그 동안 목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게끔 훈련을 받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목사님이 대신한다고 믿었다(보이는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믿고 섬겼다)”¹⁴라고 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현실을 살펴볼 때, 순종적 여신도들에게 목회자는 신을 대리할 수 있는 절대적 남성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자이고 그것에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소를 하고, 벌을 받게 하는 것)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든다.



4. 성적 피해를 정의내리는 방식과 문제점

남성의 여성에 대한 범죄와 폭력은 역사적으로 비교적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지만 이러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광범위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아무리 현상적으로 여성 범죄가 행해지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것을 심각하게 인지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대생들은 술 소비가 많아지면 성폭력 피해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과 남자 친구가 성관계를 목적으로 술을 먹게 하는 경우 강간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¹⁵ 술을 마시건 강간사건이 발생하건, 그것은 가해자의 책임이다. 그러나 정작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여성들이다. 그리고 여성들 또한 피해자를 비난하는 시선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 여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그렇게 관습적으로 인식하고 교육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강간이나 구타 피해자의 경우에도 가해자인 남성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남성을 유혹했을 것이다, 야하게 꾸며서 그럴 것이다, 혹은 ‘맞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 여성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사람들이 많다. 아내가 남편에게 구타를 당했을 때 그 남성이 경찰에서 ‘아

14. <오마이뉴스>, 2016. 8. 29.

15. Schwartz and Pitts, 1995, 조앤 벨크넵, 『여성 범죄론 : 젠더, 범죄와 형사사법』 284p에서 재인용

내가 집에 없었기 때문에' 혹은 '밥을 제 때에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말하면 경찰들조차도 아내에게 "왜 집에 없었느냐?" 혹은 "왜 밥을 해주지 않았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 또한 성폭력을 여성이 피해를 당한 '성범죄'로 보느냐 혹은 보호해야 할 부녀자의 정조가 침해당한 사건으로 보느냐라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규명하기도 한다.¹⁶ 모든 성적 피해나 범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시각에서 피해자를 피해자로 규명하느냐의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레위인의 첩(사사기 17~21장) 이야기도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관점이 도출된다. 레위인의 입장에서 '소유물'인 그의 첩이 더럽힘을 당했다고 보면서 그의 분노에 초점을 맞추든지 혹은 그 때 왕이 없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본다면 두 관점 모두 레위인의 첩이었던 '여성'이 폭력과 살인을 당했다고 하는 시선을 가리게 된다. 교회에서는 흔히 이 사건은 한 여성이 남성들에 의해 무참히 윤간당하고 살해되었다고 기억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어쩔 수 없는 죄악들로, 즉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죄로서만 기억되는 경우가 많다.

'강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범죄로, 그것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드러나게 인식이 된 역사가 생각보다 길지 않다. 고대 역사에서도 '강간'의 개념은 있었지만 많은 경우 여성이 남성(아버지 혹은 남편의) 소유물로 전제된 상태에서 이해되었다. 심지어 결혼을 위해 자신의 소유물로 삼기 위해 여성을 강간하기도 했다.¹⁷ 18세기까지도 강간을 당한 여성은 '피해자'로 여겨지기보다는 여자로서의 존엄성이 훼손당한 사람으로 보았다. 따라서 강간당한 여성이 피해자로 규명되기보다는 그 여성의 남편이나 아버지가 자신들의 재산이나 소유물이기에 그 가치가 손실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재판을 하지 않는 한 강간은 유죄로 판결되기 어려웠다. 역설적이게도 이렇듯 여성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시선에서 여성들을 바라보면서 파악하는 제도나 법 이해 등이 '강간'을 더 방치시키고 확대시킨 것이다.

16. 한국여성민우회 엮음 『여성주의 학교 '간다': 페미니즘, 경계에서 세상을 말하다』 지성사, 2008. 67p.

17. 조앤 벨크넵 『여성 범죄론: 젠더, 범죄와 형사사법』 윤옥경 옮김, 박학사, 209. 303p.

교회 내 성폭력의 문제 또한 피해자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게 문제의 원인을 돌리려는 경향이 있다. 가장 많이 보여준 사례는 성적 피해를 받고 난 후 그 피해를 폭로하려고 시도했을 때 여성 당사자가 매장되거나 사회에서 질타를 받게 되는 경우이다. 신학교에서도 남자교수가 성폭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여성이 먼저 유혹한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추측들이 난무했고, 평소에 조신하고 정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피해자인 '여성'의 관점을 주로 해서 바라보지 않는다면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남성 목회자들이나 남성 교수들에 의해 평신도이거나 학생인 약자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기독교가 표방하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귀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신앙에 위배된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이러한 신앙 위배적 사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약자와 피해자의 편을 들지 않는다.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남성의 입장에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성 목회자들에 의해 유지되는 교회 운영을 중지하고 싶지 않아서 폭력과 불신앙을 정당화한다. 힘을 가진 이의 시각에서 보느냐 힘을 가지지 않은 이의 시각에서 보느냐가 그 범죄를 규명하는 큰 차이점을 만드는 것이다.



5. 마치며 - 피해자 여성에 대한 인식과 기독교 여성의 과제

이렇듯이 범죄를 누구의 시각에서 바라보느냐,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이해하느냐 등등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범죄를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로 그와 유사한 범죄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 사건을 통해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공감'하는, '나도 그렇게 죽을 수 있었다'고 느끼는 여성들의 공포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하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범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가 누구인가, 그 범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범죄자체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더 긴박한 문제이다. 대학교수가 성폭행 사건으로 고소가 되었다 해도 그 여학생이 먼저 교수에게 꼬리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부터 먼저 하는 사회, 남성 목회자가 말도 안되는 성폭력을 행해도 그 목회자가 설교를 잘 하고 목회자로서 능력이 있으면 한번쯤 눈감아줘야 한다는 이유로 구조적 개혁을 하려 하지 않는 교회. 이러한 한국사회와 한국 교회의 잘못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여성혐오’의 범죄는 한국사회와 한국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여성의 입장에서 사건을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이해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인식, 여성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비난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 한국 교회 내에서도 성폭행이라고 하는 부정의함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목회자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평신도 피해자 여성을 비난하고 범죄시 하는 관행과 의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교회 내에서도 성폭력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할 제도적 장치가 생겨나야 한다. 감리교신학대학이 총여학생회에서 발족시킨 성폭력예방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유 상담프로그램 등을 개설했다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학생들 스스로가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을 공동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감리회 전국여교역자회에서도 ‘양성평등 7정책’¹⁸을 제안했다.

강남역 사건을 해석하고 문제의식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한국 사회에서 ‘젠더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를 질문하고, 파헤치고 되물으려 하는 일종의 ‘젠더 문기’가 가능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사건 이후 여성혐오란 어떤 것인지, 여성을 특정한 용어로 부르는 것이 어떻게 여성을 비하하는 것인지 섬세하게 묻기 시작했다. <뉴스앤조이> 11월 30일자, 김선희 기독교여성상담소장을 인터뷰한 기사에는 ‘남성목회자 바로 알기 십계명’이라고 하는 항목을 만들어 여신도들을 의식화시키는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실렸다. 그 내용 가운데에는 ‘1. 목회자도 인간이다. 하나님처럼 믿지 말라. 2. 목회자에게도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 목석이라 생각하지 마라’ 등이 있다.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7. 목회자는 개인보다 교회를 더 중요시한다. 나만을 총애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8. 목회자도 명예와 권위를 추구한다. 피해를 입은 경우 끝까지 싸워라. 10. 목회자는 교회와 사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다. 참된 하나님의 종이 목회하는 교회를 찾아라.’ 등의 내용도 있다. 이렇듯이 여신도들에게 교회 내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알도록 하는 것이 확산되어야 한다.

교회 밖에서는 성평등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런 운동도 하는 여성들도 교회에 가면 교회의 권위에 따라 남성목회자들에게 순종적인 여신도가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기도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렇게 이중생활 아닌 이중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교회가 여성들에게 암묵적으로 제시하는 여성상이 있기 때문이다. 질문하고 문제제기하는 여성들은 신앙심 좋은 여성이 아니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여성이 신앙심이 좋다고 하는 이분법이 존재한다. 한국교회 내에 있는 남성목회자에 대한 절대성과 권위, 그리고 여성신도들에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교육된 젠더 정체성, 성역할에 대한 문제제기는 다름 아닌 여성들에게서 시작되어야 한다. 여신도들에게 ‘여성학’적 문제의식을 신앙교육과 무리 없이 만나게 할 수 있는 지도자들도 요구될 것이다. 큰 그림으로 보면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를 좀 더 상호적이고 대화적 관계로 만들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

글을 쓴 최순양은 이화여대 기독교학과와 감신대 대학원(M.Div) 석사과정을 마치고 미국 드류대(Drew)에서 철학박사를 취득하였다. 2009년부터 이화여대, 감신대에서 강의했으며, 현재 이화여대 초빙교수, 평화를 만드는 교회 감리교회 부목사로 일하고 있다.

논문으로 「스피박의 서발턴(하위주체)의 관점에서 바라 본 아시아 여성신학과 민중신학적 담론에 대한 문제제기」, 「한국 개신교의 가족강화 신앙교육과 여성」이 있고, 공저로는 『한국신학의 선구자들』(너의 오월, 2014), 『21세기 세계 여성신학의 동향』(동연, 2014) 등이 있다.

18. 모성보호 정책 연구 및 수립, 양성평등 교육 시행, 본부 여성국 및 총회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 분석평가 도입, 성폭력 문제 전담기구 설치, 공동목회와 부부목사 활성화 등의 내용이 제안되었다.

특집 2

재난과 기후변화 대책 속에서 여성들은 안전한가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경주 지진, 그날의 기억

지난 9월 12일 월요일 오후 7시 44분, 그리고 연이어 8시 32분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동안 경험하지 못한 사건에 직면하였다. 바로 ‘지진’이었다. 그날 경기도에 거주하는 필자에게도 특히 두 번째 충격(본진, 규모 5.8)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러나 지진이 발생된 경주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충격은 얼마나 컸을지는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필자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지진이 있었던 그 날, 그 시간으로 돌아가 보고자 한다. 그리고 함께 그때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사람들이 그날 첫 진동(전진, 前震)을 느꼈을 때, 그것(지진)이라고 생각했을까? 솔직히 필자는 첫 지진은 느끼지 못했다. 아마도 필자가 살고 있는 경기도가 경주와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 다음 지진(본진)에는 온전히 몸이 반응하였다. “지진인가? 설마... 설마...” 그 짧은 시간에 든 생각은 우선 두 아이와 아내와 함께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무엇이든 다름 아닌 ‘대피’였다. 급히 중요한 물건만 챙겨 밖으로 “나갑시다”라는 필자의 말에 아내는 “꼭 나가야 하

나요?”라고 반문하였다. 필자는 그 말에 그 어떤 행동도 하지 못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혼란스러운 감정은 필자만 느낀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그 이전에 단 한번도 지진을 심각하게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마침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와 이들의 보호자(주로 여성)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매뉴얼을 만들고 있었던 터라 계획에 없었던 ‘지진’ 경험자 인터뷰를 급히 하게 되었다. 인터뷰는 미혼의 혼자 사는 여성, 어린아이와 노모를 돌보는 여성,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모두 가장 큰 규모의 본진 이후 속보를 통해 사상초유의 ‘지진’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고 두려움에 온몸을 떨었지만 어떤 행동(대피)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두 번째 충격(본진)이 온 후 이들의 아버지나 배우자가 외부에서 연락하여 “집밖으로 나와라”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대피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대피 과정에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했다고 한다. 물론 이 인터뷰의 내용이 모든 여성에게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러나 상당수의 여성들의 행동도 인터뷰에 응한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

여기서 필자는 남성의 행동이 여성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남성 역시 이번 지진에 대응하는 것이 여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남성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여성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대피’ 행동을 했을 것이라 본다. 그리고 고층에서 대피할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했을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이라 본다. 남성은 비상상황에서 대피하고 대응하는 교육이나 훈련, 관련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여성보다 더 많이 주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테면 남성의 대다수는 군대에 간다. 군대는 (전시를 대비한) 비상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 등을 기본으로 배운다. 그리고 제대 이후 8년간 예비군 훈련, 그리고 그 이후 만 40세까지 민방위 훈련 등 여러 훈련 기회를 가진다. 그리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 경제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 내 안전교육 등 전 생애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대비·대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관련 정보를 습득할 기회가 주어진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과연 어떻게?



2 재난의 영향은 여성과 남성이 다르다?

구글(google) 등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재난(disaster)’, ‘젠더(gender)’, ‘여성(women)’만 검색하더라도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의 답을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만큼 이들 키워드를 주제로 한 연구들이 특정 국가와 지역, 인종과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들 연구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다. 바로 “재난의 영향은 여성과 남성이 다르다(Disasters affect women and men differently)”는 것이다.

그럼 과연 어떻게 다르냐와 관련하여 몇 가지 연구사례를 소개하겠다. 이케다(Ikeda)¹는 1991년 방글라데시의 사이클론(cyclone)² 피해자를 조사하는데, 사망자 총14만 명 중 90%가 여성이라고 하였다. UNICEF UK(2008)³는 2007년 우간다에 있었던 홍수 피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사망자 수를 약 20만 명이라고 하였고 이들 중 80%가 여성과 어린이라고 하였다. 뉴메이어(Neumayer), 에릭(Eric) 그리고 플럼퍼(Plümper)⁴는 1981년부터 2002년까지 141개국에서 발생된 자연재난을 분석하였는데, 이들 재난이 남성보다는 여성의 수명을 더 단축시키고, 재난의 강도가 클수록 여성의 수명은 더 단축된다고 하였다. 그만큼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이 여성이 남성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왜 재난의 영향은 여성과 남성이 다른 것일까? 왜 여성은 재난에 더 취약한가? 많은 전문가들은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의 참여와 접근의 기회가 남성과 균등(equal)하지 않은 것에 주목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 전반의 성별 간 차이(격차)를 보통 ‘젠더 불평등(gender inequality)’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젠더 불평등이 인간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는 ‘재난’과 대체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여성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모유수유를 해야 하기에 특별한 도움과 지지가

필요하다. 여성은 어린 자녀와 노약자를 돌보고 챙겨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생계를 지원해야 하는 등 남성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데 그 불리함이 재난에서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취약성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여성은 재난에 대한 대비와 대응에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고 관련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재난으로부터의 위협과 위험에 더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난의 불평등은 같은 여성 내에서도 존재한다. 특히, 미혼 여성, 여성 가구주, 장애 여성, 노인 여성, 임산부 그리고 소녀의 재난 취약성은 더 심각하다(UN Women, 2015).⁵



3. 우리나라의 재난 속 젠더 불평등 실태

과거 대구지하철 참사를 비롯한 최근 세월호 참사를 보더라도, 여성의 사망자 수는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확인되는 재난에서의 젠더 불평등이 우리나라에도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작년 여성가족부의 「재난안전관리정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⁶ 연구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본다. 이 연구를 위해 전국 성인 2,025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여성과 남성의 인식과 태도, 교육훈련 경험 및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우리나라에서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느끼며 이로 인한 불안감을 더 많이 호소한다. 그리고 현재 본인들의 재난안전 관련 지식과 정보 등 재난 관련 역량으로 미래에 닥쳐올지 모를 재난을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응답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렇지만, 여성은 재난 교육·훈련을 통해 재난 역량을 키우게 된다면 현재보다 더 재난을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기대)의 응답은 남성보다 더 많았다. 이는 여성의 재난 취약성이 전적으로 여성이 지닌 생물학

1. Ikeda K. (1995) Gender Differences in Human Loss and Vulnerability in Natural Disasters: A Case Study from Bangladesh. *Indian Journal of Gender Studies* September, 2(2). pp. 171-193.
 2. 인도양이나 남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을 말함.
 3. UNICEF UK (2008). *Our Climate, Our Children, Our Responsibility: The Implications of Climate Change for the World's Children*.
 4. Neumayer, Eric and Plümper, Thomas (2007) The Gendered Nature of Natural Disasters: the Impact of Catastrophic Events on the Gender Gap in Life Expectancy, 1981-2002.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97 (3). pp. 551-566.

5. UN Women. (2015, May 19). *New Gender Alert highlights the need to ensure leadership roles for women in post-earthquake Nepal*. Retrieved from News: *New Gender Alert highlights the need to ensure leadership roles for women in post-earthquake Nepal* - See more at: <http://www.unwomen.org/en/news/stories/2015/5/new-gender-alert-on-nepal#sthash.sHsUwIcP.dpuf>
 6. 김동식장미혜이미정김영택김동순안태윤이선행 「재난안전관리정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 2015.

적·신체적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여성의 재난 관련 정보와 자원의 접근 취약성과도 상당부분 관련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조사에서도 여성은 남성보다 재난 교육·훈련 필요성을 더 많이 인지하며 참여 의향도 더 높았다.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재난 대비 및 대응 능력도 여성이 남성보다 크게 낮았는데, 이 또한 여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재난 교육·훈련 경험 및 관련 정보의 부족과 연관성이 높았다. 이렇게 성별 간에 불평등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성은 남성보다 관련 교육·훈련 및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관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녀양육 등 가족 돌봄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을 덜 활용했기 때문이다.

여성이 갖고 있는 재난 관련 교육·훈련 및 정보 접근의 취약성은 제공받은 정보의 질(quality)의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성별 간의 정보 습득 경로가 확연히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남성은 군대나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을 제외 하더라도 직장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안전체험관 및 안전교육기관 등 주로 오프라인 상에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그러나 여성은 인터넷 교육이 거의 주된 경로여서 대부분 온라인 상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 온라인 교육이 오프라인 교육보다 질이 낮다고는 할 수 없으나, 재난의 불예측성과 그 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충격성, 그리고 재난의 복합성(건물 붕괴로 시작한 재난은 화재 등 다른 유형의 재난을 야기하고, 충격이 증폭될 수 있음) 등을 고려할 때, 오프라인상의 체험형 교육·훈련이 더 내실이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여성이 온라인 교육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은 자녀 양육, 노부모 돌봄 등 전통적 성역할로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것이 온라인 교육 이외 선택 옵션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이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이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재난 관련 교육·훈련 참여 및 정보 습득을 위해 선호하는 경로를 물어 보았는데, 남성은 현재 상황에서 좀 더 나아가 안전체험관 및 교육기관을 확대하면 좋겠다고 하였지만, 여성은 주민센터, 문화센터 및 사회복지관 등에서 재난 교육·훈련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고 하였다. 즉, 여성은 지역사회 기반의 자원들을 활용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는 결국 여성 본인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접근 취약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여성 스스로 제안

한 것이라 본다.

한편, 여성 내에서도 재난 교육·훈련 및 관련 정보의 접근에 불평등도 존재한다. 그 불평등의 대상은 임신부, 여성 노인, 여성 장애인 등과 같이 사회적 약자이다. 실제 조사에서 이들 사회적 약자는 재난으로부터 대비와 대응 능력이 같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들이 지닌 신체적 취약성으로 재난 교육·훈련 경험도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회적 약자인 동시에 재난약자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돌보는 보호자의 재난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들을 돌보는 대상은 주로 여성이다. 여성은 재난에 대한 지식과 대비 및 대응 능력 등 재난역량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앞서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얘기했는데, 문제는 가정에 재난약자가 있고 이들을 돌보는 여성은 가정에 재난약자가 없는 여성에 비해 오히려 재난역량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가장 재난역량을 높일 필요한 이들의 재난역량은 가장 아래(위험) 수준에 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재난 대응 현 주소이다.



4. 우리나라 재난안전정책이 나아갈 방향

우리나라의 재난안전정책에서 젠더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관련 법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난안전과 관련된 법령들이 많은데, 가장 상위법이라면 당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 것이다. 이 법령은 우리나라의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근간이 되는 기본법으로서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법령에서 젠더와 재난 취약자들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관련 정책이 다르게 추진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법령을 비롯한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해 6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첫째는 재난취약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할 필요성 여부, 둘째는 재난안전 관련 조사나 보고에 관한 규정이 성별을 분리하여 생산·활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셋째는 재난안전 관련 정책의사결정 규정에 성별 균형 참여 고려 여부, 넷째는 재난안전 관련 교육훈련에 재난취약자 고려 여부, 다섯째는 재난피해 대응·복구 과정에서 재난취약자 고려 여부, 마지막 여섯

째는 전통적인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규정 여부가 그것이었다.

분석 결과, 우선 재난취약자에 대한 개념정의가 없었다. 이것은 이 법령이 재난취약자의 안전관리 지원에는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본다. 이런 이유로 재난안전 관련 자료 수집이나 교육훈련, 정책의사결정 과정, 피해 대응·복구 등에 관한 조항들에서 재난취약자를 고려하는 내용은 없었다. 앞의 실태조사에 근거할 때, 그리고 세계적인 재난상황에서 나타나는 젠더 문제를 볼 때 재난취약자 및 이들을 동반한 자(주로 여성)는 재난취약자로서 이들의 법적 지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재난취약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재난에는 어느 누구나 취약할 수 있겠지만, 특히나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이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재난안전의 가장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취약자의 정의와 개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 방재백서를 비롯한 각종 문헌에서 재난취약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여기서의 재난취약자란 '재난 시에 일련의 행동에 함여 있어 장애가 있는 자'라고 정의한다. 여기서의 장애는 '스스로에게 위험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없거나 알아차리기 어려운 자', '스스로에게 위험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알아차려도 구조자에게 전할 수 없거나 전하기가 어려운 자', '위험을 알리는 정보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가 어려운 자', '위험을 알리는 정보를 받아도 그것에 대해 행동을 할 수 없거나 행동하기가 어려운 자'를 포함한다. 또한 이런 장애에 노출된 이들은 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그리고 외국인 등이 속한다고 하였다.⁷

다음으로 성인지적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재난안전 관련 성별분리통계의 생산과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재난안전 관련 법령상 조사·통계 현황에 관련된 조항들에서 성별분리통계 생산에 대한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일

본 내각부 남녀공동참획국(男女共同参劃局)은 「남녀공동참여 시점에서의 방재·복구 대응지침 해설 사례집」에서 각 단계별 대응방법 중 하나로 복구단계에서 성별통계의 정비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남녀가 처한 상황을 좀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재난 복구 단계에서 세대주를 대상으로 피해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하곤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럴 경우 여성의 의견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각 세대구성원에 대한 파악을 하도록 조사방법상에 이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성별통계를 구축하기 위한 관련 법령이 없는 것은 아니다.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서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 통계)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미 1995년 제4차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도 '여성 관련 정책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해 성별분리 자료와 정보를 생성하고 배포할 것'을 적극적 전략으로 채택하기도 하였다.

또한 재난에서의 젠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의사결정 과정에서 성별이 균형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여성의 대표성 제고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제6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에 여성가족부 장관, 제9조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는 여성가족부 차관, 제12조의 3항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 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외 재난안전 관련 법령에서는 이러한 조항을 찾아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련 조항이 있지만, 실제 위촉직 위원들은 특정 성별(남성)이 10분의 6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의 경우 '남녀공동참여 시점에서의 방재·복구 대응 지침'을 통해 재난 관련 구급·

7. 네모트 마사즈구, 아리가 에리, 『재난 발생시 재난취약자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 체계 강화방안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2015, 10(6): 67~87pp.

복구에 있어 여성의 의사결정에서의 참여율이 낮아 여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위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 정책은 성차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급한 미션은 앞서 얘기한 재난취약자에 대한 개념정의 등 법적 지위 강화, 그리고 성별분리 통계자료의 생성·구축, 그리고 여성의 정책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 보장 등이라 본다. 이외에도 여러 문제들도 있지만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재난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매뉴얼 및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안전교육 매뉴얼이 수천 개가 넘는다. 그런데 여성과 재난약자를 동반한 자를 위한 안전교육 매뉴얼은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적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가정 내 전기와 가스 안전 영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생활 영역을 여전히 ‘가정(집안)’으로만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재난안전 소관부처인 국민안전처가 재난 시의 행동요령으로 개발한 매뉴얼, 즉 ‘국민행동요령’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 명칭이 ‘시민공공안전응급지침’이다.

이 지침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장에 ‘가정응급계획 작성하기’가 들어가 있다. 이는 가족구성원들이 재난 이전부터 재난 당시, 그리고 재난 이후와 같이 재난 단계별로 어떻게 예방하고 대비할 것인지 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 어떤 준비와 행동을 해야 하는지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가정의 상황(재난취약자 동거 여부 및 상태 등 포함)을 고려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다. 특히 이 지침에는 재난 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특수그룹’을 정의하고 있는데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과 임산부 등 재난약자를 여기에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임산부와 그의 자녀, 노인과 1인 가구 여성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매뉴얼이 이미 개발되어 배포되고 있다. 미국 역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 시의 응급 및 대처방법을 소개한 매뉴얼들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앞서 우리나라의 안전교육 매뉴얼이 수천 개가 된다고 하였다. 이들 매뉴얼의 기본서가 있는데 바로 국민안전처가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 ‘국민행동요령’이다. 여기서는 재난 유형별로 재난 시의 대비와 대응, 복구 단계에서의 행동지침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그 내용을 젠더 관점에서 살펴보면, 일반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재난취약자 관련 내용은 아주 일부 포함되긴 하였지만, 행동요령 측면보다는 배려의 대상이라는 선언적 언급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대상도 어린이나 노인으로 제한되어 있다.

지금까지 필자는 젠더 불평등이 우리가 예측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재난의 영역에서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다. 젠더는 여성만을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다. 여성과 남성을 모두 포괄한다. 같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성 중립적으로 추진했을 때와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수요를 고려하여 추진했을 때의 성과는 분명 다르다. 이는 수많은 젠더 연구들에서 이를 증명하고 있다. 특히 한정된 자원의 정책에 대해서는 젠더 접근(gender approach)은 기본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법령, 계획, 사업 등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불평등의 요인을 명확히 분석·평가하여, 이에 근거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곧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는 길이기도 하다.

최근 세계적 의학저널인 Lancet에 게재된 “Health and climate change: policy responses to protect public health”의 연구진들(Watts et al., 2015)⁸은 여성과 소녀는 남성과 소년보다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역할로 인해 동일한 장소(공간)에 있더라도 기후변화에 따른 상대적 건강위험도는 더 높을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성평등(gender equality)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전 세계적 재난상황을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오늘날의 재난은 과거와 다르며 기후변화와 연관성도 높다. UN WOMEN의 「Why is climate change a gender issue?」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의 68%는 기후변화와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⁹ 기후변화의 영향은 우리의 삶에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재난의 위험도 점점 커져 가고 있다. 여성과 소녀가 재난으로부터의 위험이 높은 만큼 이제부터라도 재난안전관리

8. Watts N, Adger WN, Agnolucci P, et al. (2015). Health and climate change: policy responses to protect public health. Lancet, 386(19996): pp.1861-1914.

9. <http://www.uncclearn.org/sites/default/files/inventory/unwomen704.pdf>, UN WOMEN. Why is climate change a gender issue?

정책 전반에 대한 성별 수요를 면밀히 분석·평가하여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수요를 반영한 젠더적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것이라 본다.

.....
글을 쓴 김동식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2008년 8월에 보건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같은 해 동 대학 보건환경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 200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다. 주된 관심은 모성건강, 섹슈얼리티와 재생산건강, 젠더와 건강불평등, 환경과 여성건강 등의 분야이다.

특집 3

여성혐오 시대, 여성 정치 어디까지 왔나

비례대표 초선 국회의원 3인 인터뷰

인터뷰어 :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회 위원장

의회정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국회의원이 된 여성 3인을 만났다. 정치개혁, 노동, 안전 등 활동 분야는 다르지만 초선이자 비례대표이고 여성이라는 3가지 공통점을 가진 그들에게 20대 국회 4년의 계획과 포부를 시작으로 강남역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한국사회 ‘여성혐오’에 대한 시각과 대안을 물었다. ‘보편주의’로 가장한 남성중심의 정치 현장에서 ‘여성’과 ‘국민’을 넘나들며 치우침이 없는 좋은 의원이길 바라는 소박하고 진실된 모습이 인상으로 남는다. 2017년 현재, 20대 국회를 이끄는 51명 여성의원 모두가 힘없는 자들의 고된 현실이 책임이 되고, 책임이 성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정치의 새 얼굴이 되기를 소망한다.



여성정치 세력화 위한 정당개혁 추진할 터

권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20대 국회 비례대표 초선의원.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등을 지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 늘 받으시는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NGO 활동하시다가 국회에 들어오셨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 정치세력화는 여성운동의 중요한 주제잖아요? 막상 제가 주자로 똬다는 생각은 깊게 하지 않았습시다. 제가 들어올 당시 민주당은 분당 후 지지도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바깥에서 정당에 대한, 특히 야당의 변화와 야당의 집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시다. 여성의 정치세력화라는 고민도 있었지만, 이명박·박근혜 두 보수정권 하에서 나라가 너무 망가지고, 특히 여성의제는 정권의 성격과 굉장히 관계가 깊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몸으로 느끼고 나니 다음 정권은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야당의 체질 변화와 정치문화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 논의 과정 중에 먼저 정당개혁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랐습시다. 정당개혁의 핵심은 당내 민주화입니다. 당원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여성을 비롯한 정치 신인들을 발굴하고,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기득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 논의는 여성의 정치세력화 논의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보통 여성 의원들은 대부분 당에서 낙점이 되어 국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그룹으로 함께 그룹핑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비례 경선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다른 형식이었습니다. 당을 변화시키는 '뉴 파티' 위원장을 하면서 당의 변화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당에 들어와서 제가 내걸었던 것은, 당원들이 주인이 되고 여성 유권자가 편하게 생각하는, 언제나 올 수 있는 정당, 여성센터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당을 알리고, 정치를 이해하고, 여성의원들의 활동을 전시하고, 여성들의 민원창구도 상시로 개설하는, 보육시설도 있는 센터를 만들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내로 보면 여성 친화적인 정당, 여성에 대한 의제를 정확하게 여성의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해서 당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 문제를 다루는, 고용뿐 아니라 경력단절 임금격차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여성 경제세력화위원회를 여성가족부 말고 정부부처 내에 만드는 제안을 두 번째로 했습니다. 이것을 제안한 이유는 민주당이 그 때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토론회도 하고 여성의 경제세력화에 걸림돌이 무

엇인가를 논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주요 내용인데, 민주당의 경제민주화에는 그 내용이 빠져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고 당 문화를 더 소통적이고 평등하게 바꾸는 구상을 갖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당에 들어와서 보니까 지금은 정말 참담한 상황입니다.

- 결국 두 가지 중요한 주제, 정치세력화와 경제세력화를 고민하고 계시는데, 조금 방향을 돌려서 지금 여협 관련한 현상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의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혐오는 제가 여성단체연합 대표를 할 때 제일 먼저 주요 의제로 제안한 당사자였습니다. 여연 내부에서 주요 의제로 삼자고 했을 때 활동가들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 때가 2013년 남성연대 성제기씨가 죽었을 때였습니다. 그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확산되지 않아서 여성혐오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였습니다.

- 활동가들은 어떤 맥락에서 그랬던 것일까요?

'이것을 정책화하거나 의제화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고민을 했고, 제가 여성연합회를 그만두고 난 뒤에 1년 동안 공부도 많이 하고 세미나, 토론회도 했습니다. 여성혐오 문제는 지역차별, 외국인 근로자, 이주 노동자에 대한 혐오까지 연결될 수 있으니 그것까지 다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성 관련 문제가 주요 의제로 되기는 어려운데, 강남역 사건이 터지면서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당 남성의원들 중에서도 "그것은 여성혐오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라고 하였고, 여성의원들도 "그것은 혐오라고 말할 수 없다, 혐오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 내에서도 강남역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라고 규정하는 것을 반대했었으니까요.

-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고, 뭘 피하기 위험일까요?

"여자들이 교육도 많이 받고 사회진출도 활발하다. 월급봉투도 내 맘대로 못하

고 마누라한테 꼭 쥐어 사는 상황에 무슨 혐오냐” 하는 식입니다. 당 지도부나 정책하는 사람들에게 여성혐오를 당의 주요한 의제로 해달라고 했는데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 전략기획위원회 이원욱 의원에게 젊은 여성들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촛불을 보라. 많은 수가 여성이다. 페미당당 등 젊은 여성들이 제일 열심히 한다. 이 그룹의 역동성과 주장을 당에서 경청하고 의제화하지 않으면 대선에서 진다”고 말하면서 말이지요. 여성혐오 문제가 일반 보통의 기득권 세력이 알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해 왔고, 그것에 천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 답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온 사람들의 구질서에 대한 비판과 변화의 몸부림들이 프랑스의 68혁명처럼 열매 맺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저는 우리나라는 기득권 세력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너무 없어서 안 될 거라고 봤습니다. 기득권을 깨는 방향으로 조금씩 균열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사실은 여성혐오의 뿌리는 여성의 무권력 상태로 보여집니다. 무권력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정치의 장에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도권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경력단절 문제를 ‘의제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 관련 세미나도 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새일센터에서는 임금이 높은 일자리보다는 낮은 일자리를 교육시킵니다. 새일센터 자체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현재 중간층의 경력단절을 해소할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좋은 직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헤드헌터를 통해서 취업을 합니다. 이 부분을 고용노동부와 같이 해결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도는 이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상에 미묘한 맹점들이 있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와서 또 느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는 엄청 많은데 실효가 없는 이유가 여성과 남성의 임금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육아휴직을 받아오면 현명함과 이프들은 남편들을 학원에 보낸답니다. “네가 공부해서 승진하는 게 낫다. 나는

80만 원 받는데 네가 승진하면 나보다 더 많이 받으니까”라고 하면서 말이지요. 남녀임금격차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보육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따라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노동계 여성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돌봄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운영을 해달라고 해서 여성 임금차별 문제, 사회서비스 직종의 낮은 처우 문제, 경력단절 문제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환경노동위원회와 함께 해야 하는 일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 남녀임금격차 문제의 심각성이 강조되고 해결방안도 나와야 하는데 관련 입법들이 이번에는 통과가 될 수 있겠지요?

스웨덴은 어떻게 저출산을 극복했는가를 주한 스웨덴 대사에게서 듣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양성평등 얘기만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양성평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이지요. 처음부터 그 얘기만 하니 사람들이 다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떠 얘기만 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저출산 문제를 통합할 수 있는 기구가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정권에 상관없이 한 10년 정도 쏟아 부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다행스러운 점은 모두가 지금 기회를 놓치면 저출산 극복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 여성들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서라도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여성 문제가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라면 21대 국회를 염두에 두고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여성참여확대를 정치 의제화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국회에 와서 느낀 건데 우리나라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을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가 하는데 그냥 형식적이고, 중요한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하는 의원 중심 정당입니다. 당의 직책을 대부분 의원들이 맡고 있는데 굳이 원내가 맡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당원 중심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모두 비례대표나 지역구를 바라게 되

면 길이 너무 좁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구질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촛불이 당에도 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안 부는 것 같습니다.

- 말씀하신 과제들을 의원님께서 열심히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마지막으로 여성 단체나 여성 유권자들에게 여성 혐오 문제와 관련해서 당부, 혹은 방향제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여성혐오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의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의제 설정 수준이 현재 우리 사회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페미당당이나 여러 젊은 여성 그룹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70년대 주장했던 얘기를 그대로 다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격차, 채용과정에서 혼인 여부와 용모를 따지는 일,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정말 비극입니다. 여성 관련해서 하나도 발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젊은 그룹들은 기존의 질서나 시스템에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불신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그들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의 세력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답은 아직 찾지 못했지만, 유권자가 법안도 만들고, 요구하고 하는 흐름들이 있지 않을까. 더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여성정치 활성화를

이정미 정의당 의원

제20대 국회 비례대표 초선의원. 민주노동당 대변인, 정의당 부대표 등을 지냈고, 정의당 원내 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이다.

- 올 하반기 탄핵 국면으로 인해 가려지긴 했지만 강남역 살인사건부터 시작해서 여성혐오와 관련하여 심각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20대 국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여성혐오라는 단어가 요 근래에 사람들에게 회자되기는 하지만, 가부장 사회에서 일상화되어 있는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됐던 것에는 몇 가지 사회적인 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양극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미국의 대선에서도 백인노동자들이 분노의 대상을 사회 구조 속에서 찾기보다는 이민자, 흑인을 삼았듯이 거대한 권력구조에 저항하기에 힘이 없는 약자들 입장에서 표출되는 정치적 현상이라고 봅니다. 엄청난 청년실업률과 비정규직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해결의 방향을 잘 찾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가 답을 제대로 주지 못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쉽게 분노를 표출하고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떻게 보면 여성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손쉽게 마음껏 자기의 분노를 얘기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여성혐오에 대한 발언들이 걸리지 않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배경이 지금 시대의 여성혐오 문제를 강화하고 증폭시킨 배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혐오를 통해서 공격하는 사람도,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 모두 전체 사회 구조 속에서는 같은 피해자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공통의 지향을 가지기 어려운데, 이를 고착시키는 가부장제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 분노를 표출하는 대상 문제도 있지만, 여성들이 과거보다 힘을 가졌다는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남성들이 여자들에게 “더 이상 무엇을 원하느냐”고 반문하는 거죠.

내가 못 가졌는데 네가 갖는 게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 해도 참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착시 현상도 분명합니다.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고 하지만, 남녀 임금 격차도 엄청나고 유리천장도 여전합니다. 국회도 그렇고 여성장관도 그렇고 말입니다. 고위공직자들 안에 여성비율도 턱없이 낮은 상황이고, 사회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닌 자신의 실력으로 노력해서 쟁취한 것인데, 그것마저도 여성들이 너무 많이 누린다, 너무 많이 가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회, 혹은 정당차원에서 특별히 기울이고 있으신 노력이 있을까요?

저희가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폭력, 성폭력, 성희롱’ 이런 범 위까지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성혐오’라고 하는 개념까지 포함시켜서 이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회적인 논의를 벌여나가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법안을 냈습니다. 여성차별에 대한 사회적인 논쟁도 중요하지만,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성들이 많이 가진 것은 아니라고 환기시키면서 차별들을 개선해나가는 노력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차적으로는 최저임금법을 발의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강제해야 합니다. 보통 노동자들이 받는 평균임금의 60% 밑으로는 내려갈 수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는 그 윗선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논의를 해서 적어도 3년 후에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갈 수 있도록 여성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조금 올리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이나 성희롱은 위에서부터 썩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번 국정감사 때 여성가족부 내에서 있었던 성희롱 사건, 노동부 내에서 일어났던 일급 고위공직자의 성희롱, 성추행 사건을 폭로했습니다. 공직 사회 안에도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 없습니다. 노동부 사건 터졌을 때 너무 화가 나서 노동부장관에게 소리도 질렀는데 가해자 위주의 처벌이 되어야 하는데, 고위공직자는 직위 이동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부서 이동 시킨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노동부 안에 모든 사람한테 “제가 피해자인데 여기로 왔어” 라면서 사실을 공개하는 집단적 2차 가해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 법안에서 ‘여성혐오’가 아닌, ‘성혐오’로 표기를 하셨나요? 여성과 남성에 대한 혐오, 동성애자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사실 ‘양성평등’이란 표현도 쓰지 않고 ‘성평등’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 여성을 위해 일하는 여성의원이 거의 없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피해가고 싶은 주제이기도 하고, ‘나는 의원이지만 여성의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누군가 ‘왜 굳이 내가 여성이지만 꼭 여성 이슈를 대변해야 하나’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국회의원 중에 여성의원들의 대부분 비례대표로 들어오시고, 비례대표가 될 수 있던 것은 그동안 여성계의 요구로 비례대표 50%가 쟁취됐고, 여성들의 노력의 성과로 의원이 된 것인데, 그렇다면 그 노력의 성과 위에서 있기에 더 나은 여성의 삶을 위해 의정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 빛을 갠는 의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정의당의 비례대표지만, 한편에서는 여성들을 대변해서 국회에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이슈는 굉장히 민감한데, 별로 돈 안 되고 표도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가부장적인 사회 안에서 여성 이슈를 중점적인 의정활동으로 삼을 때 이를 지지하기보다는 비토를 놓는 세력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관련 이슈에 바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 주류층들이긴 하지만 바로 호응을 보내지 않으면서 나를 대변해주는가 아닌 가지켜보는 여성 유권자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발전시키려면 정치에 대해서 마음을 주고 있지 않은 정치에 대해서 한 발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는 여성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정치의 주인으로 합류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여성 이슈가 당장은 해결되기 어렵더라도 의회 안에서 이슈로 삼아서 여성들을 정치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여성 유권자가 남성보다 39만 명 정도 더 많습니다. 여성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치활동을 해서 지지를 얻고 그 힘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정치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을 텐데 그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이 국회가 아닌가 합니다. 여성 의원들과 여성유권자를 잇는 계획이나 의회 권력을 여성 유권자들과 나누기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정의당 성평등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비해서 여성들의 커뮤니티들이 점차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대 청년 여성들은 굉장히 개별화되어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 외동딸로 존중받으면서 자라왔는데, 사회로 한 발 내딛는 순간 대학을 들어간 순간부터 직장을 구하면서 차별과 혐오를 당합니다. 분자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당 내 청년 여성들과의 모임, 미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임을 해봤는데 응어리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사회에 대한 불신도 너무 큼니다. 이것을 사회로 정치로 수렴해나갈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년 초부터는 지역구 선정을 하게 됩니다. 지역의 많은 여성들, 그 안에서 겪고 있는 여성들의 어려움, 고민들 많이 듣고 해결해보려고 합니다.

- 기대가 많이 됩니다. 방금 내년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국회 들어오시면서 어떤 비전으로 또 여성 문제를 풀어 가실지 4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 부조리한 세상이 한 번에 확 바뀌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큰 이슈나 아젠다에 도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 하나라도 제대로 해결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는 게 제 각오였습니다. 이번에 애슬리를 비롯한 이랜드 전체 26개 외식업체를 다 뒤져서 360개 매장을 근로감독을 했습니다. 결국 4만 3천 명 청년 알바들 돈 84억 원을 떼어먹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임금 착취를 통해 영업이익을 냈던 것입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이랜드는 확실하게 뜯어 고쳐주려고 합니다. 이래야 다른 대기업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여기고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왜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이 만들어졌을까' 하는 문제의식입니다. 원래 대통령제는 굉장히 견제 받는 권력입니다. 삼권분립에 기초하기 때문에 입법부의 강력한 견제 속에서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 견제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입법부 자체가 너무 취약한 이유는 입법부의 권위가 실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사실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이 국회의원들이지 않습니까. 이 이유를 가만히 살펴봤더니,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1등이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제도입니다. 지금 선거제도는 천만 표 이상이 선거 때마다 사표가 됩니다. 민의가 국회 안

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 그래야 대한민국 정치가 희망과 가능성이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더 확대하고, 그 안에서 지지받는 정당이 그 만큼 의석을 가져 정당정치가 제대로 꽃피울 수 있도록 만들고 끝내야 하지 않을까요.

- 그렇게 되면 많은 여성들이 국회로 들어오겠지요.

그렇습니다. 19대 때 막판에 비례대표 확대 문제 가지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지 않았습니까. 6석이나 말입니다. 저는 왜 다른 당의 여성의원님들은 저럴 때 가만히 있나 답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의원이 아니어서 속이 터졌는데, 이번에 20대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매듭을 짓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의회 권력을 남녀가 반반 나누어 가질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가능할 것이고 말씀하신 민의의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선거는 더욱 바쁘실 것 같은데, 여성 참여 확대 방안 관련해서 선거 제도 이외에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핵심은 선거제도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디테일 아닌가요? 공간이 보장되어야 사람들이 도전의식도 갖게 되고, '여성 정치인 육성, 확대, 인력뱅크'도 결국 공간이 확보가 될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정당들이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특히 여성관련 의제에서 반드시 제안이 되고 정책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열거를 하면 너무 많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여성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오시기 직전에 국정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보고 있었는데, 사실 촛불

을 든 시민들의 참여로 대통령이 탄핵된 것입니다. 국정교과서도 정부가 강행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인터넷상에서 의견수렴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7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인터넷에 의견개진을 했다고 합니다. ‘국정교과서는 안 된다’였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성들의 정치적인 권리나 지위를 확보해 나가는 것도 결국은 참여 속에서 쟁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잘 내는 의원들을 키워야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만 보더라도 혼인으로 인맥을 다 형성하고,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야 하는 지연, 학연으로 뒷돈을 나눠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면이 있기 때문에 진짜 잘하는 정치인, 잘하는 정당을 키워줘서 나를 대변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른 정당들이나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여성들을 대변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유권자 참여 높이는 시민교육 중요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

제20대 국회 비례대표 초선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국민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제1정책조정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그동안 활발한 정치 활동을 토대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국회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20대 국회에서 하고 싶은 일은 여성들이 문화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화와 여유가 없고 삶이 팍팍해서 그런지 성희롱 사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성이 좀 당당한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성들의 정치 진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좀 더 투명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좀 당당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고 싶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

실 제 전공이 문화예술 쪽인데 안전행정위원회를 하고 있어요. 경찰청, 행자위, 행자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업무를 담당하는데, 저하고는 동떨어진 위원회라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 여성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부각될 수 있었습니다. 위원회 들어와 마주한 사건이 지진, 중국 불법 어선 등인데 모두 안행위 소관 일입니다. 전북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호흡이 안 되는 10살 아이를 서울삼성병원으로 옮기려고 소방헬기를 요청한 일이 있었는데 컨트롤타워 부재로 큰 어려움을 겪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잘못으로 위험에 닥친 아이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특별히 다루었던 사건인데 해당 부처인 국민안전처에 잘못을 지적하고 향후 매뉴얼을 철저히 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지진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우리나라, 일이 터진 뒤에 뒷북치는 정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적인 감성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여평’(아침을 여는 여성들의 평화모임)을 통해 고 김근태 의원의 가르침을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해서 세상을 바꿨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모임에는 인재근 의원, 유은혜 의원, 유승희 의원, 그 밖의 많은 여성 시의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 서로에게 힘을 받는 것이겠죠. 여성정치세력화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서로 끌어주고, 의원이 그냥 혼자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평범한 여성들이 모임을 통해 ‘나도 할 수 있겠다. 누구도 했는데 왜 나는 못해?’ 하면서 기운을 받는 것 같습니다.

-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재난과 여성’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대피하는 방법 중에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거나 동선을 정할 때 여성과 노약자들에 대한 매뉴얼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안전 디딤돌’을 검색해보면 어디로 대피하라고 하는데 막상 찾아가면 노래방이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민방위 훈련만 그나마 매뉴얼이 있고 그 외에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이 1000억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매뉴얼, 문자알림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재난과 여성 부분은 자세히 살펴보고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여성들을 위한 재난안전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뉴얼 자체가 열악합니다. 여성과 남성은 지진이나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남자들은 운전하고 차 끌고 가면 되는데, 여성들은 아이들 챙기고, 노인들 챙기느라 대피가 늦어지죠. 주요 재난을 당했을 때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남성과 여성의 피해 분석이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YWCA와 함께 재난과 여성에 관한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저희 정론지 『여·세』에서 특별히 여성주의 관점을 다루면서 ‘여혐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의원님들의 견해를 묻고 있습니다. 강남역 사건부터 광화문 촛불시위 현장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 여성혐오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제가 52년생입니다. 우리나라 막 성장을 하는 급변기의 세대 사람이고 그 시대에는 압축성장을 하다보니까 모든 포커스가 경제성장으로만 몰렸습니다. 먹고 사는 거에만 급급했고, 우리 어머니 세대는 빨래하고 아이 기르고 세월을 다 보냈지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의 문턱에 다다랐는지는 모르겠으나 사회문화적으로는 그 속도가 따라오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세대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10명 중에 사회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2~3명 정도 됐을까요. 보통은 남편이 가정폭력을 해도 참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은 여성들도 많이 배우고 직장생활도 활발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결혼 안 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살아가는 독신녀가 많아졌습니다.

- 그런데 결국엔 저출산이라는 사회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지요.

그런 상황들이 저출산으로 이어집니다. 저희 때같이 언니가 동생 봐주고 서로 더

불어 살던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 밖에 안 낳고, 남자 여자 모두 직장 생활하면서 같이 키워야 하는데 말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인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민의 당에서도 20대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 많습니다. 4년 동안 반영이 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출산휴가도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남녀차별 없는 근로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4년 후에 정책적으로 나올까 고민입니다. 여성 의원들이 푹푹 뭉치면 좋은데 막상 들어와 보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YWCA 같은 단체하고 협업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어야지, 나 혼자 국회 들어와서 나 혼자 해결해보겠다?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여성의원들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여성의원들이 여성들의 지지로 의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여성유권자들과 단절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의원들을 위한 변명이 아니라 들어와 보면 각자 속한 위원회가 있고, 맡은 위원회 활동을 바쁘게 하다 보니 협력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정활동비를 국민으로부터 받는 만큼 저는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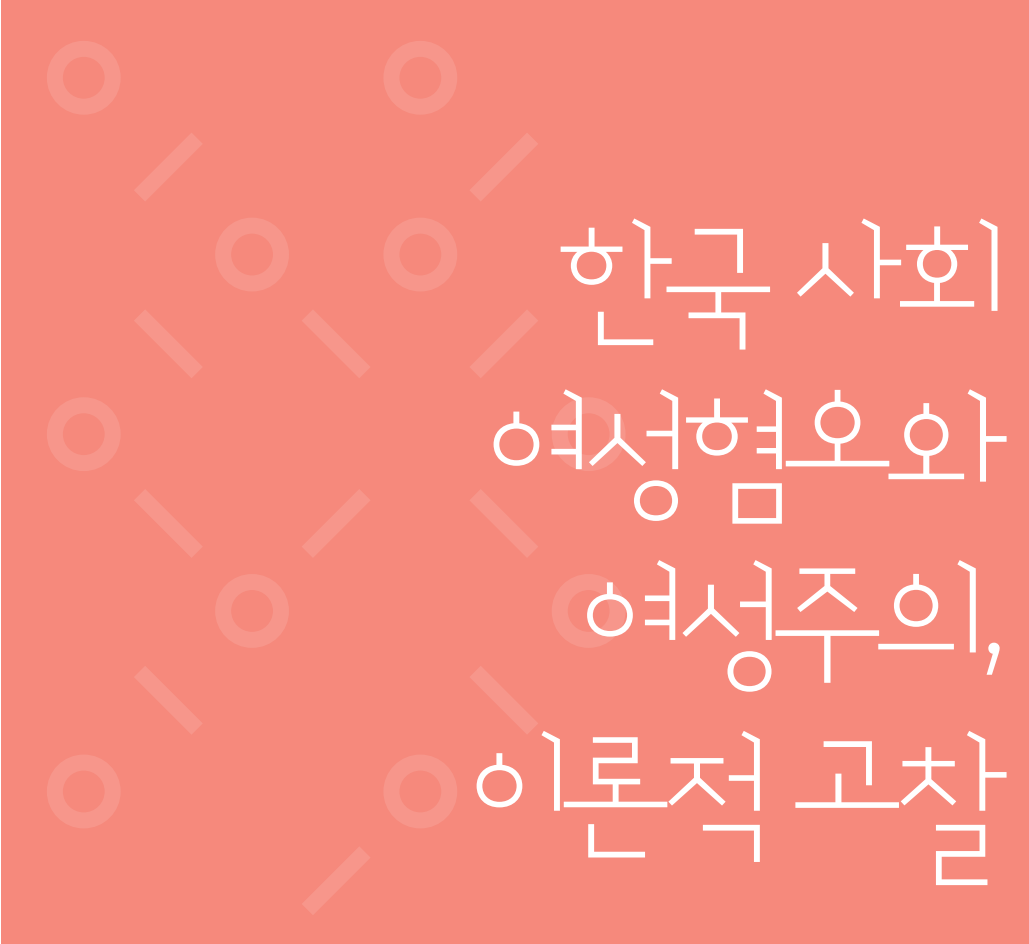
- 얼마 전에 국민의당 여성위원회 워크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내 여성조직은 어떤가요? 여성관련 이슈들은 거기서 주로 생산이 되어야 하는데 말이지요.

국민의당 여성의원은 총 아홉 분입니다. 뭐가 필요한지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부족한 부분은 잘 아는데 더민주당, 새누리당의 협업이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안 발의 심사 소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어려움을 느낍니다. YWCA는 굉장히 오래된 단체이지 않습니까. 경험도 많고, 인적 네트워크도 풍부하니 도움을 주시면 제가 속해 있는 분야가 아니더라도 돕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면 바꿔보겠습니다. 여성혐오를 비롯해 다른 사회적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면 되풀이되고 또 되풀이됩니다.

- 미국의 전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가 “다른 사람이 여성인 나를 여성이라서 무시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나에게 있다”고 강변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비하나 여성혐오가 여성들의 무권력 상태에 기인한다면, 여성들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권력을 잡는 것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의원 참여가 17%까지 왔지만 그것조차도 여성들의 목소리를 내는 17%는 아닐 수 있습니다. 국민의 당 같은 경우도 여성조직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여성들을 준비시켜서 남녀동수 의회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여성들을 길러내야 된다는 각오나 결단이 당 차원에서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대표성 강화와 관련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참여를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여성들의 참여의식이 먼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 본 사람들은 정치가 뭐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도 안 하면서 변화를 원한다면 안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유권자들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얼마나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실천했는가를 알아보는 여성 유권자가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김은경은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회 위원장,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이다. 대학에서 정치리더십 개발과 젠더정치를 가르치고 있다. 남녀동일임금, 남녀동수정치 실현을 위해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총론 1

여성혐오와 혐오의 모방

여성혐오에 맞서는 여성주의의 전략

김은주

동덕여대 강사

1. 들어가며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과 넥슨의 성우 해고는 여성이라는 사실과 여성주의를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이 생명과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를 기점으로 해서 여성주의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한국 사회에 불붙었다. 여성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는 사회, 문화, 활동 그룹이 자발적으로 생겨날 뿐 아니라 여성주의적 도서 출판과 담론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여성들은 공포와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고 실질적으로 행동하게 되었는가? 이를 설명하는 공통 키워드는 바로 ‘여성혐오’이다. 애초에 여성혐오 표현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한국 대중문화의 각종 사건들과 맞물리면서 일종의 정치, 사회, 문화의 의제로 부상했다. 그리고 2016년 마침내 위의 언급한 사건들을 여성혐오에 따른 범죄와 해고로 이해하게 되면서 새로운 흐름이 나타난다. 여성들은 기존의 무대응적 방식과 달리 성차별적 말이나 행동을 반대로 뒤집어 보여주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메갈리아(megalia)라 불리는 온라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여성혐오를 혐오로 맞대응하는 현상이 출

현한 것이다.

2015년 6월 호흡기 바이러스 메르스(MERS)가 유행으로 생긴 메르스 갤러리(mers gallery)와 여성주의 소설 『이갈리아(egalia)의 딸들』의 합성어로 이름 붙여진 메갈리아는 그 탄생 방식으로 인해 일종의 하위문화(sub-culture)로 여겨졌다. 그러나 메갈리아의 미러링(mirroring) 전략은 새로운 방식의 여성주의적 행동주의(activism)로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미러링’은 ‘여성혐오가 얼마나 터무니없고 폭력적인지 비춰준다’는 취지로 온라인에서 쓰인 단어로, 거울이 좌우를 바꾸어 보여주듯 성별의 재배치를 보여준다. 이러한 메갈리아의 미러링은 여성혐오의 전략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과 비난 그리고 환호를 동시에 얻어냈다.



2. 여성혐오와 ‘여성혐오’를 혐오하기

우에노 치즈코에 따르면 여성혐오(misogyny)는 ‘성별이원제 젠더 질서의 심층적 핵’으로 남성과 동등한 주체로 여성을 인정하지 않는, 여성의 객체화, 타자화를 뜻한다.¹ 여성혐오는 여성에 대한 멸시이자 여자를 성적 도구로만 생각하고 반응하는 태도와 방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본다면 가부장제 하의 성차별과 관련된 현상들은 ‘여성혐오’ 개념과 연결된다. 다시 말해 여성혐오는 여성을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여기면서 남녀의 위계적 젠더를 공고히 하는 핵심 기제이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혐오의 발화는 온라인 공간에서 최근 10년간 기승을 부려왔다. 최근 3~4년간 한국의 온라인 공간에 ‘여성혐오’ 발언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2000년을 전후하여 초반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성희롱으로 다루어진 사례들은 바로 현재 ‘여성혐오’라고 논의되는 정서와 태도에 기반을 둔다. 한국의 경우 1999년 소위 ‘군가산점제 위헌 소송’이 온라인상의 반 페미니즘 담론을 격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사이버 마초, 여성에 대한 사이버 테러 등으로

1. 우에노 치즈코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나일등 옮김, 은행나무, 2012, 12~13pp.

명명되었던 1999년~2000년 경 온라인의 반(反)페미니즘 담론은 비교적 이용자도 적고 엘리트 중심이었던 PC통신 시대에서 확산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여성혐오는 더 폭넓은 확산의 계기를 갖게 되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온라인에서 여성혐오가 노골적인 대중적 혐오의 양상을 띠면서 김치녀, 된장녀와 같은 ‘~녀인 여자 = 무개념’의 구도를 확산하게 된 것은 ‘일간 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의 조롱과 비하 발언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혐오에 맞서는 네트워크 공간에서 여성들의 활동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가 2015년 발발한 메르스 사태를 기점으로 달라진다. 여성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자행된 여성혐오와 폭력에 반발하는데,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 메갈리아가 그 중심에서 여성비하 발언과 가부장제를 본격적으로 비판했다. 이들의 활동은 ‘사실은 전혀 평등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단면을 폭로하면서 많은 여성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들은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여성혐오를 짤, 드립을 이용해 하위문화의 형태로 알리고, 본격적으로 여성혐오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 게시글을 작성하고 유통한다.²

‘한국 남자는 벌레’라는 의미의 ‘한남충’이라는 단어를 스스럼없이 사용하며, 불특정 남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외모 비하와 성(性)적 비난까지 자행한다. ‘김치녀’는 ‘김치남’으로, ‘짹치녀’는 ‘갓치녀’로 바꾸어 그간 여성들에게 행해져온 조롱을 그대로 남성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들은 “여성이 아이를 낳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며 ‘천하제일 맨스 플레인 대회’, ‘포스트잇 프로젝트’, ‘사심 (forsim·4心) 잡지 발행’, ‘소라넷 폐지’ 등의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실제로 2015년 12월에는 메갈리아에서 진행한 캠페인으로 인해 ‘소라넷 폐지’가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긍정적인 성과가 만들어지기도 했다.³

메갈리아의 활동에 대해서 다소 극단적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는 남성 비하 표

현들로 인해 “너무 지나쳐서 보기 불편하다”는 부정적인 여론들 역시 생겨났다. 여성혐오를 혐오로 대응하는 미러링이 결국 남성집단을 향한 혐오를 발화하는 것이기에 메갈리아의 활동이 정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보여주듯, 오히려 ‘메갈리아가 남성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렇듯 커뮤니티 탄생 이후 7개월가량의 기간 동안 메갈리아가 보여준 활동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찬반양론을 빚어냈다. 하지만 메갈리아의 활동이 많은 여성들에게 ‘한국에서 여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질문하고, 여성혐오를 문제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보통 소수자 운동은 차별에 따른 피해 상황의 사실을 알리고, 보편 인권에 근거해 차별 금지를 호소하는 인정 투쟁의 방식을 택해왔다. 또한, 여성 비하와 혐오 발화에 대해서는 그간 대다수 여성들은 두려움과 수치감으로 인해 무시하고 무대응을 최선이라 여겼다. 이렇게 여성들이 여성혐오에 응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여성을 혐오하는 표현 그 자체가 여성을 침묵시키기 때문이다. 혐오 발언은 혐오의 대상이 된 존재를 말하지 못하게 만들며, 혐오 발언을 거침없이 하는 자들이 노리는 효과 역시 여성들을 침묵시킨다.

가만히 살펴보면 여성혐오에 대한 여성들의 무대응은 젠더 비대칭의 구조에서 기인한다. 혐오를 발화하는 자들은 이미 젠더 권력을 갖고 있으며 혐오 발언을 통해 그 권력을 유지한다.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되는데, 혐오 발화는 여성을 침묵에 빠뜨리고, 다시 젠더 권력의 비대칭을 공고히 한다.

게다가 혐오 발언의 악순환으로 인해서 여성들은 여성혐오 발언을 들었을 때 오랫동안 발언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검열해 왔다. 여성들은 “나는 김치녀, 된장녀가 아니야. 그들이 지시하는 혐오의 대상이 아니야.”라는 방식으로 타 여성과 자신을 구분하면서 자신을 방어하고 검열한다. 우에노 치즈코가 지적했듯이 “여성혐오를 자기혐오로 경험하지 않고 넘어가는 손쉬운 방법은 자신만은 예외적 존재가 되어 자기 이외의 여성을 자신과 무관한 타자로 만들어 여성혐오를 전가하는 것이다.” 젠더 권력이 비대칭적인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을 여성혐오에서 지킬 수 있는 방식은 다른 여성과 자신을 분리하고, 그들 여성에게 혐오를 되돌리는 것이다.

2. 짤은 재밌는 사진이나 영상의 캡처를 뜻하며, 드립은 애드립(ad lib)에서 온 말로 농담 성향의 발언을 의미한다.
3. 박무늬, 『혐오에 맞서는 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메갈리아>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젠더 담론』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46~47pp.

하지만 미러링은 여성혐오를 발화하는 자들을 분명히 지칭하고 그들을 혐오한다. 이 방식은 여성의 침묵을 깨뜨리면서 여성혐오를 아무렇지 않게 발화하던 자들을 양산하는 젠더의 비대칭적 구조 자체를 문제시한다. 이 효과는 급진적인데 여성은 목소리를 갖게 되면서 자기 검열과 혐오의 순환고리에서 벗어난다. 무엇보다도 미러링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다른 여성에게 혐오를 전가하지 않으므로 여성들 사이의 분리의 벽 역시 무너뜨린다.

위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오를 ‘저항의 방식’으로 택한 미러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혐오의 방식을 택했으니 남성이 행한 여성혐오 마찬가지로 똑같은 혐오 아닌가? 또한, 남성을 혐오하면서 오히려 여성과 남성의 성별 대결의 양상이 강해졌다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버틀러(J. Butler)는 소수자가 “어떤 효과를 낳고자 상처를 주는 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버틀러에 따르면 “그런 말을 사용(use)하기는 하지만 또한 그것을 진열(display)” 하는 소수자의 발언은 미러링을 수행하면서 소수자를 혐오하는 발언의 문제점을 보이는 것이다.⁴ 이러한 버틀러의 논의는 혐오 발언의 미러링을 통해서 언어 행위의 사회적 맥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된다. 언어는 행위가 되며 언어의 수행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소수자는 자신에게 혐오 발언을 했던 자들을 혐오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소수자 자신을 혐오의 대상으로 놓은 과거의 맥락과 단절한다. 소수자가 혐오 발화를 함으로써 그 효과 행위로 소수자가 사회적 권력을 획득하고 소수자에게 부여된 혐오 발언의 의미를 맥락 변경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미러링은 자신의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받지 못한 여성들에게 혐오를 통해 감히 말하게 하여 혐오에 저항하는 방식이다. 미러링은 혐오 발언으로 하여금 스스로 혐오 발언에 대립하도록 만들면서 혐오 발언을 통해 혐오 발언에 대항한다.

따라서 미러링은 ‘남성’ 혐오를 지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러링은 ‘여성혐오’를 혐오하기이다. 즉, 미러링은 여성혐오의 현실을 혐오의 방식으로 직시하고 보여준다. 가부장제에서 여성은 공주로 뮤즈로 숭배하고 떠받치든 성녀이자 복된 어

머니로 칭송하던 갈보 창녀로 모욕하던 매한가지로 권력의 틀거리에 의미를 부여받은 대상이다. 미러링을 통해 여성혐오의 발화에 저항하고 여성을 대상화하는 발화 자체에 혐오감과 불쾌감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3. 혐오의 모방과 발화하는 여성들

미러링은 여성혐오를 혐오의 방식으로 저항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미러링의 가장 큰 의의는 여성혐오에 기반하는 남성 유대(homosocial)에 금을 낸다는 점이다.⁵ 미러링은 ‘여성과 남성이 되지 못하는 이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가부장제 질서를 교란한다.

그러나 남성 혐오의 발화자와 진정한 페미니스트를 분리하고 이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미러링을 수행하는 행위자는 혐오를 ‘일삼는’ 익명의 행위자 집합에 다름이 없다. 이들은 얼굴 없이 혐오를 발화할 뿐 아니라 가부장제가 허용한 정상적 시민으로 행동하지 않고 반인륜적인 발화 행위를 하기에 비인간적이며 사회의 쓰레기인 ‘여자 일베’와 다름없다.

그렇다면 미러링 발화자 집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실상 미러링하는 집합적 행위자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을 수 없다. 미러링 발화자들을 묶을 수 있는 기제가 있다면 그들이 미러링을 한다는 것이며 이는 혐오에 대한 모방에 다름 아니다.

호미 바바(Homi. K. Bhabha)에 따르면 권력이 비대칭적인 식민지에서 지배자는 피지배자에게 자신을 닮을 것을, 즉 모방할 것을 요구한다. 식민지의 지배자는 지배를 용이하기 위해 이상을 제시하고 이를 동일시할 것으로 강요한다. 일제가 조선에게 제시한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신민화 정책이 보여주듯 지배자는 피지배자에게 규칙과 규율을 제시하면서 자신과 닮음을 허용하고 닮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지배자는 동시에 피지배자에 완전히 자신과 똑같아질 수는 없다는 사실 역시 분명히 한다. 피지배자가 지배자와 같아질 경우 둘 사이의 권력의 비대칭성은 사라진다. 즉,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똑같은 권력과 권리를 취득하

4. Butler, Judith, 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Routledge, 1997, 99p.

5. 우에노 치즈코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나일등 옮김, 은행나무, 2012, 35~36pp.

기 때문에 지배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배자가 피지배자에게 시행하는 정책은 허용과 금지의 이중적 정책이며 이로 인해 피지배자의 모방은 언제나 양가적이다.

모방의 양가성(ambivalence)으로 인해 피지배자는 지배자를 부분적으로 닮는다. 이는 피지배자로 하여금 지배자와 동일해지는 대신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이르게 한다. 양가적 모방은 닮았지만 결국 닮을 수 없기에 모방하는 피지배자는 언제나 미흡하지만 또한 기묘하다. 결국 모방은 닮은 듯 싶지만 결코 똑같아질 수 없는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바로 모방하기가 피지배자에게 지배자에게 항의하고 통제로부터 이탈하는 통로로 작용하는 효과를 낳는 것이다.

바바는 모방의 양가성으로 인해 피지배자가 지배자의 요구를 따르는 ‘흉내내기’가 전복의 전술로 이용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흉내내기는 분명 ‘모방(mimesis)’이지만 동시에 이를 우습게 만드는 ‘एं터리 흉내(mockery)’가 된다. 메갈리아의 경우 여성혐오를 모방했지만 이는 풍자와 해학으로 나타나면서 여성혐오의 부당함을 드러낼 뿐이다. 양가적 모방은 일종의 위장술이다. 모방은 위장하며 드러낸다. 모방은 규칙과 규율을 지키면서 이상적 상으로 제시된 지배자를 따라하여 충실히 복종한다. 하지만 이에 따른 “효과는 심화와 방해의 이중성”으로 나타난다. 이 점에서 모방은 “인지, 흉내, 조롱하는 책략으로 지배자의 권위를 위협”한다.⁶

모방과 주체화에 관한 호미 바바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비인간으로서 여성은 남성을 기준으로 삼은 인간의 상을 모방하지만 완전한 동일시는 애시 당초 불가능하다. 완전히 모방하여 같아진다면 가부장제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이는 다시 말해 여성혐오를 하는 남성처럼 여성이 혐오를 차용하여 모방할지라도 남성혐오에 여성은 결코 도달할 수 없음을 지시한다. 오히려 혐오를 모방할수록 ‘여성혐오가 있다’는 사실만이 명백해진다. 즉, 여성이 모방한 남성혐오는 ‘남성혐오’란 말의 기이함과 남성혐오의 불가능성을 보여줄 뿐이다.

그렇다면 2016년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혐오를 모방하면서 얻은 것은 무엇

일까? 그것은 여성들이 실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네트워크 매체의 힘은 여성들의 발화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디지털 모바일 매체는 하이퍼 링크 텍스트, 캡처, 동영상 등의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표현하기도 하며 정보를 전달, 확산, 생산하는 네트워크 연결망으로 기능하면서 여성들을 집단적으로 말하게 한다.

모방하면서 발화하기 이전에도 물론 여성 중심의 인터넷 커뮤니티 내에서 여성혐오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커뮤니티가 표방하는 폐쇄성으로 인해 그 성과가 가시적이지는 못했다. 하지만 모방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은 메갈리아의 경우에는 하위문화 게시판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했고 개방형 커뮤니티로 등장했기 때문에 여성들의 대중적 참여율이 높았다. 게다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게시판에서 발화하는 닉네임으로 접촉하는 네트워크의 특징이 게시판 사용자들을 참여로 이끄는 물질적 조건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는 게시판 사용자들로 하여금 가감 없이 체험을 서술하게 하고 공감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생산하면서 댓글 달기, 추천 등의 형태로 집단적 발화로 발전했다. 특히 논리적 긴 글쓰기의 형식을 따르기보다는 즉시성을 자극하는 시청각과 결합한 발화 형태가 확산적인 모바일 네트워크의 특징과 결합하여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그 영향력을 발휘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네트워크라는 매체에서 발화자들이 억압에 저항하기 위해 기존의 언어를 재정의할 뿐 아니라, 유머의 방식으로 패러디하여 사용했다는 점이다. 게시판 사용자들은 유머와 새로운 정의를 통과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일상생활 속의 성추행에서부터 길거리에서 겪은 시선 강간, 몰카, 성폭행, 강간,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이혼 등 여성들이 실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의 불이익, 성차별, 성 문제 등 경험을 나누었다. 이 과정은 사용자들을 고백의 발화에 이끌어내고 이에 답하면서 친화적 여성 경험을 함께 구성하게 만든다.

집단적 발화의 양상 또한 피해 서술에 방점이 있기보다는 여성을 대상화하는 가부장제와 남성성에 대한 분노와 적대 그리고 공격성을 폭발적으로 표현하는 글쓰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집단적 발화로 양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유통하면서 여성에게 분노를 야기한 경험을 동시에 서술하는 과정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6. 호미바바, 『문화의 위치』 나병철 옮김. 소명출판사, 2016. 197p.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다. ‘코르셋을 벗었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여성으로 하여금 자기 혐오적 정체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들을 뒤섞고 횡단하면서 집단화되는 흐름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게시판에서 생겨난 글쓰기와 읽기, 다시 글쓰기라는 상호작용은 ‘힘 돋우기 실천(empowerment)’의 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게시판 사용자가 겪는 개인적 차원의 담론에 댓글이 달리면서 유대감과 연대감을 ‘여성 경험’을 만드는 집단적 이야기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4. 나가며 : 여성혐오 이후의 여성주의들

한국 사회에서 ‘여성혐오’에 맞서 혐오를 모방하는 여성의 출현은 한국 여성운동에 새로운 판짜기의 시작을 열었다. 여성들은 더 이상 가부장제의 피해자로 자기를 설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성운동을 단순히 젠더라는 단일한 범주의 권리를 추창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또한 혐오를 모방하는 미러링 전략 이후의 여성주의는 탄핵 정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촛불 집회에서 차별과 혐오 발언 없는 페미존(femizon) 만들기 등과 같은 새로운 전망을 그려나가는 중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성혐오 이후의 여성주의는 19세기 울스턴크래프트(M. Wollstonecraft)의 여성 참정권 운동이 보여주듯 당면하는 현실과 맞서 투쟁하는 여성들로부터 그 시작점을 마련한다. 여성주의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남편의 폭력에 맞서,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적 노동과 차등 임금에 맞서,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성희롱과 어느 곳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강간에서 맞서,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재적인 여성의 현실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러한 여성주의는 기존에 사적인 영역이라고 여겨져 왔던 공간을 정치적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 ‘사적인 것이 바로 공적인 것이다’라는 주장을 해왔다. 그리고 이로부터 더 나아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누가 정하는가’라는 기준 설정과 관점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래서 여성주의는 일상에서 실행되는 권력의 규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를 공론화시키면서 정치적인 장을 확대해왔다. 이렇게 현실의 투쟁으로부터 시작된 여성주의는 현실을 변화시키면서, 자신이 제기

한 문제 설정방식이 달라진 현실과 조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천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발견한다. 이런 점에서 여전히 여성주의는 실천적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정의를 확장해내고 여성주의의 정의를 업데이트하며 갱신해나가는 구성활동이자 그 의미와 실천이 함께 작동하는 살아있는 과정인 것이다.

지금까지 여성주의는 서구, 남성, 백인을 인간 주체로 가정하고 이 관점을 근거 삼아 세계를 재단하는 논리에 반대해왔다. 여기서 더 나아가 여성주의는 정체성을 불변하고 선형적인 추상적 본질에 의해 설명할 수 없음 역시 분명히 해왔다. 이미 가부장제는 인종, 계급, 종교, 문화의 복합적 요인과 함께 특수하고도 다양한 모습으로 차별과 억압을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현실에서 여성들은 지배와 억압의 여러 형태에 연루되어 있으며, 차별과 억압에 저항하는 여성을 특권적 여성의 과잉 일반화된 범주로 더 이상 환원할 수 없다. 그러하기에 여성주의는 단수의 여성의 운동으로 가두는 논리에서 벗어나 젠더 관계뿐 아니라 다양한 타자들과의 소통 그리고 다른 사회적 모순과 성차별의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혐오 이후의 여성주의는 기존의 억압적인 삶의 양식을 재생산하지 않기 위해 복합적으로 저항하고 사회의 다양한 범주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자기 과제로 삼는다. 즉 여성주의는 생물학적 성별로서 여성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기존의 지배적 규범과 상식이라는 이름 하에 묵인된 차별에 저항하고 새로운 삶의 양식과 전망을 모색하려는 이들의 세계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여성주의는 어느 정치학보다 다양한 사회적 차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다양한 피억압자들에 관심을 갖는 연대와 제휴의 정치가 될 수 있다.

.....

글을 쓴 김은주는 『여성주의와 긍정의 윤리학(affirmative ethics) : 들뢰즈의 행동학(éthologie)을 기반으로』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덕여자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여성주의적 실천과 윤리적 지평을 연결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트랜스포지션』(브라이도티 저, 문화과학사, 2011)을 공역했고, 「들뢰즈 신체 개념과 브라이도티의 여성 주체」, 「에토스로서의 윤리학과 정동」 등의 논문을 썼다.

총론 2

여성혐오, 그 후

비체 페미니즘의 새로운 물결

이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HK교수

1. 도시화와 여성혐오의 가시화

혐오의 감정이 우리 사회에 소용돌이치고 있다.¹ 특히 여성혐오(misogyny)는 SNS를 중심으로 전례 없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제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는 누구나 한번쯤 들어본 사이트가 되었고, ‘김치녀’, ‘된장녀’, ‘보슬아치’ 등 여성비하 표현은 청소년들에게도 익숙하다. 청소년들이 실제로 일베의 막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은 인터넷 게임에서 사용되는 닉네임이나 용어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가령 닉네임 ‘스두부찌개’의 ‘스’는 특정지역을 비하하는 일베 유저들의 표현법에서 나온 것이다.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김치녀’, ‘홍어’ 등의 용어를 즐긴다. 게임, 야구, 스포츠 사이트 등 남초 사이트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자주 사용되는 여성비하, 성적 대상화 발언에 청소년들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왜 지금, 여기에서 여성혐오는 급부상하였는가? 나는 그것이 바로 ‘도시화’라는 키워드로 압축될 수 있다고 본다. 도시화란 도시적인 삶의 방식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도시적 삶의 방식은 신자유주의적 무한 경쟁과 성과 원리에 따르는 노동,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일상을 의미한다. 어떤 기본적인 물질적 토대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지는 무한경쟁의 압박, 자아계발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하는 현실, 소비를 통해 자신을 과시해야 하는 상황은 인간에게 불안이라는 정서를 증폭시킨다.

한편으로 도시화는 여성들에게 기존의 젠더 정체성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여성들은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등교육을 받고, 이로써 경쟁력 있는 노동자로 공적인 영역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은 74.6%로 남학생의 진학률보다 7.4% 높았으며, 7급 공무원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은 39.6%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여성들은 또한 적극적으로 문화를 소비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욕망과 권리를 분명하게 표현하기 시작했다. 여성들은 이제 공/사의 이분법을 뛰어넘기 시작했으며, 이와 함께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공적인 영역에서 발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바로 젠더 위계를 뒤흔드는 이러한 여성들은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경쟁력 있는 여성, 자신의 욕망을 발화하는 여성의 등장은 적어도 공적 영역에서의 우월성, 욕망에서의 주체의 위치를 점함으로써 실현되었던 남성성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한경쟁의 불안은 남성들에게 젠더 관계의 퇴행을 재촉한다. 남성 우월성을 확보해 주는 위계적 젠더관계를 지킴으로써 경쟁으로 인한 불안을 달래보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내면의 불안은 경쟁자로서의 여성, 남성성을 위협하는 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혐오로 분출되기 쉽다. 도시적인 삶의 방식을 실어 나르는 SNS는 이 혐오의 감정을 분출하기에 더없이 적당한 공간이었다. 사이버스페이스 상에서의 보장된 익명성은 오프라인에서보다 더 직접적으로 혐오를 표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1.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newsview?newsid=20151208204241869>. 「여성노인 등 인터넷 혐오 글 해마다 늘어」 <연합뉴스TV>. 2015년 12월 8일. 이 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직접 혐오 표현을 찾아내 삭제나 계정 이용정지 등 시정요구를 한 건수는 2013년 622건에서 지난해 705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11월말까지만 벌써 833건에 달한다.



2. 페미니스트 비체의 등장

그러나 새롭게 부상하는 여성 존재들은 이를 두고만 보지 않았다. 2014년 메르스 파동을 기점으로 여성혐오의 가시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한 것은 ‘메르스 갤러리’, ‘여성시대’, ‘메갈리아’, ‘위마드’ 등의 여초 사이트(여성 사용자가 많은 사이트 - 편집자 주)였다. 일베의 여성혐오 발언에 ‘미러링’의 전략을 사용하고 안국동 거리에 생리혈이 묻은 생리대를 붙이고 다니며,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이 벌어지자 추모의 포스트를 붙이고 ‘왕자 필요 없음’이라는 티셔츠를 만들어 일베의 신상털이와 고소에 대응했던 것은 바로 이들이었다.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이후 이들은 ‘페미니스트’로서 온·오프라인 상에서의 활동을 넓혀갔다. 자신들의 언어로 페미니즘 관련 저서를 출판하고, ‘페미디아’, ‘여성해방전선’, ‘바람계곡의 페미니즘’ 등 페미니즘 관련 포스팅을 올리는 각종 페이스북 사이트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변이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고민을 시작한 것이다. 이와 함께 성폭력 폭로전도 폭넓게 진행되었다. 도제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 문학·예술계에서의 남성 작가에 의한 성폭력,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칭한 여성 웹툰 작가에 의한 성폭력 공모 등에서부터 학생 운동권이나 정당 내부의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은 침묵했던 목소리를 밖으로 내뿜기 시작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페미당당’, ‘강남역 10번출구’, ‘불꽃 페미액션’ 등 조직적으로 페미니즘의 의제를 실천하는 집단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최근 ‘낙태죄 폐지운동’을 통해 서로 연대하고, 촛불집회에서 여성 비하 발언이나 성추행 등에 대응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나는 이들이 바로 페미니스트 ‘비체(非體, abject)’라고 본다. 비체란, 아니다(a, 非)라는 접두어와 객체(object, 대상)라는 명사를 합쳐 만든 신조어다. 비체는 줄곧 더러운 것 혹은 공포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어 혐오되어 왔다. 크리스테바는 콧물, 침, 분비물 등이 더러운 비체(鼻涕)로 혐오되는 이유는 그것이 “동일성이나 체계와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² 비체가 공포스러운 이유는 그것이 “주체의 모든 규정성을 넘어서기 때문이다.”³ 여성혐오에 대한

하는 페미니스트들은 다름 아닌 젠더 체계와 질서를 교란시키는, 기존의 젠더 정체성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비체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혐오의 표적이 된다. 그러나 이들은 젠더 체계와 질서를 교란하는 가운데 페미니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갔다. 이런 점에서 이들은 부정적인 낙인이 찍힌 비체가 아니라 젠더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통해 젠더를 재구성하는 페미니스트 비체이다.

메갈리아인이 사용하여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미러링(mirroring)을 먼저 살펴보자. 미러링은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사용하는 말하기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여 돌려주는 전략이다. 가령 ‘김치녀’에 대하여 메갈리아인은 ‘한남충’을 사용한다. 여성비하의 방식을 남성비하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성들이 사용하는 비하의 언어를 여성의 위치에서 모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여성들은 여성의 위치와 남성의 위치를 가로지른다. 여기서 여성들은 더 이상 기존의 젠더체계가 마련해 놓은 착한 대상으로서의 여성성, 기존의 남성성을 확인시켜주는 착한 거울이 아니다. 메갈리아인의 거울은 비체의 거울이다. 그것은 우월적 남성성을 비트는 동시에 착한 대상으로서의 여성성을 벗어난다. 여기서 비체는 행위한다.

문화·예술계의 성폭력 폭로전도 마찬가지다. 물리적이고 구조적인 권력 위계의 맥락 하에서 저질러지는 성폭력은 사실상 남성을 강력하게 발기한 침투자로, 여성을 나약하고 수동적인 텅 빈 공간으로 전제할 때 가능한 사건이다. 이 구도 하에서 여성은 수치스러운 대상으로 침묵당한다. 그러나 여성의 성폭력 폭로는 이 절대적 수동성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시도이다. 이들의 소리와 외침은 여성의 위치를 수동성에서 능동성으로 전환시킨다. 크게 내지른 외마디 외침은 강력한 발기가 고작 액체들의 응집이었음을 폭로한다.

주체로서의 남성, 대상으로서의 여성의 위치를 고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양쪽의 위치를 넘나드는 페미니스트 비체들의 행위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비체들은 주체가 대상에게 부여한 규정성을 넘어서기에 남성 주체의 언어로 파악될 수 없다. 그러나 기존의 위계적 젠더 정체성은 경계를 뛰어넘는 페미니스트 비체들에 의해 구멍이 나기 시작했다. 젠더 경계를 지키려는 자들에게 비체는 위협으로 인식되었지만, 젠더의 새로운 이념과 방향은 바로 젠더 질서를 뒤흔드는 페미니

2. 줄리아 크리스테바, 『공포의 권력』 서민원 옮김, 동문선, 2001, 25p.

3. 이현재, 『여성혐오 그 후: 우리가 만난 비체들』 들녘, 2016, 35p.

스트 비체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런 점에서 비체는 더럽거나 위험한 것이 아니라 변화 가능성을 알리는 존재방식이었다.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가 말했듯 ‘퀴어(queer)’라는 호명에 담긴 부정적 의미는 그 말을 긍정적으로 전유하면서, “그래, 나는 기존의 젠더 질서를 뒤흔드는 퀴어야”라고 응수하는 가운데 뒤틀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비체’에 담긴 부정적 의미는 그 말을 긍정적인 가능성의 의미로 재구성하는 가운데 해체된다.



3. 강한 구조이론과 파라노이아

내가 페미니스트 비체라고 부르는 이들이 최근 가장 고민했던 문제 중 하나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였다. 사건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는 한낱 ‘여성’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재현되곤 하였고, 유명인사의 발언에서 자유발언에 이르기까지 여성비하, 성차별적 발언 등은 사이이다 발언의 일부가 되곤 하였다. 촛불집회의 성추행도 문제였다.

그러나 집회에 참석할 것인가의 여부를 두고 페미니스트들은 차이를 보였다. 적지 않은 여성들은 집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그 중 한 논변은 다음과 같다.

“집회 현장에서 여성을 상대로 벌어지는 ‘영만튀’, ‘슴만튀’ 성추행 범죄에 대해 주최 측은 아무런 대책도 세워 놓지 않고 있다. 여성들이 자신을 지키려면 자경단을 조직하거나 집회를 보이콧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 입으로는 진보를 외치면서 막상 기존의 가부장적 ‘강간 문화’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젖어 있는 남성들을 고작 ‘집회 문화 바꾸기 캠페인’으로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광화문 집회에 나가는 것은 성범죄자들의 소굴로 자진해서 걸어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중략) 정치적으로 왼쪽에 있던 이들과 오른쪽에 있던 이들은 현재 여성혐오라는 강력한 기제로 하나가 되어 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 외모주의 문화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대통령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여성의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는 조금도 타격받지 않는다(오히려 집회가 가부장적 질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러니 여성들이 굳이 집회에 참여해야 할 이유가 없다.”⁴

4. http://m.womennews.co.kr/news_detail.asp?num=99574#.WDJgBWb_qUk 「광화문 민중총궐기 집회에 여성이 굳이 나가도 되는 이유」 <여성신문>, 2016년 11월 15일.

이 글은 페이스북 바람계곡의 페미니즘에 올랐던 것으로 새벽까지 논쟁이 이어졌고 결국 아쉽게도 이 페이지의 마지막 글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 글은 옳고 그름을 떠나 정서적으로 매우 이해된다. 우에노 치즈코에 따라 남성이 주체로서 연대하기 위해 여성을 “객체화, 타자화-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여성멸시”⁵하는 것을 여성혐오라고 이해하고 이러한 포괄적 여성혐오 구조가 “마치 증력처럼 시스템 전체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고”⁶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왜 이 글의 필자가 이런 글을 쓰게 되었는지 너무도 잘 이해된다는 것이다. 가령 글을 읽자마자 나는 이 구조에 저항하려 할 때 얼마나 강력한 반발이 있었는지, 2차 총궐기 직전에 있었던 여성들만의 시위집회에서 집회를 훼방 놓았던 사람이 제압되는 순간까지도 성추행을 했던 것이 떠오른다. 그동안 여성들은 비판의 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냈지만, 여성정책을 약속했던 많은 정권들이 결국 수사적인 정책만을 내놓았던 것도 상기된다. 그런 점에서 “여성이 궁극적으로 끌어내려야 할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남성들의 젠더 권력”이라는 점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여성혐오의 구조를 강조하는 방식은 ‘그래서 어떻게 변화를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어렵게 만든다. 이는 이브 세즈윅(Eve Sedgwick)이 ‘파라노이아의 형식’이라고 불렀던 것과 연관될 가능성마저 보인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모든 위치와 사건을 똑같은 질서, 즉 여성혐오에 정렬시키면서 세상을 닫힌 질서로 보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매우 많은 사건을 혐오의 구조로 설명하는 강한 이론을 가능하게 하지만, 구조의 강력함을 주장하는 강한 이론은 이 구조의 가능성 실패 혹은 이것이 놓치는 요소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강한 구조론에서 변화는 외부적 힘에 의해 통째로 변할 때야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내부의 견고함과 예외 없음은 내부적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축소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완벽한 ‘외부’를 상상할 수도 그것을 현실화할 수 없다면,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변화는 항상 그러한 구조들이 실패하는 내부의 지점들에서 그러한 구조를 뒤흔드는 행위자들에 주목할 때 가능한 것이 아닐까.

5. 우에노 치즈코,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나일등 옮김, 은행나무, 2010, 37p.

6. 같은 책, 12p.



4. 나라를 바꾸는 계집, 나라를 바꾸는 퀴어

그러나 이들과 달리 적극적인 집회 참여를 통해 페미니즘의 의제를 분명히 하려는 페미니스트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페미당당’, ‘강남역10번출구’,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NGA)’ 등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한 수십 개의 페미니스트 단체는 시국선언을 통해 국정과탄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과 동시에 혐오도 넘어설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 농단에 대한 비판의 장에서 깨어나는 시민들에게 비판의 양식에 숨어있는 여성혐오의 구조를 돌아볼 것을 촉구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처음부터 힘을 얻었던 것은 아니었다. 낙태죄 폐지 집회를 마치고 제1차 총궐기에 참석했던 페미니스트들은 대권주자 중 한 사람이 단상에 올라와 대통령이 “근본을 알 수 없는 저잣거리의 아녀자에게 권력을 넘겨주었다”고 발언하자 그것이 가진 여성비하의 효과를 지적하였고, 이는 SNS와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의 지지자들은 해일이 오는데 조개를 줍는다며 페미니스트를 반격하기도 했지만, 정작 발언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했다. 시민들의 변화도 일기 시작했다. 다름 아니라 제기된 문제들을 생각해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음 총궐기에서도 불미스러운 사건은 있었지만 페미니스트들은 페미존을 만들어 행동하는 등 조직적으로 대항했고, 이러한 노력은 행사를 진행하는 사회자가 여성 및 소수자에 대한 비하나 욕설 그리고 성추행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공지를 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26일 총궐기에서 DJ DOC의 공연이 있을 것이 보도되자, 한 페미니스트 단체는 ‘미스 박’ 등이 성차별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 공연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주최 측은 논의를 통해 공연을 취소시켰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제기들이 국정 비판의 장에 페미니즘의 이슈를 던져주고 있으며 아직은 작지만 변화의 흐름을 이끌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려는 것이다. 이들은 강력하다고 여겨졌던 여성혐오의 구조에 구멍을 내고 있으며, 구멍을 낼 수 있는 행위자로 나서고 있으며, 더 많은 페미니스트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이들은 구조를 인식하지만 구조를 폐쇄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나는 이들이 구조를 인식하면서도 그 구조에 구멍을 내는 행위자성을 발휘하고 있음을 ‘나라를 바꾸는 계집, 나라를 바꾸는 퀴어’라는 구호 속에서 분명하게 본다. 역사적으로 나라, 민족, 국가는 위계적 젠더 체계를 공고화시키는 제도적 기제로 작동하였다. 여기서 여성은 흔히 나라를 위해 재생산하고 희생하는 착한 대상으로 그려진다. 그런데 여기서 나라를 폐쇄적이고 강력한 구조로만 인식하게 되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고안하기 힘들다. 이 구조는 여성들에게 남성 연대에 복무하는 착한 대상이 될 것을 요구하며, 강력한 구조를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착한 대상으로서의 여성은 폐쇄된 구조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만 골몰할 수도 있다. 여기에 ‘밖’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그런데 지금 집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은 이 구조를 바꾸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자성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계집’의 재구성을 통해서이다. 계집은 통상 여성을 비하할 때 쓰이던 용어인데 페미니스트들은 오히려 이 ‘계집’을 바로 나라를 바꾸는 행위자로 선언한다. 여기서 ‘계집’은 가정 혹은 사적 영역에 머물러야 하는 착한 대상 혹은 열등한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벗어난다. ‘계집’은 원래의 사용 맥락을 벗어나 반복된다. 여기서 계집은 거리로 뛰쳐나온 여성이며 나라를 바꾸는 여성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계집은 위계적 젠더 질서, 여성혐오의 구조가 정해 놓은 의미의 경계를 뛰어넘는 비체이다. ‘퀴어’ 역시 마찬가지다. 퀴어는 이미 퀴어 이론가들에 의해 이성애적 젠더 체계를 뒤흔드는 긍정적인 의미로 재구성된 바 있는데, 이제 페미니스트들은 퀴어의 행위자성을 나라를 바꾸는 것과도 연관시키는 가운데 그 의미를 재구성하고 확장시킨다.

나는 ‘나라를 바꾸는 계집’과 ‘나라를 바꾸는 퀴어’가 보여주는 구조를 뒤흔드는 행위자성이 구조를 달리 이해할 때 가능하다고 본다. 가령 주디스 버틀러의 이론에 따라 구조를 폐쇄적인 체계가 아니라, 비슷한 맥락에서의 반복적 수행에 의해서 지탱되는 것으로 보는 방식은 매우 유용하다. 물론 국가의 제도와 물리력은 ‘여성’의 의미를 비슷한 맥락에서 반복할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사회적 맥락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어머니가 ‘여성’이라는 개념을 체화할 당시의 맥락은 오늘날 딸들이 ‘여성’이라는 개념을 학습하게 되는 맥락과 다르다. 그런 점에서 젠더는 원

본이 있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지만 변화하는 맥락 안에서 모방의 모방을 거듭하는 과정이다. 여성혐오의 구조 역시 그 원본이 동일한 맥락에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변수와 예외적인 상황 등이 중첩되는 사회적 맥락에서 반복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맥락에서 반복하기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한, 혐오의 구조는 유지되기보다 해체된다. 여기서 구조는 폐쇄된 것이 아니라 구멍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의미를 꾸준히 다른 맥락에서 반복함으로써 그 의미를 변화시켜왔다. 가령 동일한 참정권을 주장했던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을 권리의 주체로 담론화함으로써 공적인 거리에 바지를 입고 활보함으로써 불평등의 구조에 구멍을 냈고, 이를 통해 ‘여성’을 둘러싼 의미가 다르게 반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오늘날 촛불집회에서 페미니즘의 이슈를 제기하는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중심적 집회나 시위의 구조가 자신들로 인해 다른 방식으로 반복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계집과 퀴어를 나랏과 연결시켜 반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어진 구조에 파열을 내고자 하는 것이다.



5. 비체들의 페미니즘을 위한 연대

이제 막 시작한 비체들의 페미니즘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변이하고 있으며, 변이의 과정이야말로 페미니즘일 수 있다. 2014년 SNS 상에서 메르스 갤러리와 함께 폭발적으로 등장한 이들은 2016년 현재 다양한 전략과 다양한 이슈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나 급진적 페미니즘으로 포획될 수 없을 만큼 그 전략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페미니즘의 언어를 정립하고 진행되는 흐름이 아니라 제기되는 이슈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언어를 만들어 간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 사람들은 새롭게 등장한 이 페미니스트들을 불편해 한다. 기존의 페미니즘 언어로 잡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강도나 방향을 따라가기도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불편한 마음은 종종 이들에 대한 재빠른 비난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도대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이냐를 재촉하여 묻거나,

그들이 보여주는 비체성이 일관성의 원리를 위배한다거나, 그들이 모든 사람들을 동일화시키려는 파시즘적 욕망을 갖는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멀리 지켜보면서 이들을 평가하거나 비난하기 전에 어떻게 이들이 경계 넘기를 하는지, 어떻게 변이를 해 나가는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이들이 변이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그 이유들을 살펴볼 때, 비로소 소란스러운 페미니즘 연대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

글을 쓴 이현재는 여성철학 전공자로서 현재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HK교수로 재직하며 혐오, 로맨스와 친밀관계, 페미니즘 정치경제학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최근 저서로는 『여성혐오, 그 후: 우리가 만난 비체들』(들녘, 2016)이 있으며, 공역으로는 『그따위 자본주의는 벌써 끝났다』(김순-그레엄, 알트, 2013)과 『불평등과 모욕을 넘어』(낸시 프레이저 외, 그린비, 2016) 등이 있다.

YWCA 운동은
왜
여성주의
운동인가

기획 1

YWCA 운동의 역사와 여성주의

Y운동은 왜 여성주의 운동인가

최형미

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위원, 여성학자



1. 다양한 여성운동들

1) 여성주의의 부흥, 2016년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느 날 신촌 거리에 내걸린 성형외과 광고문이다. 시몬드 보봐르가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여성다움이라는 규범에 도전하고 자유를 획득하려 했던 주장이 21세기 한국 사회에 들어오니 또다시 여성외모차별의 도구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역전을 가능하게 한 우리나라는 어떤 사회란 말인가?

강남역 화장실의 여성 살해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살인의 추억으로 영화화된 화성연쇄 살인사건은 여성들만 연쇄적으로 살해된 사건이었다. 스무 명을 살해하고 검거된 유영철은 “이 계기로 여성들이 함부로 행동하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라는 인터뷰를 했다. 페미니스트가 싫어서 IS가 되었다는 김군의 발언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방송인 김태훈은 “IS보다 무뇌아적인 페미니즘이 더 위험하다.”고 말함으로써 여성주의의 혐

오가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기독교 영역에서의 여성차별은 셀 수가 없을 정도이다. “여성목사들은 원한으로 꽉 차 있어 마치 불독처럼 생겼지”라고 한 특정한 감리교단 종교지도자의 발언은 동료 여성목사들이 겪는 차별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시하는 비도덕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시대를 오히려 다시 찾아온 ‘여성주의 부흥기’라고 말하고 있다. 왜일까? 아마도 무엇이 폭력적이고 여성혐오인가를 대중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것 같다. 게다가 올해 인문학관련 베스트셀러 50권의 도서 목록 가운데 여성학 관련 도서가 무려 스무 권이나 올라가 있고, 인터넷서점 알라딘 집계에 의하면 여성학 분야 판매도서가 2010년과 견줄 때 2.5배나 증가했다고 한다.¹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평등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올해 우리나라는 여성혐오 담론과 그것을 미러링한 메갈리아 논쟁으로 시끄럽다. 특히 메갈리아를 여성 일베라고까지 부르며 그들의 호전적이고 도전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만들어진 지 고작 3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15년간 지속된 소라넷²을 폐쇄시켰고, 여성혐오 담론을 만들어 내던 일베와 미러링 방식으로 설전을 벌여서 일베가 치졸하고 위험한 단체임을 대중에 알리는 일들을 하였다. 그들은 여성이슈를 단순화시켜 대중의 호응과 반대를 동시에 받고 있다.

그러나 종종 사람들이 내게 질문을 던졌다. “여성주의자로서 당신은 메갈리아에 동의하는가? 그들은 너무 폭력적이지 않는가?” 이때 나의 대답은 “Yes and No”이다. 메갈리아가 우리 사회의 여성혐오에 관해 경종을 일으켰다는 점은 놀라운 활동이다. 그러나 내 마음 저 끝에 던지고 싶은 말이 있었다. “그게 전부는 아니다. 메갈리아가 모든 여성주의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여성주의는 훨씬 더 다양하다”.

메갈리아의 열정적인 활동을 보면 1970년대의 서구 여성주의 운동이 떠오른다. 그들은 ‘낙태의 권리’를 주장했고, 미혼모의 모성을 존중했으며, 사적인 일이

1. http://www.huffingtonpost.kr/2016/03/07/story_n_9396630.html, <허핑턴포스트>, “페미니즘 도서, 열풍을 일으키다.” 2016년 3월 17일.

2.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음란 사이트, 100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었다.

라며 은폐되었던 성폭력, 가정폭력을 토론의 장으로 가져왔고, 사소하게 여겼던 수많은 관행들이 성차별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그들은 어떤 형태의 성차별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강한 투사들이었고, 불편할 정도로 급진적이었다. 바로 그 불편한 급진성 때문에 후대 여성들이 무엇을 하든 훨씬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70년의 여성주의가 황금기를 지나 어떻게 변화를 겪었는가를 이야기하려 한다. 즉, 정치적 의제가 분명했고, 그래서 어떤 비판도 혹은 다른 목소리도 허용하지 않을 것 같았던 제2세대 여성주의가 그 폭을 넓히며 변화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려 한다. 비록 현재 한국의 여성운동의 상황과 당시의 상황이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것을 거울삼아 YWCA 운동을 비롯해 현재 한국 여성운동에 대한 성찰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애초부터 YWCA의 활동에 대한 여성주의적 성찰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다양한 여성주의에 대한 고찰을 거울삼아 YWCA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방향 등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2) 서구 제2세대 페미니즘

미 유럽에서는 1970년대를 여성주의 황금기라고 이야기 한다. 베트남 전쟁 이후, 인종차별운동, 노동운동, 프랑스 6.8혁명과 더불어 여성운동이 등장했고, 이에 따른 여성이론들이 활발하게 발전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몇몇 이론들을 소개하여 당시 여성운동이 문제제기 했던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자 한다. 베티 프리단(Betty Friedan)은 『여성의 신비(Feminine Mystique, 1968)』에서 당시에 가장 이상적 여성의 삶을 살고 있다고 여겼던 중산층 가정주부들의 삶에 대한 언급을 한다. 당시 중산층 여성들은 전쟁 이후 부유해진 미국에서 모든 것을 갖추고 살아가고 있었다. 넓은 집, 정원, 아이들, 남편, 이웃들. 그러나 프리단은 중산층 여성들이 ‘이름을 알 수 없는 병(unnamed disease)’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어머니, 아내로서의 삶이 아니라 자신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주장했다. 그의 책은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켰다. 모든 여성들은 ‘경제적 독립을 하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적인 공간에서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home sweet home’의 신화는 망상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가정 안에서 나타나는 친족 성폭력, 가정폭력,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노동 착취 등의 이슈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여성들의 거룩한 사명이라고 여겨졌던 모성은 여성들을 억압하는 이데올로기로서 강력하게 비판받기 시작했다. 여성주의자들은 여성들을 창녀와 정숙한 여성으로 구분해서 여성들을 통제했던 섹슈얼리티에 반대했다. 그리고 여성들의 성적 자기 권리나 몸에 대한 권리 등의 이슈는 도덕, 섹슈얼리티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제기하게 했다. 이 시기는 남성 중심으로 쓰였던 인류사를 여성의 관점에서 다시 쓰는 혁명적인 시기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여성들의 관점에서 가족, 섹슈얼리티, 모성, 돌봄 노동, 정치, 시민권 등은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다. 오랜 억압을 뚫고 나온 여성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곳에도 없는 듯했다.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은 무지와 아집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3) 흑인 여성주의의 등장 그리고 다양한 여성주의들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던 여성운동을 공격한 것은 단지 치졸한 마초 남성들만 이 아니었다. 흑인 페미니스트들은 서구 백인 여성주의자들을 기회주의자들이라고 비판했다. 남성들을 제치고 정치적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여성들을 모아놓았지만 흑인들의 현실을 여성운동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흑인 여성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당당하게 이야기 했다. ‘백인 여성들은 자신들을 약한 여자로 취급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해 달라고 했지만 흑인여성들은 다르다’. 흑인 여성들은 이미 남성들과 똑같이 힘겨운 노동시장에서 남자처럼 일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매트리스 공장이나 기업형 농장에서 남성처럼 일해야 했고 남성들과 똑같이 힘을 써야 했다.

당시 많은 백인 여성운동가들은 가족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가부장제 가족제도는 여성과 남성들의 위계를 공고히 했으며, 그 안에서 생겨나는 착취와 폭력을 ‘친밀감’이라는 이름으로 덮어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흑인 여성들은 가족에 대한 입장에서도 백인 여성들과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인종차별 사회에서 그나마 가족은 유일한 안식처라는 것이다.

백인 여성주의자들에 의해서 모성에 대한 비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지만 흑인

들은 인종차별로 고통 받는 자녀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모성 그 자체가 그 사회에 대한 저항이었고 흑인 사회를 지키는 자원이었다고 주장한다. 백인 여성들은 자신들도 성적 욕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흑인여성들은 동물적 욕망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취급되었다. 흑인 여성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다른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여성운동에 동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스스로를 '우머니스트(Womanist)' 라고 다르게 명명해 구분지었다.

흑인 여성주의의 등장은 '강력한(정의의) 목소리'에 주목 들지 않고,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백인 여성들의 이론은 완벽해 보였지만 흑인 여성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솔직하게 말함으로써 백인 여성들의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 데 성공했다. 여성주의가 막연한 관념에 머물지 않고, 여성들의 구체적인 삶을 반영하게 될 때 기존 여성주의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흑인 여성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대담하고 솔직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한동안 여성주의를 혼란에 빠뜨렸다. 함께 힘을 합쳐도 부족할 마당에 여성주의 안에서 혼란과 분쟁이 일어난 것은 마치 여성주의는 이미 정치 운동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까지 일게 했었다. 그러나 혼란은 오히려 여성주의가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다. 흑인 여성주의자들의 주장은 이제껏 침묵했던 여성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한 것이다. 여성주의는 이제 다양한 여성들의 공존을 고민하며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오늘날 YWCA 운동에 질문을 던진다.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여성운동의 이데올로기를 막연하게 따를 것인가? YWCA 운동만의 특성이 무엇일까?

4) 다른 목소리로 - 캐롤 길리건

서구 여성주의는 특히 가부장제 사회에서 찬양하고 강조했던 모성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했다. 여성들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대가없이 주지만 할 것을 강요했고, 가정에 묶어 고립시켰다. 기업은 여성들을 어머니나 가정주부로 부르며 반찬 값이나 주면 된다고 여기며 값싸게 노동을 착취했다. 사회는 여성들에게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부여했지만 권리와 권력을 부여하지 않아서, 여성을 약하고 무력

한 어머니로 만들어 버렸다. 만약 여성들이 사회가 요구한 대로 모성을 수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범죄자이거나 학습 능력이 떨어지거나 사회적으로 실패한 경우, 심지어 아이들이 장애가 있을 때도 그 모든 책임과 비난은 어머니에게 돌아갔다.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모성은 찬미된 듯 했지만 철저하게 여성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기제였다.

여성주의 안에서의 너무나 많은 모성비판은 마치 모든 여성주의가 모성을 비판한다고 여기게까지 하였다. 여성주의에 동의한 많은 여성들은 모성을 비판했고 어머니가 되기를 거부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동시에 모성을 수행하는 많은 여성들은 모성을 비판한 여성주의에서 등을 돌리기도 하였다.

발전심리학자이며 페미니스트인 캐롤 길리건은 1982년에 『다른 목소리로(In a different voice)』라는 책을 내놓았다. 그는 남아들과 여아들의 도덕 형성과정을 연구하였는데, 남녀가 문제 해결 방식이 다르다는 주장을 하였다. 남아들은 이성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한편, 여아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성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돌봄의 성향'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타인을 고려해서 판단하며 돌보는 특성을 가졌다고 주장한 길리건은 또다시 많은 여성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지지는 여성들 간에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길리건 이후에 여성들의 문화, 여성들의 차이에 관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등장하였다.

길리건은 그러나 또다시 여성들을 '돌보는 존재'로만 보는 본질주의로 되돌린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즉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과의 분리가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을 만들어 냈는데 또다시 그것을 주장하느냐는 비판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것은 조금 더 신중한 문제다. 인간의 본질론은 사실상 논외 불가능한 것이고(비트겐슈타인), 따라서 여성성과 남성성이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라는 논의는 무의미하다. 그러나 지배와 정복의 프로젝트에서 배제되며 성장하는 여성들은 삶 속에서 공감과 관계성에 집중하고 돌봄을 익히며, 그러한 여성성을 내적으로 더욱 성장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길리건의 연구에서 나타난 여성성의 특성을 본질주의라고 쉽게 비판만 할 수는 없어 보인다.

5) 에코페미니즘

사람들은 흔히들 여성들이 하는 환경운동이 에코페미니즘이냐고 묻곤 한다. 에코페미니즘의 시작은 자연 훼손이 전 인류에게 심각한 재앙이 될 거라는 자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초기 에코페미니즘은 자연과 여성과의 관계성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 들어서 자연이 이기적 남성적 개발담론에 의해서 착취되는 상황이 인류사에서 여성들이 착취당하는 상황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생물과 무생물들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주는 자연의 모습은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낳고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어머니의 모습과 같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에코페미니즘은 특히 자연과 속성이 비슷한 여성들의 어머니성을 강조한다.

바로 이런 출발 배경은 몇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또다시 여성의 돌봄과 모성을 강조하여 가부장적 지배이데올로기를 소환하는 보수적 담론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혹은 에코페미니즘이 여성들의 돌봄과 모성을 강조해온 본질주의로 다시 돌아간다고 비판한다. 마치 에코페미니즘은 아들의 편을 드는 시 어머니의 귀환인 듯, 혹은 여성의 미덕은 섬기는 일이라며 여성들을 다시 부엌으로 밀어 넣는 것처럼 이해되기도 한다. 게다가 힘겨운 싸움으로 이루어 온 성평등적 변화를 무력하게 하는 중산층 페미니즘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일기도 한다.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오해를 풀기 전에 우선 서구 제2세대 페미니즘의 한계에 관해서 각을 세워 언급해야 할 것 같다. 이번에는 좀 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차이를 언급하려 한다. 서구 페미니즘은 평등과 자유라는 근대의 개인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등장했다. 즉 모든 인간이 평등하니 여성들도 평등과 자유를 획득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완벽해 보였다. 여성들은 거침없이 남성들에게 뒤지지 않음을 증명했고, 정치 경제 문화 영역 등에서 여성들의 파워를 증명해 갔다. 따라잡기 페미니즘('catch up' feminism) 혹은 끼어들기 페미니즘이 나름대로 성공을 이룬 것 같았다.

그러나 이것은 경쟁력을 갖춘 소수 여성들의 성공이었다. 집안 배경이 좋든, 혹은 머리가 좋든, 아니면 특별히 복지가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든지 간에 말이다. 경쟁적 사회 속에서 여성들의 노동조건은 더 나빠졌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직장을

다니는 대부분 여성들은 저임금의 비정규직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제3세계 여성들의 노동착취는 더 심각해졌다. 스리랑카 여성노동자의 경우 한 달에 70달러를 받고 하루 종일 옷 공장에서 일을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청바지 하나를 살 돈도 벌지 못한다. 노동시장의 악화는 성매매시장의 증가를 일으켰다. 다국적기업이 더 값싼 노동시장으로 빠져 나갈 때 그 지역의 성매매 여성의 숫자는 놀랍도록 증가한다. 남성들을 따라잡고 평등을 획득하라고 하는 여성주의는 결국 경쟁력을 갖춘 여성들을 끌어 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많은 다수의 여성들을 무력하게 했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다. 남성적인 경쟁과 위계사회를 온존시킨 채 유포된 평등과 자유의 메시지는 경쟁에서 낙후된 많은 여성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니 페미니즘이 유포되었는데 여성들의 삶이 개선되지 못하는 야릇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에코페미니즘은 끼어들기 페미니즘이 아니다. 만약 제2세대 페미니즘이 기존의 위계적인 남성 세계관 위에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했다면 에코페미니즘은 새로운 세계관을 찾고자 했다. 개인주의적이고 원자주의적인 인간관에 입각한 경쟁적인 방식이 아닌 새로운 가치와 세계관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인간뿐 아니라 자연과 비(非)자연도, 중산층 여성뿐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평등에 대한 급진적인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이다.³

경쟁적인 세계관의 기원을 흔히들 뉴턴의 기계론적인 세계관에서 찾고 있다. 뉴턴은 근대세계의 가치와 세계관을 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모든 우주가 하나의 원자적 개별체로서 기계적으로 힘의 역학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이론을 발표했다. 힘이 지배하는 원자적 세계라는 뉴턴의 세계관은 과학뿐 아니라 사회 문화 그리고 인간의 가치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강한 인간이 약한 인간을 지배하고 삼켜버리는 것은 당연한 본성처럼 받아들여졌다. 생존의 유일한 방식은 먹이지 않기 위해 경쟁에서 이기고 강해지는 것이 되어버렸다.

3. 이사야서 11장 6절~9절: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었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짐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짐승이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을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여전히 근대적 기계론의 세계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에코페미니즘의 급진적 평등사상은 다소 망상처럼 혹은 헛된 꿈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에코페미니즘의 등장은 지적 유희가 아니라 생존에 대한 깊은 고민 가운데 등장한 이론이며 세계관이다. 인류가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모두가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이해에 기반을 둔다. 에코페미니스트들은 단지 자연과 생명의 외연뿐 아니라 그 생명이 유지되는 방식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리고 자연이 살아가는 방식은 지배가 아니라 생태적 공존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것을 새로운 가치관의 프레임으로 가져오게 되었다. 경쟁적이고 기계적인 가치에 침윤되어 버린 사람들에게 생태적 세계관이 냉소적인 공격을 받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생태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일 날이 올 것이다.

생태적 세계관이란 한마디로 다양한 존재들이 공존하는 세계를 말한다. 즉 인간, 식물, 동물, 비생물체까지도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서로에게 의존되어 있다. 서로의 생존이 각각의 생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네가 멸절될 때 결국 나도 멸절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타자의 활발한 생명성이 바로 나의 생명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타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타자와 함께 공존하는 것이 이것의 생태계의 생존방식이다. 권리와 자유에 기반을 둔 개인주의가 제2세대 페미니즘의 기본 철학이었다면, 유기체로서 타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공존하는 공동체주의는 에코페미니즘의 세계관이다.

6) 여성운동은 다양한 길이 있다.

전반부에서는 필자가 주장한 것은 여성주의는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그들이 처한 사회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자신들만의 여성주의를 만들어 내고 있다. 단지 다양함이 여성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운동의 전략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이해에 따라서 전략이 바뀐다. 앞서서 언급했던 '흑인 여성주의자'들은 스스로를 흑인이며 여성이라는 복수의 정체성을 함께 가져왔다. 이러한 복수의 정체성은 백인 여성주의자들과 다른 여성주의 입장을 만들었다.

에코페미니즘의 경우에 여성들은 스스로에게 '지구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했다. 자연의 일부로서 남성과 여성뿐 아니라 자연과 비생물체와도 함께 더불어 공존해야 하는 '지구민주주의(earth democracy)를 구현하는 전략을 찾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인간이 독점적으로 타생물을 멸종시키지 못하도록 생태계를 보호하고,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이 독점적으로 지구 경제체계를 교란시키지 못하게 경제정의를 구현하는 일들을 한다. 에코페미니즘은 이런 점에서 끊임없이 약하고 아픈 고리에 관심을 갖는다.

이처럼 무슨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여성운동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YWCA는 '기독교, 여성, 한국인, 국제 시민, 시민운동가' 등 다양한 정체성을 운동의 기반에 두고 있다. 이러한 정체성은 유동적으로 때론 국가 정체성이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때론 기독교 정체성이 불거져 나오기도 하고 때론 여성 정체성이 나오기도 하고 때론 국제 시민의 정체성이 등장하기도 한다. 여러 가지 정체성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잡한 정체성이 어떻게 YWCA의 운동의 독특성을 구성하였는지를 살펴보고 고 한다.



2. 에코페미니즘과 YWCA 여성운동

기독교인이며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YWCA 여성운동은 특히 여성주의 안에서 에코페미니즘과 공통점을 나타내고 있다. 에코페미니즘이 제안하는 지구생물들의 생태적 공동체 가치관은 YWCA가 지향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철학과 만나고 있다. 또한 운동의 방식에서 자신의 권리 운동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 운동을 통해 정의와 평등을 회복하려는 전략도 유사하다. 이런 전략 가운데 특히 '어머니 호명'은 공동체 운동에서 중요한 호명의 정치학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 사상적 배경: 에큐메니칼 운동과 에코페미니즘

기독교인이 여성주의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이들은 남성 중심적인 교회와 가

부장적 신학이 지배하는 보수적 기독교를 보면서 ‘여성주의자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곤 한다. 그러나 되돌아 살펴보면 필자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여성주의자가 되었을까? 의문이 인다. 내가 배워왔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고, 약자를 보살피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사람들을 묶아매는 모든 종류의 우상에 저항하며 창조주가 허락한 삶의 자유를 기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와 민주화시기에 전파된 기독교의 평등과 정의 의식은 필자뿐 아니라 많은 여성들의 의식을 변화시켰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인들은 여성주의가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는’ 이기적인 사상이기에 자기중심성을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는 기독교 사상과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YWCA 운동의 정신의 자원이었던 에큐메니칼 운동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에큐메니칼이란 이세상의 모든 인간과 피조물들이 창조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졌으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해방을 통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에큐메니칼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과 생명체가 화해하고 해방되어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실현하는 것을 지향한다.” (박재순, 2005 필자의 수정 해석 첨부)⁴

에코페미니즘은 이세상의 모든 존재가 평등하며 상호 차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공존하는 세상을 꿈꾼다. 즉 이것을 지구민주주의라고 부르며, 이들 사이에는 사랑과 존중, 그리고 배려하는 관계가 중요한 공존의 원리가 된다. 이것은 동시에 타자의 생존이 바로 자신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생명에 대한 감수성과 책임감이 중요한 정치적 원리로 작동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코페미니즘의 철학은 에큐메니칼 운동과 너무도 유사하다. ‘모든 인간과 생명체가 화해하고 해방되어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을 신앙의 이상으로 삼는데 이것은 동시에 인간과 모든 생물체가 건강하게 공

존하는 것을 꿈꾸는 에코페미니즘의 이상사회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에코페미니즘은 개인 하나가 경쟁적으로 이겨서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것은 운동에서 연결과 화해를 중요하게 여겼던 YWCA의 기독교 실천주의와 일맥상통한다.⁵

2) 공동체 운동

철학자 정대현은 21세기를 이끌 여성주의로서 ‘에코페미니즘’을 제안한다. 그는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제 2세대 여성주의는 권리 중심적 여성주의였으며, 이것은 여전히 경쟁력이 약한 많은 소수자들과 평등을 나누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여성주의가 확산되었지만 여전히 더 많은 여성들의 삶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공동체운동이란 나의 권리를 위한 운동이 아니라는 뜻이며, 획일화된 공동체의 가치를 확산하자는 의미도 아니다. 각각 개성이 있는 개인들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태적 공동체를 말한다. 이러한 공동체는 모두가 소중하며 이들 간의 위계적 배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정치적 실천으로 나아갈 때는 사회 안에서 어떤 형태의 위계에도 저항하며, 공존을 교란시키는 어떠한 획일하고 유일한 폭력에도 저항한다.

YWCA는 성평등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권리 중심적 전략보다는 ‘공동체적인 이념’에 기초한 공동체 운동을 진행하였다. 즉 그 시대의 타자로 불리는 소수자, 약자들을 치유하고 보살피는 실천적 정의 운동을 진행하였다. 유성희는 이것을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⁶라고 명명한다.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와 상황을 운동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은 운동에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실천되었다. 이것은 YWCA가 여성운동으로서 계몽적인 위치에서가 아니라 기층여성들을 실천의 주체로 세웠다는 말이다. 1970년대부터 YWCA는 저소득 계층 여성들을 위해 직업을 발굴하였다. 예를 들어서 가정부를 파출부로 명칭을 바꾸어서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취업의 길을 열어주었고 남성들

5. 한국에서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이데올로기의 대립, 남북 대립, 지역적 대립 등은 화해와 연결이라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쉽게 회색분자로 폄하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이다.

6. 유성희, 『한국YWCA 운동의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에 관한 연구 - 정체성·조직·리더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논문. 2013.

4. 박재순, 2005, 『한국 에큐메니칼 운동의 전통과 신학적 유산』 『神學 思想』128p.

위주의 도배 분야에서 여성들을 훈련시켜 내보냄으로써 여성들의 수입을 다섯 배로 증가시키는 일도 있었다.

여성운동은 두 가지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 당장 현실에서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과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불평등을 만들어 내는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Y는 스스로 비정치적이라는 전략적 위치를 규정하고 정치에 거리를 두려고 하였다. 그러나 발전 이데올로기 속에 착취된 여성노동자들과 함께하려 했던 그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3) 어머니 운동

한국 여성운동 안에서 ‘모성’은 불편한 호칭이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어머니라고 불리는 순간 그는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감당해야 하며, 자식을 낳고 잘 길러야 할 의무를 전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자가 아니라 아이들 반찬값 정도 벌기 위해 나온 비숙련공 취급을 당해왔기 때문이다. 제2세대 여성주의는 ‘모성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여성 억압적인지를 비판해 왔다. 그런데 그토록 오랫동안 서구 여성주의가 반대했던 어머니 호칭을 왜 YWCA는 운동의 전면에서 사용하였을까?

‘어머니’라는 개념은 단지 남성 지배자들에 의해서 여성을 종속시키는 개념으로만 쓰인 것만은 아니다. 여성들이 미래세대를 위한 공동체 안위를 위해 나설 때 특히 ‘어머니 운동’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어머니 운동은 개인권리 운동의 정치적 호명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에 기반을 둔 이웃사랑이라는 공동체적인 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YWCA의 운동 전략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최근 YWCA는 탈핵운동을 할 때 이것을 어머니 운동이라고 명명하였다. 어머니는 시위자가 아니라 보호자이며(Not protester, but protector), 이것은 정치적인 의도로 하는 운동이 아니고 우리 사회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운동임을 강조하는 명명임을 알 수 있다.

어머니 개념은 ‘약자를 보호하는 자’라는 의미 형식을 갖는다. 이 세상에는 자식 없는 사람이 많아도 어머니 없는 사람은 없다. 우리 대부분은 어머니에게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머니는 대가없이 주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여지게 된

다. 이런 점에서 어머니 호명은 대중성을 확보하는 데 유용하며 사회적 약자의 문제에 대한 발언의 정당성을 갖게 된다. 모성이 국가나 그 사회에서 주로 여성을 통제하는 전략으로 사용되었지만, 이것은 동시에 다양한 여성운동 집단에서 운동의 기반으로 내걸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에서는 반정부 운동에 가담했던 청년 3만 명이 사라졌을 때, 5월의 광장에 모여 어머니들이 시위를 하였다. 그들은 세계의 주목으로 받았고 시위는 확장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물가가 4배로 뛰어오르자 이것에 항의한 어머니 운동은 결국 32년의 군사독재 수하르트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여성운동의 역사 속에서 어머니 호명은 자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는 방사능에서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차일드세이프’, 세월호 진상을 밝히겠다는 ‘엄마의 노란 손수건’ 등이 있다.

YWCA는 때때로 자신들의 운동 동력을 ‘어머니’의 정체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것은 더 많은 다양한 여성들과 함께 사회적인 약자 편을 들어서 공동체를 살려내려는 어머니의 입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4) YWCA 운동은 에코페미니즘 운동이다.

필자는 YWCA가 여성의 인권을 증진하는 운동이었던가를 성찰하기 위해서 1970년대 서구 여성주의운동과 그 이후에 등장한 다양한 여성주의운동을 살펴 보았다. 이때 다양한 여성주의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따라 자신들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미 YWCA는 기독교 정체성과 여성 정체성 그리고 국가 정체성과 세계시민 정체성을 갖고 있기에 다른 여성들과 차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대가 위급할 때 국가 정체성에 의해서 민족운동에 가담하기도 하였지만 최근에는 기독교 정체성과 여성 정체성이 중요하게 운동에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는 특히 여성운동 역사를 통해 YWCA의 여성 정체성의 문제를 살펴 보았다. 동시에 다양한 여성운동의 흐름 속에서 YWCA 운동과 유사한 여성운동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에코페미니즘이다. 에코페미니즘의 생태적 세계관과

YWCA의 기독교 세계관은 너무도 유사하다. 혹자는 기독교가 자연을 정복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정복과 지배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기독교 신학은 끊임없이 당대의 문화와 시대정신에 의해서 변화와 변혁을 시도하여 왔다. 특히 YWCA의 운동 기반이 되었던 에큐메니칼 정신은 피조물들간에 화해를 통해 평화로운 공존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에코페미니즘과 철학적 기반을 공유한다.

또한 YWCA가 신앙에 근거해 약자를 돌보며 사랑의 원리를 확산하고자 했던 운동의 전략은 에코페미니즘의 전략과 유사하다. 즉 폭력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위계도 거부하고 상호 공존을 목적으로 하고 타자의 생존을 자신의 생존으로 여기는 존재론적인 책임감을 갖고 있는 에코페미니즘은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기독교 정신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YWCA가 벌여온 어머니 운동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자들을 살피려는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행위이다. 이것은 에코페미니즘의 어머니 이해와 유사하다. 즉, 에코페미니즘은 관계를 살펴 돌보는 여성들의 모성이 21세기의 여성주의의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 때문이다.

.....

글을 쓴 최형미는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석사논문 「어거스틴의 사랑론」을 썼으며, 영국 York대학 여성학과에서 석사논문 「New way of Thinking for Contemporary Housewife」을 썼다. 현재 이화여대 여성학과에서 ‘인도네시아 여성운동’을 주제로 박사논문을 쓰고 있다. 여성학 강사와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며 YWCA 생명비전연구소 위원을 맡고 있다.

기획 2

여성이 앞장서 온 탈핵운동

탈핵운동은 왜 여성주의운동인가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부장



1. 들어가며 - 여성들이 탈핵을 ‘말한다’는 것

여성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이른바 ‘여성혐오’의 이미지와 폭력이 넘쳐나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소득수준은 OECD 10위권 안이지만 성평등지수가 115위로 거의 세계 꼴지 수준인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누군가를 향해 주장하고 설득하고 설명한다는 것은, 무시나 거절, 반박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며 여전히 많은 용기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일이다.

이들테면 횡단보도 앞에서 담배를 피는 남성에게 ‘담배를 꺼줄 것’을 요구하는 일이나 갑자기 끼어드는 남성 자동차 운전자에게 ‘조심할 것’을 요구하는 일도 여전히 “건방진 년”이나 “술뚜경 운전이나 해라” 등의 멸시와 조롱이 되돌아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일이다.

그런데 하물며 여성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국책사업인 핵발전소를 “없애자”고 주장할 때는 어떨까?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 밀집지역인 부산, 울산, 경주 일대에 강진이 일어나고, 활성단층인줄을 알면서도 버젓이 핵발전소를 짓고 가동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의 공포로서 사람들을 실감케 하는 요즈음이지만,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탈핵’을 주장하는 일은 엄청난 끈기와 인내를 각오하는 일이었다.

YWCA가 매주 화요일 탈핵 불의날 캠페인을 전개할 때면 시민들로부터 지지와 격려도 많이 받지만 때때로 “여자들이 참 시끄럽다” 혹은 “여자들이 전기를 알아?”라는 조롱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지 알기는 아냐 우리나라는 원전 없으면 안돼”, “감정적으로 그러지 말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판단해 봐라” 라는 충고까지, 여성들이 목소리 높여 외치는 것에 대한 남성들의 불편함들이 종종 표출되곤 한다.

이런 남성들의 무시, 조롱, 충고 등은 전형적인 성차별의식, 즉 ‘여성은 잘 모른다’는 편견의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실제 수많은 탈핵강좌를 듣고 탈핵공부모임에서 공부하고 활동한 탈핵캠페이너가 우리나라의 전기에 대해, 그것이 만들어지고 수송되고 소비되는 시스템 속에 벌어지는 수많은 희생과 부정의에 대해 설명을 해도, 그것은 신뢰할 수 없는 여성의 지식일 뿐이다. 그나마 들어주면 다행이고 때때로 “어따 대고 여자들이 설명을 하고 난리야”라는 항의를 받을 때도 있다.

“무턱대고 없애라는 건 뭐야? 대안이 있어야 할 거 아냐”라는 항의에 “태양광 발전 등의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가는 로드맵이 있고, 이미 독일사회는 그것에 성공하고 있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모르는 소리 말아라”라고 욕박지르는 태도는 수그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여성이 어떤 주제에 무지하다는 것을 항상 기본 전제로 삼으며, 여성들을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 심지어 여성이 더 해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결코 가르침을 멈추지 못하는 남성들의 행위를 일컬어 ‘맨스플레인(mansplain)’이라 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환경 평화활동가이자 문화비평가인 레베카 솔닛(Rebecca Solnit)이 발표한 저서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Men explain things to me)』(김명남 역, 창비, 2015)에서 유래한 이 말은, 여성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설명이나 설득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이 얼마나 남성중심사회의 도전과 저항이 될 수 있는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즉 남성의 지식이 하나의 표준이고 남성의 언어와 설명이 절대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자신의 생각, 지식, 경험과 느낌을 주체적으로 표현하는 일은, 여성들의 지식과 생각도 존중될 만한 것이며, 여성들의 그것을 세상에

전달하고 외칠 권리가 남성들과 똑같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것이다.

YWCA의 탈핵 불의날 캠페인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탈핵운동은 이렇게 ‘여성 혐오’의 수위가 높아가는 한국사회 속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발화(發話)’의 주체, 설명의 주체가 되는 ‘성평등’ 운동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남성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탈핵운동에서의 여성들의 ‘감정적 대응’, 월성핵발전소 핵폐기장이 있는 경주에서 현재까지 560여 회의 지진이 일어날 때 느끼는 여성들의 불안과 공포, 그리고 그것을 “월성핵발전소 즉각 폐쇄하라”고 주장할 때의 그 민감성과 절박한 행동들은 또 단순히 ‘성평등’의 차원을 넘어선 ‘생명’과 ‘안전’을 향한 것이며, 돈과 이윤을 위한 행위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 시대의 가치에 도전하는 일이 된다. 이런 생각과 태도, 가치를 일컬어 생태여성주의(에코페미니즘: ecofeminism)이라고 한다.

여성들이 ‘탈핵’을 요구하며 외치고 주장하고 설명하는 일은, 그 행위의 성평등성을 넘어서 그 동안 ‘과학’, ‘개발’, ‘국가발전’, ‘경제발전’ 등의 가치를 내걸고 주로 남성들이 참여해 이루어진 핵발전 프로젝트를 이제 그만하라는 것이며, 여성들이 삶의 경험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생명, 안전, 지속가능성, 순환, 다양성, 정의 등이 실현되는 세상을 열망하는 일이기도 하다.



2. 생명 파괴와 위협에 저항한 여성들

2016년은 체르노빌 핵사고가 일어난 지 30주년, 그리고 후쿠시마 핵사고 5주년이 되는 해였다. 체르노빌 대재앙이 일어난 후 유럽 전 지역과 미국, 일본 등에서 활발하게 탈핵운동이 일어났지만, 우리나라까지 그 영향이 활발히 미치는 못했다. 그러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연이어 일어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인접국가인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가져왔다. 한국의 탈핵운동이 핵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저항운동이 아니라 탈핵의 가치와 의의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대중운동으로 확산된 데에는 YWCA, 탈핵을 열망하는 젊은 엄마들의 모임인 ‘차일드세이프’ ‘한살림’이나 ‘아이쿵’ 같은 생협조직에서 일하는 여성들, 풀뿌리 마을운동을 하는 여성들의 참여가 컸다.

YWCA 회원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한결같이 후쿠시마 핵사고를 보고 ‘본능적’으로 무언가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커다란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는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말한다. 물론 ‘본능’이란 표현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나 여성들은 자신의 삶의 경험 속에서 대체로 환경파괴와 생명에 대한 위협에 민감하다. 역사적으로 지구상에서 일어난 환경파괴를 저지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왔던 것은 자연에 기대어 생명을 기르고 보살펴온 여성들이었고, 이들의 저항은 개발이나 경제발전이라는 가치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가치, 공생, 순환을 지켜내고 확산시켜냈다. 여기서도 여성들은 ‘어리석은’ 여성들을 ‘가르치려’ 하는 남성들에 맞서 자신들이 몸으로 체득한 지식을 당당하게 말하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다해 저항해냈다.

다국적기업의 히말라야 숲의 파괴에 맞서 마을 여성들이 나무를 끌어안고 벌목 기계톱에 저항하면서 숲을 지켜낸 인도의 칩코운동은 그 대표적 예다. 1970년대 인도 칩코운동에서 남자들이 “이 어리석은 여자들아! 숲의 가치를 도대체 알기나 해? 송진과 목재 그리고 외화를 생산하는 곳이야”라고 욕박지를 때 여성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숲은 우리의 어머니, 흙과 물과 깨끗한 공기라오. 흙, 물, 공기는 지구와 지구가 품는 모든 것을 보존하지. 식량이 떨어질 때면, 우리는 이 숲에 와서 풀과 열매를 모아다 우리 아이들을 먹여 살렸다고. 당신들은 이 나무에 손끝 하나 댈 수 없소!”라고.

숲이 단기적인 개발이익을 가져다주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목숨과 연결된 수많은 생명들의 터전이라는 것을 여성들은 삶 속에서 체득했던 것이다.

1970년대 인도여성들의 칩코운동의 양상과 교훈은 50여 년 지난 대한민국사회에서도 똑같이 되풀이된다. 신고리핵발전소 3, 4호기 가동을 위해 폭력적으로 진행된 밀양송전탑 건설과 이에 맞서 포크레인에 쇠사슬을 묶어 맨몸으로 저항했던 밀양할매들은 프레스펜치로 목에 감은 쇠사슬을 끊어내는 한전직원을 향해 이렇게 외친다. “이 할매는 참으로 궁금하다. 느그는 느그들 한평생을 돈으로 바꿀 수 있나? 대대로 이어온 고향마을을 돈으로 팔아넘길 수 있나? 금수강산 다 망쳐

놓고 고향마을 다 찢어놓고 느그는 어데 기대 살래? 어데 기대 살래...”²

개발보상금을 받는 것보다 못생명의 죽음과 그 터전이 파괴되는 것에 저항하는 것에 더 필사적이었던 밀양의 할머니들. 송전탑을 따라가 보니 거기에 많은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핵발전 시스템이 있다는 것과 전기는 그 많은 이들의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할매들의 저항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밀양송전탑건설 반대운동에 연대하고 동참하면서 더 저변이 확대된 탈핵운동은 그렇게 무식한 무지렁이로 여겨진 할매들이 평생의 삶 속에 체득한 삶의 지식, 지혜, 감성, 민감성이 존중받고 확산되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운동이기도 하다.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환경파괴에 저항하여 자연과 생명을 지켜낸 사례는 이밖에도 무수히 많다. 왕가리 마타이라는 여성이 중심이 되어 사막화되는 땅을 푸른 숲으로 일구어 낸 케냐의 그린벨트 운동, 대규모 새우양식으로 파괴되는 맹그로브 숲을 지키고 되살리기 위해 애쓴 에콰도르 빈민 여성들의 운동, 화학독성 폐기물의 피해를 규명하고 화학회사와 맞서싸운 미국 러브캐널 저항운동 등,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은 환경파괴, 생명파괴에 맞서 자신들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다해 저항해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오염된 것을 치우고 파괴된 것을 다시 치유할 때, 여성의 주체적 역할에 대해 폄하하는 남성들의 편견과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일과도 싸워야 했다.

모든 생명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절멸을 가져오는 핵무기와 핵발전소에 대해서도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고 저항해온 사람들은 주로 여성이었다. 1971년 독일 비일 핵발전소 반대운동, 1976년의 독일 브로크도르프 핵발전소 반대운동, 1981년부터 1983년까지 중거리 핵미사일기지에 반대하며 평화캠프를 치고 저항하던 영국의 그린햄 커먼 반핵운동, 1983년 이탈리아 시칠리아 핵미사일기지 건설 반대운동 등 1970년부터 1980년대에 걸쳐 거세게 일어났던 유럽 반핵운동의 중심에는 항상 여성들이 있었다. 핵무기와 핵발전소에 중심적으로 저항한 사람들은 남성들이나 엘리트 여성들이기보다 핵의 위협에 본능에 따라 저항한 마을의 주부, 할머니 등 평범한 여성들이었다.

1. EBS 지식채널 513화, <칩코의 여인>.

2.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 <할매는 궁금하다>.

특히 그린햄 커먼에선 여성들이 아예 장기간 캠프를 치고 낮이나 밤이나 ‘핵미사일로세계가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싸웠고, ‘폭력데모나 하고 지도자 행사를 행세를 하는 남성들을 쫓아버리고’³ ‘인간사슬 잇기’ 등 여성들만의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항을 계속했다.

이러한 반핵운동을 통해 여성운동과 평화운동은 결합하기에 이르렀고 당시에 ‘소년들에게서 총이나 칼 같은 장난감들을 거두자(take the toys away from the boys)’는 페미니스트 반전운동의 슬로건들이 유행했다. 이렇게 환경파괴나 핵의 위협에 저항해온 여성들은 그 과정에서 이러한 위협과 가부장제의 폭력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1980년 3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체제와 여성을 억압하고 멸시하는 가부장제는 같다고 보는 에코페미니스트들이 최초로 모인 ‘지구의 여성과 생명: 80년대의 에코페미니즘에 관한 회의’는 미국 최초의 핵발전소 사고로 기록된 쓰리마일 섬 원자로 노심 용해사건이 계기였다.

여성에 대한 억압이나 폭력이 핵발전소나 핵무기의 위협과 같이 작동된다는 인식은 1983년 시칠리아에서 핵미사일기지에 반대하던 여성들의 다음과 같은 선언에서도 잘 나타난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핵확산과 호전적인 남성문화 사이의 연관, 전쟁의 폭력과 강간이라는 폭력과의 연관을 뚜렷이 알아본다... 남성들 대다수가 즐기는 것 같은 전쟁이라는 무시무시한 놀이가 공격, 정복, 소유, 통제라는 남녀관계의 전통적 경로와 동일한 단계를 거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⁴

1986년 체르노빌 핵참사는 유럽,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핵발전소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운동이 붓물 터지듯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특히 독일에서는 수천 명의 여성이 녹색당의 탈핵운동에 참여했고, 지금까지 핵 발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많은 수가 여성들이다. 그리고 녹색당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의 과반수 이상은 거의 항상 여성들이라고 한다.

3. 유시민, 『거꾸로 읽는 세계사』 푸른나무, 2002.

4. 마리아 미즈반다나 시바, 『에코페미니즘』 손덕수 외 옮김, 창작과비평사, 27p.



3. 방사능 재난 피해의 성별 차이, 방사능과 여성의 삶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핵사고가 일어난 지 올해로 30주년이 되었지만, 주민들의 고통과 상처는 사라지지 않고 더 심각한 형태로 계속되고 있다.

2010년 미국 뉴욕의 사이언스 아카데미는 체르노빌 참사로 2004년까지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발표할 정도이니 10년이나 더 지난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지 상상하기도 버겁다.⁵

호주의 반핵소아과 의사인 헬렌 칼디코프에 따르면 세포분열이 활발한 어린이들이 어른보다 방사능에 20배 이상 민감하고, 아직 의학적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으나 여성들이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방사능에 더 민감하다고 한다. 여성들의 경우 유방암과 갑상선암에 걸릴 확률이 월등히 높다(우리나라 20-30대 젊은 여성들의 갑상선암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가 체르노빌 핵사고의 여파라는 분석도 있다).

아무튼 여성의 몸이 방사능에 더 민감하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떠나, 아이들을 낳고 기르면서 방사능의 영향에 훨씬 민감한 여성들에게 방사능으로부터 오는 고통은 너무나 클 수밖에 없다. 체르노빌 핵사고로 인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갑상선암, 백혈병을 비롯한 소아암, 계속되는 임신부들의 기형아 출산 등, 방사능으로 인해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어린이와 여성들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건강 피해만이 아니라 가족의 치료와 투병으로 인한 실업, 빈곤, 가정불화, 공동체의 붕괴 등 더 복잡한 양상으로 계속된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후쿠시마의 여성들도 체르노빌 여성들과 같은 양상의 고통을 겪고 있다. 방사능 피해에 민감하여 불안해하는 엄마들과 정부정책을 신뢰하는 아버지들의 불화, 오염지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여성과 반대하는 가족 간의 분열 속에서 아이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여성들의 노력은 눈물겹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급격히 늘어난 이혼을 일컬어 ‘재난이혼’ ‘원전이혼’, 혹은 ‘방사능이혼’이라 하기도 한다. 재난에 대처하는 남편들의 모습에 대

5. <한국일보>, 「체르노빌사고는- 체르노빌 30년 후쿠시마 5년 현장리포트」 2016.1.4.

해 여성들이 실망하고, 남편들은 아이 손을 잡고 탈핵집회에 나서는 부인을 보고 “유난 떠다”, “집안을 돌보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급기야 이혼까지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방사능 위험에 민감하여 스스로 안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찾고 행동하는 여성들이 늘어가는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핵발전소가 몇 개인지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던 여성들이, 후쿠시마 핵사고를 계기로 우리 아이들에게 방사능이 어떤 위협을 가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핵발전소로부터 오는 엄청난 방사능 위험 환경에 살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판단하고 또 행동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기자식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행동하는 엄마들을 보고 일부에서는 ‘이기적인 모성’이라 규정하고 심지어 ‘맘충’이라는 비난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단지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만을 고민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 사회의 가치와 구조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가지고 더 많은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행동하기 시작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인터넷을 통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모임을 통해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방사능 감시활동을 펼치고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제정운동 등 탈핵운동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는 ‘차일드세이브’의 최경숙 대표는 이렇게 고백한다.

“엄마들은 좋은 것을 먹고 가르치면 아이를 행복하게 기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엄마가 어떤 노력을 해도 아이가 안전할 수 없다는 처참한 현실을 보여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포감은 엄마로서 엄청난 것이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방사능 물질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⁶

‘모성’과 ‘본능’이라는 동기에서 시작된 여성들의 탈핵운동은 이제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회적 모성’을 바탕으로 지평이 더 확장되어 가고 있다.

6. <여성신문>, 『에코페미니즘으로 세상을 뒤집자- 다른 목소리 내는 여성들이 모인 까닭』, 2016년 9월 16일.



4. 생명과 안전을 선택한 여성들

여성은 생명을 잉태하고 낳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생물학적 육체와, 실제 생명을 낳고 기르고 보살피는 경험을 통해 핵의 위협에 민감하고, 생명을 살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일에 더 절박한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있다.

독일 녹색당 의원인 코딩 울 의원은,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위협에 대해 훨씬 많이 경계하기 때문에 핵발전과 같은 위험 요소들에 좀 더 비판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며, 여성들은 오늘 우리가 내린 결정이 미칠 미래의 영향에 대해 훨씬 신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핵참사를 겪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아이들을 방사능에서 지키는 후쿠시마 네트워크’ 대표 나카테 세이치씨는, 남성들이 여성들을 방사능에 지나치게 민감하다고 비난하고 또 고령화된 상당수 주민들이 ‘안전하다’는 정부의 선전을 신뢰하는 것은 대다수가 엘리트 남성인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이들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자신들의 지위와 기반을 지키기 위해 정보를 은폐하는 ‘엘리트 패닉’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⁸ 정책을 결정하는 대다수의 엘리트 남성들이 생명 가치보다는 경제적 가치나 이윤을 우선시하면서 중앙 정부관료들은 경제적 부담을 내세우고, 후쿠시마현 공무원과 현의원, 그리고 기업들은 지역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경제가 파탄날 것을 우려해 ‘피난’을 꺼린다는 것이다. 나카테 세이치씨는 “지역사회에서의 의사결정자인 중년 남성들이 내리는 결정이 어린이와 여성들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한다.

그에 비해 여성들은 지역의 이권보다 당장 일상생활에 닥친 위협에 민감하다. 후쿠시마 여성들은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체력이 떨어지고 코피를 흘리며 피부에 이상이 생기는 현상을 여성들은 매일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보아야 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꽃을 달고 유모차를 끌고 탈핵집회에 나가서 정부와 지역 사회가 선전하는 ‘안전’과 ‘부흥’에 맞서 제대로 된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키우고 방사능에서 안전한 음식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미 너무나 중요한 저항이 되고 있다.

7. <오마이뉴스>, 권승문, 『독일 여성의 힘으로 탈핵선언 이끌었다』, 2012년 3월 12일.

8. 이유헌, 『후쿠시마 사람들의 행복할 권리』, 『녹색연합 소식지』, 2011년 9월.



5. 마치며 - 탈핵세상, 여성의 힘으로

여성들이 맹렬한 자연 파괴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특히 핵발전소 핵무기의 절멸 위협으로부터 이 세상을 지키려했던 역사들, 그리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대참사 이후 탈핵운동에 앞장서 온 이유는, 생물학적 사회적 조건에서 남성들보다 더 큰 피해자로 위치에 있기 때문이었고, 파괴나 죽음에 대한 민감성,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같은 생물학적으로 여성이고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탈핵운동에 헌신적인 사람들이 다 여성이 아니고, 또 여성이라고 해서 모두 어머니 경험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남성인가 여성인가, 어머니인가 아닌가를 넘어서서 어떤 사건을 겪었을 때 그것이 가져온 위협의 본질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것이 가져올 파국을 막기 위해 행동하고 안전과 생명을 위한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여성들이 역사 속에 오랫동안 중요하게 여기고 몸으로 체득해왔던 가치들, 즉 살림, 돌봄, 키움 등 생명의 가치를 이 세계에 확산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가치가 살아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들의 목소리를 내고, 정치에서 결정권을 획득하여 여성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모든 일이 포함되어 있다.

레베카 솔닛은 “여성주의 싸움에서 핵심과제는 우선 여성들을 신뢰할 만하고 경청할 만한 존재로 만드는 것”⁹⁾이라고 말하였다.

탈핵운동의 과정에서 여성들은 “생명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라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중단하지도 않는다”는 진정성 있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탈핵을 외치는 여성들의 주장이 옳았음을, 그들이 선택이 정당했음을 우리 사회가 조금씩 조금씩 깨닫고 있지 않는가.

여성들의 탈핵운동은 이제 그 힘을 서서히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먼 곳까지 발휘하기 시작하고 있다. YWCA가 앞장서서 이루어낸 고리 1호기 폐쇄는 아주 견고한 핵발전의 강철 벽에 작은 균열을 내었고, 이제 그 균열의 가장자리에서

더 많은 힘들이 보태어질 것이다.

언제 어떤 핵사고가 날지 알 수 없는,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이윤이 우선되는 이 불안한 시대를 다시 생명의 시대로 일구어낼 힘과 지혜는 바로 우리 여성들 안에 있다. 그 힘을 믿는 것, 그것을 동력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여성주의이다.

.....

글을 쓴 이윤숙은 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다. YWCA에서 핵발전소에서 벗어난 자유롭고 생기있는 사회를 상상하며 탈핵운동을 해왔다. 생명을 살리는 여성의 깊은 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에코페미니스트 공동체 꿈지모(꿈꾸는지렁이들의모임) 활동을 해왔으며, 미국과 일본 등을 돌아다니며 여성의 영성과 몸에 대한 공부도 했다. 일상에서 느리고 충만한 생태적 삶을 살아 보려 애쓰고 있다.

9. 레베카 솔닛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김명남 옮김, 창비출판사, 2015, 19p.

여성혐오 시대,
기도여성들의
기차기
리자

여
*
사
2017
4호
좌담

기독교여성들은 여성혐오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회자 **김기동** 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위원장

좌담자 **강호숙** 전 총신대학교 강사(실천신학)

김은혜 장신대학교 교수(철학)

김형국 나들목교회 대표 목사(신학)

유연희 감신대학교 교수(구약학·여성신학)

김기동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기독교여성들은 여성혐오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것입니다. 여성혐오 문제와 관련하여 이야기의 장을 조금 좁혀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교회조차도 결코 이 문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심각하게 벌어지는 성차별, 성폭력의 문제는 비단 오늘 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선생님들과 교회, 기독교 신앙 그리고 여성의 삶 등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신앙적 배경과 관련하여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유연희 저는 미국연합감리교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아시아 태평양지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한국에 온 후 아시아 감리교회들의 여성교회 전국연합회에서 기관 강화, 지도력 강화에 관련된 일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저 또한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성숙하지 못한 것들도 직면하였습니다. 지금은 감신대에서 구약성서를 가르치고 있고, 대형교회에서 영어예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되는지 보면서, 교회 안의 여성의 현실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형국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회심하였습니다. 대학졸업 후 IVF 간사를 5년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미국에 가서 신약학으로 Ph.D를 하였고 바울의 교회론을 연구했습니다. 1999년 돌아와 나들목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가 정말 가능한가, 10년 동안 한번 세워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성경적 교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호숙 저는 총회신학대학에서 교회 여성리더십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 그때 총장이 여성 목사안수 반대를 강조하였습니다. 박사학위논문 주제 때문에 학교에서 곤란한 일도 겪었습



좌담 참석자들 김은혜, 강호숙, 김형국, 유연희, 김기동(왼쪽부터)

니다. 신학을 공부하게 된 동기가 가부장인 아버지 그리고 교회에서 맺힌 한과 억울함 때문이어서 신학을 통해 자유와 행복을 찾으려 했는데 학교에서 여러 불이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총회신학대학에서는 실천신학 분야로 제가 여성으로선 유일하게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총회신학대학에서 현대사회여성이라는 교양과목을 강의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사태가 났습니다. 학교는 여성학 과목을 모두 폐지해버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나는 왜 신학을 했는데 왜 여성학을 가르쳤지?'하는 질문도 스스로 하게 되었고, 기독교신앙과 페미니즘의 양극단에서 신학적, 실천적으로 내가 접목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은혜 저는 목회자 딸로 태어났고, 아빠의 목회를 제일 많이 도운 딸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목회자 아내가 되면 좋겠다했지만, 저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사 아내가 아니라 스스로 목사가 되기 위해 장로교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때 저는 내 안에 있는 여성성과 화해를 하지 못하고 20대를 보냈습니다. 장로교신학대학 다닐 때 남자들이 여성적인 특징을 언급하면 자존심 상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여성성과 화해하고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신학 때문이었습니다. 6년 동안 예지교회에서 담임목회를 하면서 내 안의 여성성과 함께 모성성에 대한 거룩함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여성성을 재발견했는데, 저에게 가장 큰 신학적 도전과 전환이 된 것이 출산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명신학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신학자로 기억되고 싶은 신학적 대전환이 출산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모성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한 6년의 목회가 저에게 도전이었고, 사변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신학의 튼튼한 근육을 키워 주었기에 자신 있게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와 문화부'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 총회신학대학은 2016년 1학기 강의를 앞두고, 여성 시간강사 2명에게 배정된 강의가 취소됐다고 갑자기 통보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들은 지난해 여동문회 송년회 예배에서 나온 기도가 발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아무개 강사가 "총신에서도 여성 안수의 길을 열어 달라"고 기도하자, 설교자로 나선 김영우 총장은 "개혁주의 신학에서 여성 안수는 안 된다", "여성 안수라는 보루가 무너지면 성경적 신앙의 보루가 무너진다"며 여성 안수 반대 설교를 했다. 그 후 2016년 2월 학부와 평생교육원에서 각각 '현대사회와 여성', '한국사회와 여성문제'를 강의한 강호숙 박사는 학교측으로부터 개설유보 및 폐지 조치를 당했다. 강 박사는 노동위에 2016년 1학기 강의배제 통보에 부당해고라며 제소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노동위는 강 박사의 손을 들어줬다. (출처: <뉴스앤조이>, <베리타스>)

“교회에서 발생하는 여성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목사님들의 설교나 가르침은 ‘성서에서 말하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이 성별에 따라 너무 달라요.”

김기동 감사합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은 당당하게 자기 삶을 개척해 오신 것 같은데 각기 경험 안에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겪고 또 겪어야 하는 갈등들이 똑같이 들어 있군요. 먼저 교단이나 전공분야가 다르지만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기본인 성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특히 여성과 관련된 문제 상황들은 성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나 가르침은 모두 '성서에서 말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성서에서 말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성별에 따라 너무 달라요. 김형국 목사님은 성경적 교회를 실천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 많은 목사님들은 바울서신을 근거로 하여 "여성은 잠잠하라"했다고 가르칩니다.

김형국 바울은 예수님의 하나님나라 사상을 헬라-로마 세계관 맞추어 맥락화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중심사상이라면, 바울은 이를 새롭게 해석한 거지요. 바울은 유대주의 안에 있던 남성우월주의를 썼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면 실제 여성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주요 사역자들이 여성이었습니다. "잠잠하라"를 비롯한 바울서신의 몇몇 구절들은 에베소교회, 고린도교회에 대한 독특성 때문에 쓴 것일 뿐입니다. 컨텍스트 고려 없이 이를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성경에 대해 무지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김기동 그런데 그런 무지한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은 목사라는 신분을 얻었지만, 강호숙 박사님 같은 경우는 하던 강의까지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별어졌습니다. 바울의 몇몇 구절은 그 당시의 특수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남성지도자들, 목사, 일반 교인들은 이것을 듣지 않고 절대적인 진리인 양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호숙 합동총신에서는 대표적으로 고전11:3, 14:34, 딤후2:11~12을 들어서 여성은 성직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 말씀이 남성들의 입장에서 가부장적으로 해석되어 온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위르겐 몰트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성적 여성차별주의는 근본적으로 자기 증오이다. 요한일서 4:20절에 의해 억압은 곧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한다. 착취자 또는 억압자는 비인간화되고, 희생자 또는 억압받는 자는 탈인간화됨으로써 인간성이 파괴된다”고 하였습니다(박성철 박사가 복음주의 윤리학회에서 발표한 것을 인용).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남성은 자신 안에 여성성을 부정하고 열등을 말함으로써, 남성 자체가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같이 왜 울어”하는 말은 남성의 우월성을 여성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에서 찾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억압이요 범죄입니다.



김기동 그러면 여성안수가 허용되는 감리교나 통합측에서는 이러한 부정성과 억압적 상황이 사라졌습니까?

유연희 감리교는 여성안수를 1930년대 시작했다는 것만 자랑하지,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가 60명 정도인데, 여성이 딱 한 명입니다. 남선교회 행사는 부인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잘 추진이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30년 전만 해도 없던 현상인데, 지금은 부인들이 있어야 남선교회가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남선교회 주최로 대형 포럼에 가면 앉아있는 사람은 대부분 여성입니다. 제가 처음 여선교회와 일할 때 교회 여성들은 무지하고, 남성지도자에 맹종한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은 굉장히 성숙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고 강호숙 박사님 사건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용기를 내어 바른 말을 하셨다는 점에 존경을 표합니다. 사실 저 자신도 교회에서 바른 말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가끔은 피곤해져서 안 하기도 하거든요.

김기동 내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그로 인한 생존 기제가 교회 여성들 안에 지금도 작동하고 있지요. 통합측 교회는 어떤가요?

김은혜 저는 여전도회 특강을 많이 다니는데 최근에 어떤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 여신도보다 지금은 분명히 진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느리긴 하지만 실망하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지요.

제가 12년째 장로교신학대학에서 교회와 여성, 성윤리, 가정윤리, 여성신학과 윤리 등 여성 관련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2030세대는 정말 희망적입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통한 의식의 전환은 여전히 굉장히 느린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배우는 것 같은데도 남자 목사님들은 10년 전에 물었던 질문을 10년 후에도 다시 질문하기도 합니다. 대충 듣고 페미니즘은 공부 안 해도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천 년의 남성중심의 신학적 담론

을 헤치고 목소리를 내야 하니 치열한 사유가 필요한 게 여성신학입니다. 그래도 2천 년도 기다렸으니 변화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장의 여성목사 안수를 말씀하시는데, 일단 제도를 만들고 나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의식의 엄청난 질적 진보 때문에 여성안수 의제가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몇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제도를 만들고 나니, 2천 명의 여성 목사가 배출되었습니다. 여전히 갈 길은 멀지만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김기동 두 분은 목사이기 때문에 평신도 여성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그나마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요. 일반 평신도들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에서 성차별적이고 여성혐오적인 발언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또 교회 내에서는 성폭력 문제까지 심각하게 벌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평신도 여성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성 스스로가 존엄한 자이라는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들이 제일 혼동하는 부분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과 자기 비하의 경계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은혜 여성혐오의 역사적 배경에서 큰 두 축이 가부장제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여성혐오를 생산하고 존재시키고 강화시키는 정신적인 힘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기독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해야 합니다. 터툴리안(Tertulian)부터 시작해서 칼 바르트(Karl Barth)에 이르기까지 남성의 우월과 여성의 열등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라고 교리화시키고 신학화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절대로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긴 호흡으로 다양한 지혜와 연대를 통해 이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성 스스로가 존엄한 자이라는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성들이 제일 혼동하는 부분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과 자기 비하의 경계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존엄과 자기 파

괴의 경계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 내 몸이 부서져라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자기 존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여성들을 교육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성의 자아 존엄감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 ‘죄의 원인 제공자도 아니고, 유혹한 인간도 아니고, 애 낳는 그릇도 아니다’라고 자각하게 해야 합니다. 이 말들은 제 말이 아니라 유명한 신학자들이 한 말입니다. 문화와 사회의 모든 구조 속에 스며있는 가부장제는 의식적으로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적인 성찰이 요구됩니다. 시작점은 교회 여성의 자아존엄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교육입니다.

김형국 이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역사 속에서 가해자 입장에 있었던 남성들의 변화 없이는 힘든 일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신학의 회복이 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치열하게 찾는 일들은 오늘날 교회에서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쓰인 직후부터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서신에 유니아(롬 16)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원문을 보면 ‘사도들 가운데 탁월한 자’라고 나옵니다. 우리 번역에는 ‘사도들의 인정을 받은 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초대교회가 필사할 때, ‘여자인 유니아가 사도들 중에 탁월해? 있을 수 없어’라고 하면서 유니아를 울리아로 바꾸거나 울리아스라고 하는 남성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가르침과 바울이 추구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 위상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공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공격의 이유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역사 속에 있었던 가부장적 사고였습니다. 교회는 이런 가부장적 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나라에 대한 사상을 말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교회에서 가르친다면 사람들은 변할 겁니다.

강호숙 제가 합동교단 교회에 오래 있으면서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여성을 혐오하고 여성을 지배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현상 즉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교단이 거의 합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성을 차별하고 비하하고 종속시키는 집단과 교회, 공동체일수록 비윤리화되고 비인격화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남성성과 여



성성은 질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성 실현의 문제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를 자주 구분해서 말하면 차별하는 남성도 억압하는 자도 비인격화되고, 억압받는 사람은 대상화 탈인격화됩니다. 그래서 둘 다 행복하지 않게 됩니다. 폴트만에 따르면, 인간적인 자유의 진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자유는 지배권이 아니라 '열린 공동체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신학은 백인 남성 중산층에 의해 이뤄지면서 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희생자 또는 억압받는 자들의 해방을 논해왔다면, 앞으로는 억압자 또는 기득권자들의 악의 문제, 죄의 권세, 화해를 통한 해방에 대한 신학적 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인간성을 회복하는 교회공동체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김형국 저는 현재 기독교, 그리고 그 구조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있는 토양 자체가 본류에서 너무 많이 이탈했습니다. 본류를 다시 찾는 일들을 하려면 남자 형제들도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당사자들인 자매들도 더 큰 대가를 지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성의 교육권, 참정권이 주어진 것이 불과 100년 밖에 되지 않았고, 또 여성들이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저는 교회 내에서 모든 성도가 함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현해나간다면, 그것이 또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다.

김기동 사회적으로 사실 여성들의 성차별 문제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들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무엇인가 변화를 향해 보이는 의미 있는 조짐은 무엇일까요?

김형국 초대교회 여성들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유대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세워진 초대 교회에 어떻게 해서 여성 지도자가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같은 경우 바울에게 가깝고 중요한 사람부터 이름이 언급 되는데, 앞부분이 다 여성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냐하면 초대 교

회가 가정에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중심이 여성들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변화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여성들은 사람을 키워봤으니 영적으로 사람을 돌보는 것이 무엇인지, 남자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역할은 생명력 있는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성들이 이러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의 목양의 리더십에는 남성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는 갱신되어야 합니다. 갱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남자들이 만들었던 제도와 수직적인 구조 속에 들어가서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들은 기득권을 쉽게 내려놓지도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시무시한 가부장적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고대 사회 초대 교회에서 여성의 리더십을 일으킬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여성들의 리더십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답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돌보고 살리고 사랑하는 일을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김은혜 저도 기본적으로 목사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역사 속에 확실하게 배운 것은, 어느 누구도 대신 말해 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여성들 간에 연대, 연합은 여전히 한국 교회에서는 중요합니다. 독일 교회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1997년에 없어졌고 양성평등이라는 모델은 기회균등협의회로 바뀌었습니다. 여자 목사 50%, 노회장, 총회장 나오니까 오히려 역차별처럼 느껴져서 말 자체가 남성들에게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여전히 양성평등에 대해 말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성들의 연대나 여성들의 주체성이나 여성들의 자아존엄성의 회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 여성들에게는 순종, 복종 이데올로기가 많아서 교회의 적극적인 지도자로서, 일원으로서 당당히 서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문명 좋은 사회를 이루려면, 여성들이 돌보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물론 좋은 제안입니다. 그와 더불어 남자가 이 귀한 일에 동참해서 가부장적으로 왜곡된 남성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 어떤 아빠가 자기는 젖은 없지만 우유를 주면서 자기의 심장과 아기의 심장을 가까이 대고 두근두근 감동을 느끼면서 아기에게 우유를 먹인다는 기사였습니다. 생명의 경외를 이야기하는데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묘사할 수 있을까! 이런 영역에 남성이 더 많이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문화 환경이 된다면 훨씬 생명 지향적인 문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연희 저는 젊은 여성을 훈련시키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한번은 젊은 여성 리더십센터에서 강의를 하는데, 젊은이들이 리더십에 왜 '여성'을 붙이냐고 하면서, 젊은 사람이지만, '여성'을 따로 넣지 않으면 좋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한 가지 깨달은 작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자리에는 적지 않은 휴지조각들이 나뒹굴고 있었어요. 리더십, 커리어, 사회적 성공 등등에 대한 높은 관심은 보여줬지만, 양육과 섬김은 배우지를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를 봐도 공부만 하고 섬김과 양육에는 문외한으로 살아온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작은 사건이지만, 저를 먼저 돌아보게도 되었어요. 저는

이 사회에 그 동안 여성들이 담당해온 섬김과 양육, '살림'의 태도는 귀하고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김형국 저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게 된다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나라 백성이 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너무 선명하게 받아들여져서 여성의 권리를 따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성차별 문제를 한 번도 부각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잘 살아내자, 그 복음을 전하고 잘 살아내는 데 우리 삶의 전력을 기울이자 했더니, 자연스럽게 여성의 리더십도 크고, 젊은 세대의 리더십도 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말입니다. 그런 교회 구조를 만들었더니 가족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130명 되는데, 이 가운데 여성이 반도 넘습니다. 운영위원회의 40% 정도가 여성들입니다. 싸워서 이룬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된 일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하면 바로 신학에서 온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따랐던 신학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살아내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삶은 당연한 것이고 지배하는 삶에서 섬기는 삶을 지향하는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도가 관료화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다 뒤집어진 상황이 된 것입니다.

김기동 목사님은 신학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를 지향할 것인가 하는 의지에 달린 것 같습니다.

김형국 그 의지가 신학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신학은 보면서 그 의지가 없다면 이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남성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여성 리더십이 교회에 어떻게 의사결정구조로 들어갈 수 있게 할지를 연구해야 합니다. 가령 당회가 남성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면, 당회는 그대로 두고, 의사결정을 할 때 확대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김기동 오늘 대담의 주제는 ‘기독교여성들은 여성혐오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느낀 바로는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는 결국 나의 삶에 대한 반성, 고민, 그리고 태도와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지, 여성의 문제는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성의 문제로 함께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총괄적으로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형국 저는 오늘 여기 와서 많이 배웠습니다. 최근에 ‘성소수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로 3주 설교했습니다. 그 때 성소수자 문제를 다루면서 여성문제를 언급하긴 했는데,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큰 이슈가 안 되기 때문에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전히 이 문제가 심각하고, 분노와 신음 소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이 문제를 더 마음에 두고 목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몇 가지 통찰을 얻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지만 유일한 남성으로 참여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졌고 안타깝습니다. 남성을 대표할 입장이 아니지만, 만약 대표하라고 하면 석고대죄를 해야 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도가 지난 2천년 동안 응답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실행된다고 믿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둔갑시키는 것 말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성문제도 같다고 봅니다. ‘기도하면 액션이 따라 나오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거짓 기도가 아니고 참된 기도는 반드시 액션이 있습니다. 저는 여성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남성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겠지만 분별하고 기도하고 액션하면 우리 다음세대는 뽕박질이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호숙 저는 ‘여성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

성을 만드신 하나님이 ‘남성의 하나님’으로 드러난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여성의 하나님을 말하려면, 김은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도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 주체가 되어 성경도 보고, 자기 존재감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때 그것이 여성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남성의 하나님, 여성의 하나님으로 나누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을 담아내려는 몸부림이요, 같음과 다름을 찾아 나서는 도전이요, 저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성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자이크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소중한 존재,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면 더욱더 당당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죠.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찾으면, 억울함을 당하거나 고난을 받는다 해도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거나 부수적인 존재가 되는 신앙과 삶은 너무 불행합니다.

“‘여성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성을 만드신 하나님이 ‘남성의 하나님’으로 드러난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유연희 ‘여성혐오를 혐오한다’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여성들은 여성혐오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주제만 봤을 때, 언뜻 그 책 제목이 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사랑으로, 포용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너무 잘 하는데, 예수처럼 사는 것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혁명적인 메시지, 삶과 가르침을 조금만이라도 흉내낸다면, 교회 개혁이나 이런 문제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개인으로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겼는데, 가만히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명령한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말하는 거야’라고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새로운 해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혐오를 혐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해법, 즉 평화와 사랑과 포용으로 이겨야 할 것입니다.

김은혜 우리 학교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언제 사라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20년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20년 만에 사라질 것이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 성이 한 성을 지배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아니고 뜻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웃사랑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남자도, 어떤 여자도 지구상에 가부장제가 있는 한 진정한 사랑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그런 회의가 들 만큼 우리는 그런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사회를 꿈꾼다면, 혹은 종교개혁을 원한다면, 교회 변화를 원한다면, 인류의 절반인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개혁의 전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까 물으셨는데, 저는 조금밖에 못 살았지만 삶이 명쾌하지 않습니다. 훨씬 혼란스럽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이 50을 넘으면서 우리에게 좀 더 신비로운 세계에 대한 여유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삶의 참 신비한 공간을 만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김기동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하나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성차별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성차별이 없어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서 알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럴 때에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사랑과 포용이라든가 하는 행동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기독교 여성들이 살아야 할 모습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WCA

여성운동
영문동
현장을
가다



말하는 여성들의 아름다움, 그 목소리의 힘

청주YWCA 여성운동 현장

이혜정
청주YWCA 사무총장



1. 여성들의 도발, 여성들이 이야기한다는 것 - 청주여성영화제

2014년 청주여성영화제의 홍보이미지가 꽤 도발적이다. 발화, 클로즈업된 입을 통해 나오게 되는 말이 좀 두렵다. 애써 덮어두었던 그 말들이 이제껏 유지해온 일상의 평온을 깨뜨릴 것 같다.

말하는 여성은 왜 도발적인가? 도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 ‘남을 집적거리 일을 돌우어 일어나게 함’이라고 적혀 있다. 일상적으로 여성의 말은 조용하고 심지어 평온하다고 느껴지는데 갑자기 누군가 ‘짹’하고 접시를 깨뜨리는 듯한 불편한 감정을 준다. 남성들이 구축해 놓은 기존 인식과 질서 속에서 ‘여성들이 말을 한다는 것’은 괜한 일을 벌이는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겠다.

여성운동의 역사는, 그리고 YWCA의 역사는 이렇게 말하고 깨뜨리며 기존 삶에 불편함을 주면서 길을 만들어왔다. YWCA의 역사를 살펴보면 무명 치마저고리를 입은 여성들이 ‘축척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온 장면이 있다. 지금은 빛바랜 듯 흑백사진에서 만날 뿐이지만 피켓을 들고 우르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우리



1	2	3
---	---	---

1. 2014년 그녀가 말한다
2. 2015년 여성! 시대의 초상
3. 2016년 리얼버라이어티 가족 - 걱정말아요 그대

의 선배들의 소리가, 그 외침이 아직도 우렁차게 들리는 듯하다.

그 당시 남성들이 축척을 한다는 것은 상식으로 통용되었을 것이다. 상식을 깨고 ‘나’ 곧 ‘여성’의 시선으로 말한다는 것, 여성들의 말을 세상에 내보낸다는 것은 나와 세상을 소통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이다.

청주YWCA에서 진행한 여성영화제도 이렇게 말 많고 탈 많은 프로그램이었다. 2016년 19회를 맞았으니 이제 성년인 스무 살을 앞두고 있다. 어쨌든 지역 소도시에서 여성영화제를 19년 동안이나 지켜왔다는 것은 지난하였지만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여성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흔히들 “여성주의 영화화? 그럼 남성주의 영화도 있나요?”, “영화까지 그렇게 복잡하고 시끄럽게 불필요가 있나요”라고 반문한다. 영화라는 매체는 그 파급력과 접근 편이성에 대중의 생각과 정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 철학자 김영민은 영화보기가 온통 소비자본주의의 상업적 코드 속으로 회수되고 있는 것은 단지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이 시대의 증상이라고 말한다. 이 시대 상업영화 속에서는 대중적 흥미

를 이끌어내는 이야기들만이 만들어지고 소비된다. 하지만 여성영화 안에는 기존의 영화에는 보이지 않고 관심을 끌지 못했던 진솔한 여성의 삶과 이야기가 담겨 있다.

사람들은 영화 속에서의 이야기를 보고 시뮬레이션하고 미러링한다. 여성영화는 여성들이 남성들의 이야기 구조에 보조자로서 등장하지 않는다. 여성영화는 여성들을 성녀나 창녀의 이분법적 잣대, 곧 세상의 흔한 시선으로 보지 않는다. 스크린에서 클로즈업된 여성들은 삶의 일상을 부딪치며 일구어내는 주체적 존재들이다. 금기를 깨고 자전거를 타고 싶은 어린 소녀의 이야기, 조그만 시골마을에 속옷가게를 열고 싶은 주름 가득한 여성노인의 이야기, 전쟁 중 겪은 경험을 평생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프가니스탄의 여인들의 이야기, 다른 성적 취향으로 세상의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아주 평범한 여성의 이야기, 유쾌발랄하게 결혼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새내기 부부의 이야기 등 영화 속의 여성들은 평범하지만 세상의 주인공이다. 그들은 일상에서 부딪치는 소소한 금기에 질문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여성영화는 여성 스스로가 여성에 관해 말을 건네는 영화이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 영화는 여성 감독에 의해 만들어진 영화,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일 뿐만 아니라 여성 삶의 문제를 여성적인 시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주YWCA가 19년 동안 진행한 여성영화의 목록을 보면 청주YWCA가 어떠한 대안적인 주제를 가지고 여성 삶의 문제를 공감하려 했는지 알 수 있다. 청주YWCA는 여성영화제를 통하여 여성들의 꿈, 정체성, 예술, 역사, 가족, 인권, 모성, 섹슈얼리티 등 다양한 주제로 소통하려고 했으며 때로는 그 주제의 도발성 때문에 관객과 불화한 적도 많았다. 하지만 영화 속 여성들과 관객인 여성 사이에 만들어진 강한 자매애와 연대의식은 흔히들 말하는 ‘그저 그런 여성들’의 삶을 격려하고 서로 기대어 줄 언덕이 되기도 한다. 삶의 굽이굽이 갈피마다 숨겨져 있는 여성들의 말하기 욕망은 여성영화제 20살 성년이 되기까지 이렇게 지속되어 왔다.

청주여성영화제 개최 현황(1회~18회)

회수	일시	장소	상영작
1회	1999. 7. 7	충청북도 학생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의 거리 있다 없다 팝의 여전사 작은 보석들 단맛 쓴맛
2회	2000. 7. 8	충청북도 도청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름다운 육체 팝의 여전사 보름달 드림걸즈
3회	2001. 7. 5	중소기업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년간의 침묵 코헨의 아내 이삭 줍는 사람들과 나
4회	2002. 7. 4	중소기업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버지의 집 미끼 그해 아폴로 11호는 달에 갔을까? 제비꽃 향기:아무도 믿지 않는다
5회	2003. 7. 3	충청북도 여성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삶의 빛깔 거북이 시스터즈
6회	2004. 7. 2	충청북도 여성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착 니네 엄마 뭐하니 잊지 못할 그날 힙합의 여전사
7회	2005. 6. 23	씨어터 제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Seek You Too 빈곤의 벽 앞에 서 있는 여성가장들에 대한 보고서 꿈꾸는 카메라:사창가에서 태어나 부업이 좋은 이유 외
8회	2006.7. 6 ~ 7	씨어터 제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쇼킹패밀리 면회시간 욕망을 영화화하다 황홀경 조디 포스터 이야기 메디나의 여성들 외

9회	2007. 12. 21	씨어터 제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쿠오카의 필리피나 • 별거벗은 히치하이커 • 속도무제한 페미니즘 외
10회	2008. 10. 30 ~ 31	청주시 평생학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머니와 란제리 • 3×FTM • 진옥언니 학교 가다 • 오버 더 힐 • 메이드인 LA
11회	2009. 10. 29 ~ 31	청주시 평생학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리와 하르 • 레즈비언 정치 도전기 • 나는 엄마계의 이단아 외
12회	2010. 10. 29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땅의 여자 • 엄마를 돌봐줘 • 나를 믿어줘
13회	2011. 10. 27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어드레서 • 나의 신상구두 • 할머니는 왕실 세탁부 • 두 개의 선
14회	2012. 10. 19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핑크사리 • 쿵푸할머니 • 하신타:기억의 뜨개질 • 간지들의 하루 외
15회	2013. 10. 28 ~ 29	sfx시네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리고 싶은 것 • 왕자가 된 소녀들 • 마이 플레이스 • 아버지의 이메일 외
16회	2014. 10. 27 ~ 28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원의 행복 • 잊혀진 얼굴 • Momstory '엄마를 말하다' • 와즈다 • 그녀들을 위하여 • 퍼스트 댄스 • 파푸샤 • 은밀한 가족 • 잔인한 나의, 흠

17회	2015. 10. 29 ~ 30	롯데시네마 주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로공단 • 제인구달 • 밀양아리랑 • 내일을 위한 시간 • 투라이프
18회	2016. 6. 23 ~ 24	롯데시네마 청주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꿉놀이 • 너는 착한 아이 • 나의 어머니 • 룸 • 트윈스터즈

1) 여성영화제 전후-모이기, 수다떨기, 영화 만들기

여성영화제와 별도로 청주YWCA에서 여성영화보기 소모임 '영자씨'가 월1회 운영되었다. '영자씨'엔 '영화보는 여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 영화의 주인공인 영자씨의 이름을 빌린 것이기도 하다. 이 소모임은 다양한 여성영화를 접하고 여성들의 말하기로 맺음하는 다소 도발적인 여성주의 영화 동아리이다. 2016년부터는 YWCA 동아리에서 '소란'이라는 별도의 영화 도서관 준비모임으로 발전적 분리 독립을 했지만 여전히 월1회 영화보기모임을 하기도 하고 청주YWCA 여성영화제의 영화 라인업을 함께 돕기도 한다.

2013년 여성영화제에서 여성친화 UCC 공모전을 진행했다. 모녀 이야기, 여성 공부모임에 대한 이야기, 취업 준비하는 청년여성의 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세련된 작품들은 아니었지만 이를 통해 우리들의 이야기를 직접 해 보고 싶다는 욕망은 점점 더 꿈틀거렸다.

2014년 여성영화제의 개막작은 스스로 만든 3편의 단편영화로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영화를 통해 이야기를 들던 여성들이 "이제 제 얘기를 시작합니다"라고 하며 직접 카메라를 들었다. 영화제작 워크숍에 참여한 3팀이 여름 내내 영화제작이론과 실습을 통해 작품을 만들었다. <500원의 행복>은 자신의 감정과 무관하게 항상 친절을 강요받으며 일하고 있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감정노동자들의 애환을 이야기한다. 청주Y에서 활동하는 대학Y 회원들이 만든 <잊혀진 얼

굴>은 원폭피해자 할머니의 고통을 잊지 않고 그림을 그리며 기억하는 소녀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Momstory, 엄마를 말하다>는 항상 낮은 곳에 있었던 엄마들의 삶을 30~40대 딸들이 증언하는 영화다.

2) 여성돌봄노동자들의 삶 <목소리들의 풍경>

2016년에는 인간 생애의 피할 수 없는 조건인 돌봄노동을 증언하는 다큐멘터리 <목소리들의 풍경>을 제작했다. 청주YWCA 돌봄회원들뿐 아니라 지역의 돌봄노동자들 8인이 출연한 인터뷰 다큐영화는 보이지 않는 노동을 그 주체인 돌봄노동자의 목소리들만으로 채우며 다음과 같이 묻고 있다. “보이지 않는 노동이 보이나요?”.

이 영화는 지난 5월 12일 청주 YWCA가 돌봄노동 종사자 인식개선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녀는 여기 살지 않는다>, <풍경> 등을 제작한 청주 출신의 영화감독 박인경은 시나리오 연출 촬영까지 도맡아 하며 전반적으로 열악한 제작 환경에도 불구하고 돌봄노동의 현황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했다.

56분의 영화는 돌봄노동에 대해 알지 못했거나 이렇다 할 관심이 없었던 관객들을 돌봄노동의 현실과 돌봄노동 종사자들의 일상을 찬찬히 보여준다.

‘보이지 않는 노동’이라는 말처럼, 영화는 ‘돌봄노동’을 직접 보여주지는 않는다. 치매노인을 돌보는 인간극장류 노동현장도, 살림돌보미로 분주히 오가는 그들의 성실한 노동현장도, 지적장애인이거나 발달장애인을 보조하며 생기는 에피소드의 노동현장도 다큐에서는 만날 수 없다. 노동의 현장에 가기 위해 아침 일찍 버스를 타는 모습, 활동보조를 위한 휠체어를 챙겨 밴을 몰거나 자가용 운전으로 일터로 향하는 모습,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장애아동의 손을 잡고 일터로 들어가는 모습까지만 카메라에 담긴다.

하지만 돌봄노동의 주체인 주인공들이 말하는 ‘돌봄노동의 풍경’은 참으로 다양한 결을 드러낸다. 소파에서 찾아낸 5만 원으로 누군가의 인격을 재단하려는 천박함과 친자식들보다 오래 정 붙인 도우미에게 마지막을 의탁하고자 하는 절박

함이 그곳에는 있다. 고집부리며 자꾸 움직이는 환자를 돌보다 디스크에 걸리거나, 성희롱에 가까운 언행마저 꼭 참고 다시 일터로 향하는 발걸음은 노동의 절박함과 승고함이 함께 드러난다.

영화평론가 박인영은 신문 기고문을 통해 이 영화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돌이켜보면 처음 어수선한 외중에 들렸던 알지 못할 이들의 짧은 말들은 다소 당혹스러웠다. ‘아줌마’거나 ‘이모’였고, ‘관리사님’으로 불리기도 하며, 이제는 ‘선생님’이 되기도 하는 그들의 목소리에 점차 익숙해지며 이야기에 집중함에 따라 상승했던 인지감은 이 증명사진 장면들을 통해 절정에 달한다. 비록 처음 만난 이들이지만 관객은 이들을 ‘알게 되고’,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돌봄노동’의 풍경을 본 것처럼 이해하게 된다. 마치 처음에 발목쯤 찔랑거리던 물이 점점 올라와 온 몸이 잠기는 것처럼, 영화의 시간이 선물하는 이 놀라운 점층법은 에필로그로 붙은 인터뷰 장면의 어떤 특별한 감흥을 준비한다. (중략) 이미 우리는 한 시간 가까이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일터를 함께 경험했으며, 때로는 모멸감에 울분이 치솟거나 따스한 인간적 교감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는 다양한 시간들을 경험했다.” <충청미디어>(2016년 12월 1일.)

적어도 이 영화에서 돌봄노동자들은 모두 주인공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소리를 한 시간 동안 아주 진지하게 경청했다.



2. 관계가 살아 있는 공간, 마을 만들기

사람이 살아가는 데 공간은 매우 중요하다. 도시 안의 공간은 계층 간의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성차별적 불균형 불평등의 인식도 고착화되어 있다. 도시공간은 공적 자산이다. 공적 자산이라 함은 공간을 향유하는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밤길을 걷는 여성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가? 밤길을 다니는 것이 위험하다는 당연한 사실의 인지는 ‘무엇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을 그리고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의 고민을 하게 한다. 여성들의 시선으로 공간을 바라보는 것이 마을만들기 사업의 시작이다. 2014년 성평등정책모니터링사업의 일부 분야

로 진행된 청주의 길과 도로안전에 대한 모니터사업, 그리고 2015년에 진행한 성평등한 도시공간 모니터링 사업은 ‘꿈꿈생활모니터단’을 조직하여 ‘공적 자산으로서의 생활공간이 여성들의 신체적 정서적 조건에 안전한가’라는 문제의식으로 시작되었다. 꿈꿈생활모니터단에서 활동하는 14명의 여성들이 스스로 발품을 팔고 스스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책제안을 했지만 그 이후 환류작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2015년, 2016년에는 골목까지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 그 곳은 이른바 원룸촌으로서 청주에서 성범죄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었다. 공적 자산으로서의 공간을 생각하니 자연스레 떠오르는 이미지는 ‘마을’이다. 마을의 혈관인 골목길이 위협하다고 인지되는 순간 이웃아저씨는 더 이상 이웃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돌봄과 배려가 이루어지면 소통하는 공유공간으로서 마을의 따뜻함이 살아난다.

마을마저 위협해진 사회에서 마을을 복원하기 위해 일단 주민과의 만남 ‘마을수다카페’부터 시작했다. 다음 아닌 ‘관계의 힘’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함께 모여서 삶터인 마을의 이야기를 하는 것, 마을을 둘러보는 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의 공간을 인식하고 공간의 재배치와 활용을 생각하게 했다.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전후 비교 시뮬레이션, 커뮤니티맵핑 프로그램, 염리동 소금길 견학 등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가 높아졌고, 안전한 우리 마을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제안들을 하기 시작했다. 모임이 있을 때 고구마, 강냉이, 음료수 등 자발적으로 간식을 준비해 오고, 근처에 사는 주민들과 동행해서 나오는 등 관계의 힘이 쌓이기 시작했다.

깨진 유리창을 외면하던 마을은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환경조성으로 관계와 공간의 힘을 새롭게 디자인했다. 구체적으로 가로등의 조도 조정, 반사경과 비상벨 설치, 벽화, 바닥그림으로 마을을 디자인하고, 위험골목에는 대문과 담장까지 새로이 페인트칠하여 새 숨결을 불어넣었다.

2016년은 골목 교차점에 쓰레기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우리 마을에 쓰레기가 없다면’으로 시작된 마을 상상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쓰레기가 쌓인 구석구석에 ‘여기에 쓰레기가 없다면’을 상상하여 지친 퇴근길에 하늘

한번 올려볼 수 있는 곳, 마을의 갑돌이가 갑순이가 프로포즈할 수 있는 곳, 아이들이 모여서 놀이를 할 수 있는 곳, 동네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곳으로 상상하고, 그것을 구현해냈다.

2015년 12월 B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청주지역의 초기 대규모 아파트단지, 재개발이 몇 년째 보류되고 있는 상태에서 빈집이 늘어나고 몇 가구만 남아 있는 을씨년스런 곳이다. 그곳 초등학교 주변에는 바바리맨이 자주 출동한다고 하였다.

때마침 그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Y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 주변의 바바리맨을 퇴출해 달라고 요청을 해왔다. 담당 위원회에서는 지역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여 또 하나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프로젝트명은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성평등한 마을 - 꿈꿈마을! 바바리맨’이다

우선 학생들에게 성평등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1회 교육은 전교생 필수교육으로 진행하고 5, 6학년은 4차시 교육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교육과 바바리맨 대면시 대응방법 등을 시뮬레이션했다. 교육 후 실질적인 작업은 공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모르는 공간은 두렵다. 파악되지 않는 공간은 불안하다. 공간의 주인을 자기화하는 작업으로 공간 돌아보기와 픽토그램 ‘감시의 눈’ 디자인 벽



골목까지 안전한 마을 만들기 주민 만남

화만들기 사업이 진행되었다. 학교를 둘러싼 공간은 학생과 교사, 인근 상가의 상인,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간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주변상가와 학부모들은 어벤저스를 구성해 함께 캠페인을 하고 이 마을의 아이들이 우리들의 아이들이며, 이 공간은 우리 아이들이 맘 놓고 향유해야 하는 공간임을 다시 깨닫고 마을에 대한 공적 책임감을 더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아이들은 ‘감시의 눈’ 작업을 통해 공간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다고 했다.

사업 후 직접적인 성기노출사건은 아직 없었으나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오고 여학생들이 불안감을 느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횟수가 늘었다고 한다.

‘근대는 마을을 버린 사람들에서 시작해서 마을을 만드는 사람들로 끝이 날 것’이라는 말이 있다. 마을은 공존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마을은 모두의 공간이어야 한다. 이웃아저씨와 이웃아주머니가 더 이상 낯설고 위협하지 않은 관계가 회복되는 곳, 빠르고 불안한 마음으로 지나쳐야 하는 골목길이 아니라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운치 있는 공간으로서의 골목길, 밤늦은 시간에 지친 몸으로 돌아와 눈뜨면 다시 빠져나가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일을 모색하고 즐겁게 삶을 이어나가는 공간 말이다. 삶의 혈관과도 같은 마을의 회복, 공간의 회복이 필요하다.



감시의 눈 디자인 벽화 만들기

다시 질문한다. 밤길에 다니는 것이 왜 위험한가? 여성에게도 안전하고 평등한 마을이 모두의 마을이다. 모두가 행복한 마을이다.



3. 질문하는 여성, 생각하는 여성-‘여성주의학교’ ‘기독교여성아카데미’

2016년 ‘우리가 새날을 낳으리라’라는 다소 고전적인 카피로 기독교여성아카데미를 진행했다. 부제는 ‘성서 속의 여성을 통해 세상 바라보기’였다. 여성으로서의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성서에 질문하게 된다. “성서에 나오는 많은 남성주인공 사이에서 여성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여성들은 교회문화 안에서 남성과 다른 성역할을 하는 것이 온당하가?”라고.

한편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배우고 살고 그 경험이 익숙한 사람은 절대 진리인 기독교신학에서 여성신학이 따로 있는 거냐고 반문하며 오히려 그런 시도들이 교회분란을 일으킨다며 불쾌해 한다. 하지만 어찌하랴, 교회에서 상처받고 좌절하는 여성들이 엄연히 있는데….

사회는 성평등 질서로 가고 있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가부장적 신학교리, 교회봉사에 있어서의 성역할 강요, 의사결정구조에서의 배제 등 교회여성에 대한 차별이 성행한다. 기독교여성운동체인 YWCA는 여성의 눈으로 성서를 보고 지금 삶의 자리에서 교회 여성리더십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 진행된 1기 기독교여성아카데미는, 1강 ‘여성의 눈으로 보는 성서’(구미정), 2강 ‘성경 속 세상을 바꾼 여인들’(구미정), 3강 ‘한국 교회 안에서의 여인’(강호숙), 4강 ‘나는 교회여성이다’(강호숙)으로 진행됐다.

교회의 하나님은 남성편인 것 같다고 고백하는 참여자, 교회여성의 은사를 소홀히 하는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은 참여자, 여자 주인공 없는 성서, 여성 제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에 좌절하는 참여자들이 모였다. 매일 교회에서 들던 성경구절이지만 여성의 눈으로 성서를 해석하니 훨씬 은혜롭다고 하는 고백이 이어졌다. 모두가 질문하는 여성들이다. 절대 진리에 질문하는 여성, 생각하는 여성은 얼마나 멋진가? 그 여성들이 행동할 것이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불평등함을 외치

며 새날을 낳은 여성들이 될 것이다.

기독교여성아카데미는 2016년 처음 실시했지만 청주YWCA는 2014년부터 질문하는 여성들을 위해 '여성주의학교'를 운영해왔다.

여성주의학교 1기인 2014년에는 '여성 생태 힘'이라는 주제로, 1강 '다시 쓰는 허스토리'(박현순), 2강 '열려라 여성주의, 왜 여성주의일까'(조이여울), 3강 '여성 과 몸, 나는 내 몸의 주인일까'(고은광순), 4강 '여성과 일, 지역'(이안소영) 5강 '에너지 위기시대! 여성은 무엇을 할까'(이윤숙), 6강 '떡거리 위기시대! 여성은 무엇을 할까'(김연순), 7강 '여성리더십! 온전한 자기로 바로서기'(양세진) 등의 강의를 진행했다.

2015년 여성주의학교는 백소영교수의 '엄마되기! 힐링과 킬링 사이'를 공개 특강으로 시작하여, 1강 '나를 찾아가는 길-여성의 정체성을 묻다'(김수정), 2강 '영화로 보는 여성과 가족'(박인영), 3강 '가족 안과 밖의 여성, 그리고 남성'(김수정), 4강 '개념찬 여성들이 삶의 주인되기'(김수정)으로 진행했다.

2016년에는 1강 '남녀의 차이-과학을 다시 말하다(섹스)'(김수정), 2강 '영화에서 재현되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박인영), 3강 '여성이 사는 세상, 어떻게 볼 것인가'(김수정), 4강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김수정)으로 모두 3번 진행되었는데, 실무자만을 대상으로 한 여성주의학교도 개최되었다.

여성주의학교에 참여한 여성들은 처음엔 여성주의라는 말이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결국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다시 쓰는 허스토리'를 통해 TV나 책을 통해 접하게 되는 유명 인사들의 삶만이 역사가 아니라 자신을 비롯한 평범한 여성들이 일상의 삶을 경험하는 것 역시 중요한 역사가 될 수 있다며 활짝 웃기도 하고, 여성과 일을 고민하는 과정에서는 사회 재생산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하는 무임금 돌봄노동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적정량의 노동과 적정량의 소득으로 삶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깨달음의 지혜를 공유하는 시간, 가족관계 속에서 당연한 여성들의 희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비겁한지를 나긋나긋 이야기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서로 깊이 공감했다.

많은 강좌를 Y내에서 진행했지만 여성주의를 전면에 표방하고 기획한 강좌는

아마 처음일 것이다. 청주YWCA는 여성주의학교를 홍보하면서 '열려라 여성주의'라는 카피를 썼다. 여성주의에 대한 관심이 열렸다는 의미이다. 참여자들 다수가 처음 강좌에 참여해서는 어렵고 혼란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더 공부하고 싶다고 하며 닫아두었던 삶의 의문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다고 했다.



4. 여성들이 더 크고 더 높이 외치기 위하여

여성이 주체가 되어, 일꾼이 되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한 Y의 여성들, 대표적인 여성운동체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YWCA이지만, 해마다 여성영화제를 열고 여성주의학교를 진행한다는 것이 새삼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성별 지위 격차를 무너뜨리고 여성의 권한과 지위향상을 끊임없이 해온 YWCA는 '왜 여성주의 관점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

생물학적 여성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남성과 평등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만이 여성운동의 목표는 아닐 것이며, 하나님나라 운동을 하는 것만이 YWCA목표는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차별이 무엇인가?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입장 차이가 있어 여성주의를 실현하는 데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분명한 것은 YWCA 운동의 주체는 '젊은 여성들'이며 목표는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다. 젊은 여성들이 만드는 하나님나라는 기존 질서에 배제된 사람들을 기존 질서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여성주의운동은 이제껏 바라왔던 세상의 질서를 새롭게 보는 운동이다. 가부장제적 성차별주의에 근거한 가치관, 제도, 구조 의식 등을 비판하고 성찰하면서 주변과 중심, 약자와 강자, 빈부와 부자, 여성과 남성, 자연과 인간 등 지배와 종속으로 나누었던 세상을 둥글게 통합하는 운동이다.

여성주의를 통한 YWCA 하나님나라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나라는 결국 모든 존재의 평화와 평등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짓밟힐 때에는 아픔을 느낄 줄 알아야 하고 거

기에 분연히 일어나 외칠 수 있어야 한다. 여성들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존엄한 딸로서 살기 위해서는 자기 목소리를 가져야 하고, 자기 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기 존재의 자리를 인식하고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된 하나님나라 운동은 더 둥글게 더 넓게 인식의 지평을 확장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위협하다. 세상은 여성들이 말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함께 듣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나지막하게 울리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여성들의 목소리는 아직도 묻혀 있다. 여전히 여성들의 말은 주변의 떠도는 말로 치부된다. 여성들의 의지와 욕구는 무시되거나 왜곡되어 왔다. 그래서 여성들은 더 크게 더 높이 말하고 외쳐야 한다. 그리고 함께 공감하고 행동해야 한다.

청주YWCA 여성주의 운동도 모두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여성들의 '왜'라는 질문은 당연하다는 기존 질서를 깨고 새로운 질서를 향해 나가는 첫걸음이다. 여성들이 세상을 향해 던지는 말이 때론 불편할 수 있지만 강요된 평화가 깨지고, 자신과의 불화, 공동체와의 불화를 거친 후 우리는 '새날'을 낳을 수 있다.

.....

글을 쓴 이해정은 현재 청주YWCA 사무총장으로서 여성의 눈으로 일자리 문제, 환경생태 문제, 공간 문제를 인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청주Y에서 청소년 지도력양성, 환경부문의 일을 했으며 사회적기업 '생명살림 울리', 여성인력 개발센터에서도 일했다.

편집 후기

『어·세』 편집위원

김은경
신 선
이은영
최형미



김은경

『여·세』 편집위원

“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사야 30:19)

2014, 2016, 모든 것이 무너졌다.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더 이상 기댈 것이 없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게 된다. 누구를 원망함이 허공에 메아리쳐 되돌아올 때 결국 모든 잘못이 내게 있음을 깨닫게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사유하고 부르짖음으로 답을 구할 때이다.

신 선

『여·세』 편집위원

참으로 고단하고 힘든 2016년에 즐기차게 시달려 온 비인간적인 ‘여성혐오’의 현실에서 살아남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런 어이없는 사회로 치달리는 현장에서 정의, 자존, 권리에 대한 고발이 제도권과 기독교에 여실히 묻히고 마는 현실. 그러기에 여성혐오를 넘어서 성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일은 더욱 안타까운 간절함으로 다가온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하나님나라 운동을 펼치는 일은 YWCA가 앞장서야 할 과제이다. 이번 『여·세』 4호는 여성주의 관점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YWCA가 여러 방면으로 시도하고 희망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 시대적 사명을 생각해 보는 적절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은영

『여·세』 편집위원

지난 한 해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사회적 반감과 분노의 참혹한 일들을 소위 여성혐오라는 이름으로 맞닥뜨리면서 너무나 충격적이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참담함에 대해 단지 감정적인 대응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이러한 현상이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대응을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분석해 보는 기회가 생긴 것이 참으로 반갑고 시기적절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 호를 통해 우리나라의 왜곡된 여성에 대한 인식과 그 원인을 한번쯤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좀더 철학적 성찰이 필요한 시기인 듯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좀더 진일보한 여성주의로 나가는 한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형미

『여·세』 편집위원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았다면 나는 페미니스트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교회학교를 문턱을 넘어설 때부터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고 들으며 자랐다.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갔다. 내게 신앙은 약자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리고 나는 자연스럽게 여성주의자가 되었다. 여성주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학문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신앙을 실천하는 길을 보여주었다. 왜 여성들은 어느 공간에서나 다양한 폭력에 시달릴까? 왜 감정노동은 여성들에게만 강요될까? 여성들은 왜 남성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야 할까? 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는 몸이나 섹스를 하는 몸으로만 평가될까? 여성들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사회가 가능할까? 이것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공감으로 확장되었다.

전국적 조직을 갖춘 YWCA가 여성혐오와 폭력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여성혐오가 등장하는 이유, 여성폭력의 실태, 그리고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들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식을 나누며 『여·세』를 준비하는 과정은 희망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이 땅에서 폭력에 저항하고 평등을 이루려는 사람,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딸이라 불릴 것이며...

편집
후기



여성이 살리는 세상
제4호

「여·세」는 여성의 꿈을 담아 여성의 힘으로 이웃과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갈망과 지혜를 수렴하는 장입니다.
「여·세」구독 신청해 주세요.

구독신청

구독 신청서

신청하시는 분

이름: _____

전자우편: _____

주소: 우편번호() _____

유선전화: _____

휴대전화: _____

책 받으실 분 위와 동일할 경우 체크

이름: _____

전자우편: _____

주소: 우편번호() _____

유선전화: _____

휴대전화: _____

연락처 TEL 031-313-9315 FAX 031-311-8455
(우) 14900 경기도 시흥시 하우로 167 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여·세」 편집팀

정가 12,000원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예금주 한국YWCA연합회
「여·세○○○」의 형태로 입금해 주세요.

팩스,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전자우편(ywcapr@hanmail.net)으로 보내실 때도 양식을 참조하여 주세요.

